

Annual Report

2020

KBS 시청자상담백서



Contents

1. 시청자상담실 운영	3
2. 2020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5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37
4. 상담내용 분석	46
5. 정보공개 안내	113
※시청자 권익보호란?	120
6. KBS 고충처리인 활동	123
7. 시청자 청원	125
8. 제작진 답변	127
9. 부록 (관련근거)	
- KBS 방송강령	134
- KBS 민원처리규정	139
-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144
-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	147
- 시청자청원제도 운영지침	152

1 시청자상담실 운영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시청자 의견을 듣고 공유하며 제시된 의견을 방송 전반에 적극 반영해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KBS는 방송법 제54조(업무)에 따라 시청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은 시청자 권익보호를 위해 365 일(1 일, 24 시간 상담) 시청자와 소통하는 공간으로 상담원 23 명이 주간 2 교대, 야간 2 조 근무형태로 시청자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상담실의 주요 업무는 KBS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접수하는 것이며, 또 방송을 통해 제기될 수 있는 시청자 권익침해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시청자 의견접수는 전화, 인터넷(시청자상담실 자유게시판과 1:1 메일 문의), ARS, 서신,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는 당일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접수한 시청자 의견을 정리한 보고서로서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에 매일 게시되고 있으며 KBS 사내 게시를 통해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정보를 공유하고 KBS 방송제작 및 경영효율화 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방송법 제 54조(업무)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7. 시청자 불만처리와 시청자 보호를 위한 기구의 설치 및 운영

- 상담실 홈페이지 : <http://iaudience.kbs.co.kr>
- 상담실 이메일 : happykbs@kbs.co.kr
- ☎ 상담실 연락처 : 02-781-1000, 1588-1801





시청자상담 가이드

시청자상담실은 방송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집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시청자의 다양한 입장을 경청하고 있다.

△ 자유와 책임

- 편성의 독립과, 제작의 자율성은 잘 지켜지고 있는가?
- 제작자가 제작의 자율권만 내세워서 오용하거나 남용하지 않는가?
- 경제관련 프로그램은 국민경제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나?
- 자연프로그램은 자연에 대한 정확한 지식, 소중함, 환경보존의 역할에 기여하는가?
- 음식, 조리 프로그램은 국민의 식생활과 건강, 음식문화를 고려해 신중하고 적절한가?

△ 정확, 공정, 진실

- 모든 보도, 정보 프로그램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제작되는가?
- 방송프로그램은 사실과 제작자의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하는가?
- 취재, 제작과정에서 취재 대상과 시청자들에게 진실하게 대하는가?
- 모든 프로그램에서 사회적 신분, 계층, 성별, 나이, 종교, 출신지역, 국적, 인종 등에 따른 다양한 의견과 이익을 차별 없이 균형 있게 반영하는가?

△ 인권존중

- 방송 표현이 시청자의 기본인권을 침해하는가?
- 청소년(어린이)이 프로그램의 폭력묘사를 통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가?
- 어린이와 청소년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소질과 능력을 개발하고 건전한 인성교육에 기여하는가?
- 어린이와 인터뷰는 부모나 법적인 보호자의 동의를 얻었는가?
- 취재원과의 보호 신뢰, 실명공개, 내부고발자 익명보도 원칙은 잘 지켜지는가?

△ 사회통합

- 우리사회에 존재하는 다양성을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사회와 개인에게 커다란 영향, 법적 분쟁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가?
-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프로그램은 충실히 제작되고 있는가?

△ 민주적 여론형성

- 민주사회의 유지, 발전을 위해 방송에서 정보와 의견이 자유롭게 반영되는가?
- 제작자는 다양한 사회집단의 입장과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는가?
- 건전한 사회 여론형성에 충실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가?

△ 전통문화

- 프로그램은 한민족의 정체성과 국가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책임을 다하는가?
- 언어는 정확하고 아름다운 한국어를 사용하는가? (어휘, 어법, 발음)
- KBS는 전통문화와 예술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창조에 이바지 하는가?

2

2020년 시청자상담실 운영실적

시청자상담실은 2020년 한 해 동안 상담전화와 인터넷, 방문, 서신(우편, 팩스), ARS, 등을 통해 총 344,350건을 접수·처리하였으며 그 중 방송관련 의견(261,495건, 75.9%)이 대부분을 차지해 KBS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1

연도별 상담건수 변화

기간	상담건수	증감	증감률
2020년	344,350	▼ 29,492	-7.89%
2019년	373,842	▼ 2,780	-0.74%
2018년	376,622	▼ 32,658	-7.98%
2017년	409,275	▼ 67,218	-1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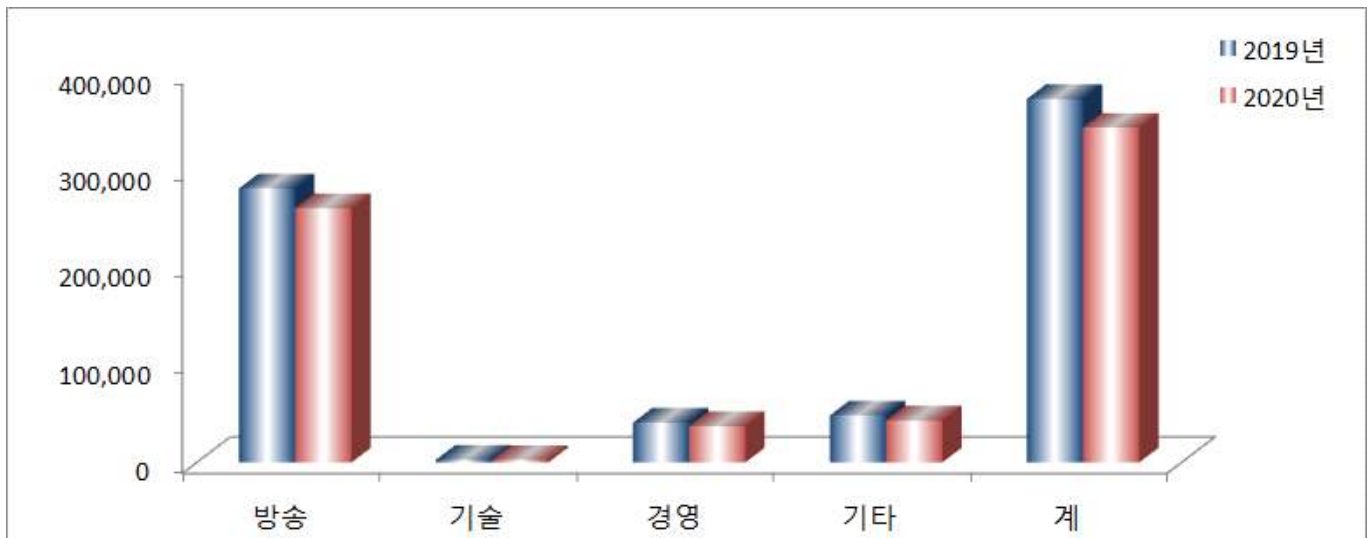


2 시청자의견 집계

■ 2020년 월별, 분야별 상담처리 건수

월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	20,778	193	2,887	3,355	27,213	
2	26,109	176	2,578	3,772	32,635	
3	26,431	171	2,753	4,496	33,851	
4	25,119	190	2,844	3,665	31,818	
5	21,739	215	2,634	3,571	28,159	
6	20,235	233	2,357	3,442	26,267	
7	21,568	231	2,489	3,682	27,970	
8	20,848	247	2,574	3,881	27,550	
9	19,549	229	2,873	3,625	26,276	
10	19,471	210	8,398	3,407	31,486	
11	18,024	190	2,417	3,075	23,706	
12	21,624	199	2,483	3,113	27,419	
계	건	261,495	2,484	37,287	43,084	344,350
	비율	75.9%	0.7%	10.8%	12.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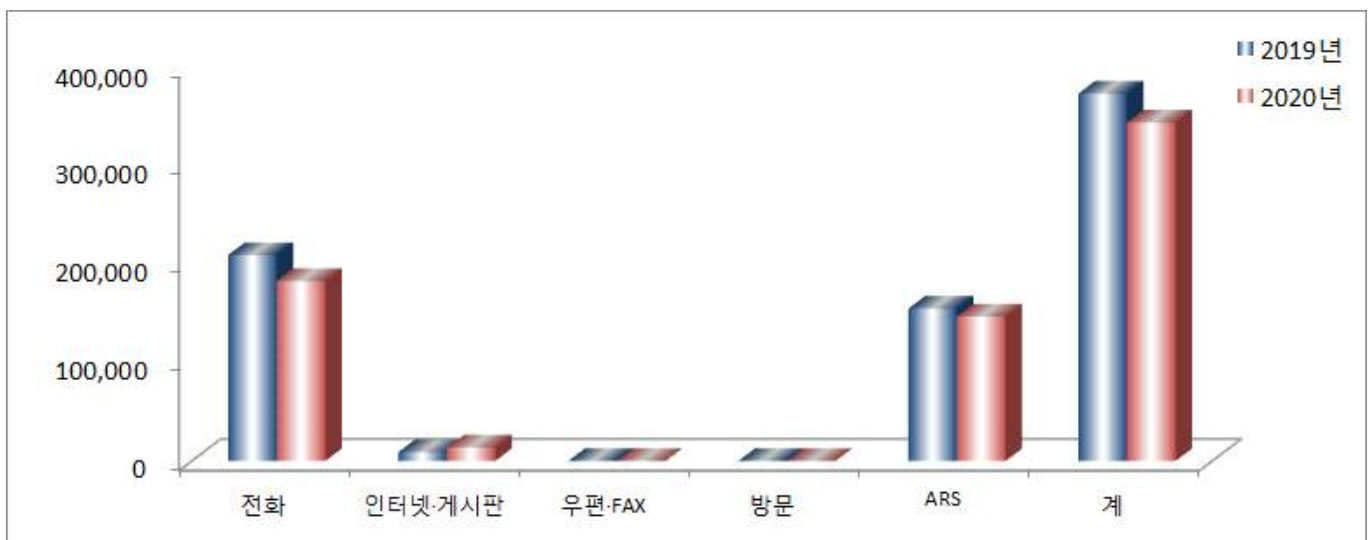
[2019년, 2020년 분야별 상담현황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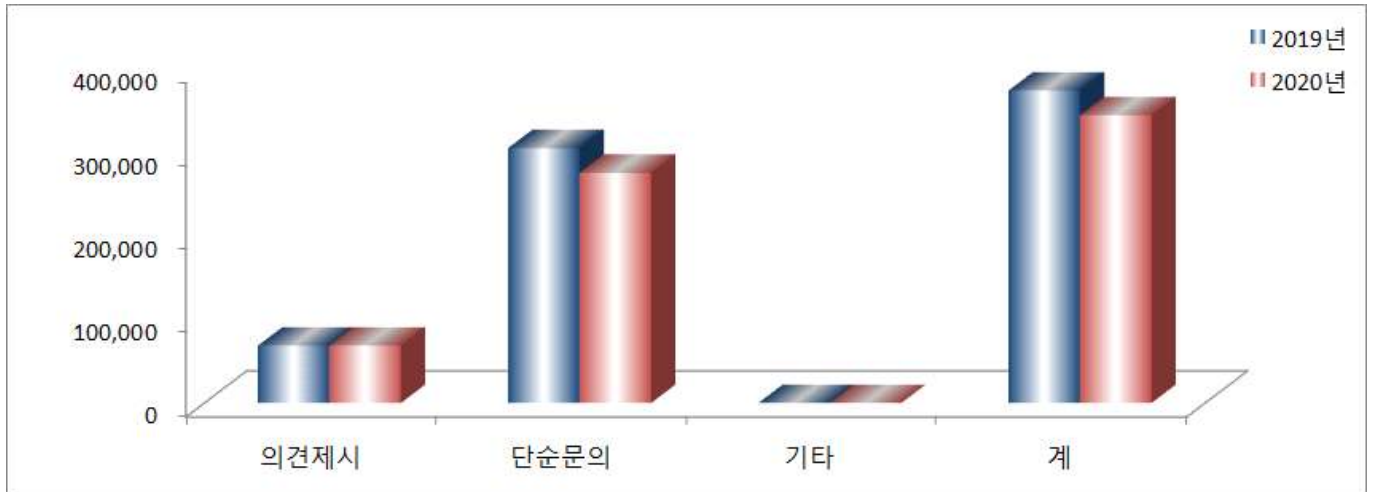
■ 2020년 접수형태별 상담처리 건수

월	전화	인터넷·게시판	우편·FAX	방문	ARS	계	
1	14,857	698	8	2	11,648	27,213	
2	16,776	3,071	8	1	12,779	32,635	
3	16,950	2,801	3	1	14,096	33,851	
4	15,476	863	9	3	15,467	31,818	
5	15,266	568	6	3	12,316	28,159	
6	14,412	490	19	1	11,345	26,267	
7	14,906	969	8	2	12,085	27,970	
8	15,721	884	8	0	10,937	27,550	
9	14,308	783	0	0	11,185	26,276	
10	18,034	966	8	3	12,475	31,486	
11	12,939	811	6	1	9,949	23,706	
12	13,690	856	11	0	12,862	27,419	
계	건	183,335	13,760	94	17	147,144	344,350
	비율	53.2%	4.0%	0.0%	0.0%	42.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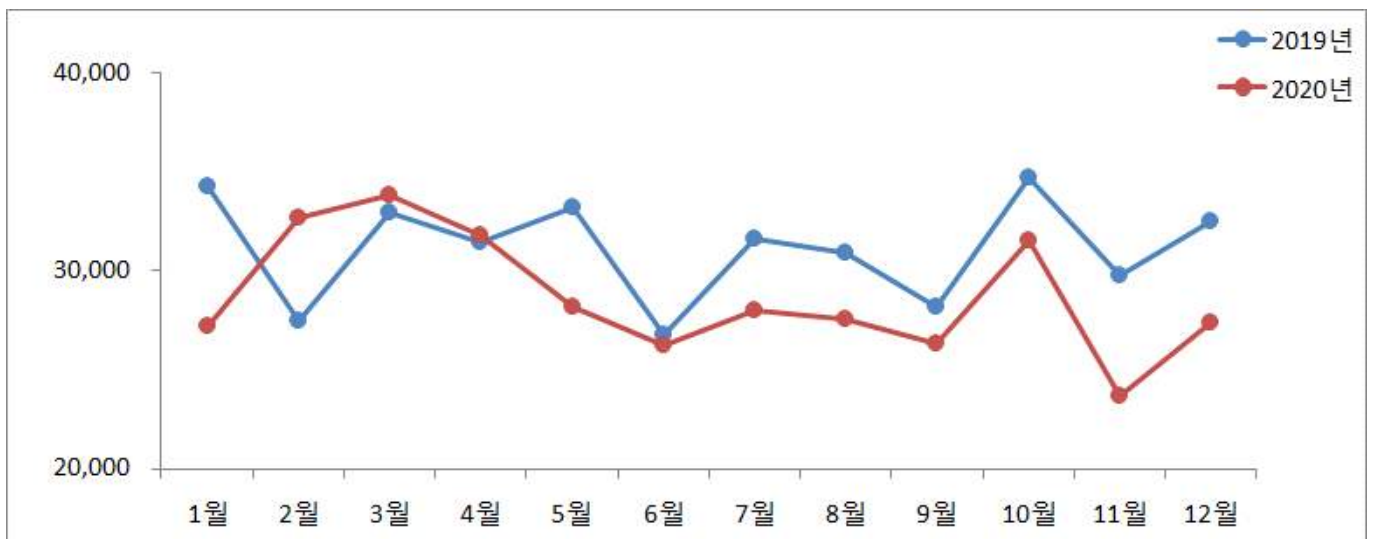
[2019년, 2020년 접수형태별 상담현황 비교]



[2019년, 2020년 시청자의견 건수 비교]



[2019년, 2020년 월별 시청자상담 건수 비교]



■ 2020년 분야별 월별 처리 실적 (상담보고서 등록의견)

월	편성	보도	스포츠	교양	연예·오락	드라마	라디오	DMB	기타	계	
1	86	72	0	182	56	19	33	0	2	450	
2	303	142	0	743	238	42	42	0	62	1,572	
3	159	2,013	0	224	59	35	36	0	29	2,555	
4	236	112	0	217	54	49	39	0	0	707	
5	240	44	0	1,192	58	20	27	0	0	1,581	
6	358	78	3	253	91	13	28	0	0	824	
7	154	204	0	219	87	62	43	0	0	769	
8	549	94	0	159	511	30	30	0	0	1,373	
9	109	71	3	190	46	50	33	0	0	502	
10	754	49	2	147	60	29	24	0	3,326	4,391	
11	274	41	17	159	33	19	65	0	0	608	
12	73	43	0	162	72	52	66	0	0	468	
계	건수	3,295	2,963	25	3,847	1,365	420	466	0	3,419	15,800
	비율	20.9%	18.8%	0.2%	24.3%	8.6%	2.7%	2.9%	0.0%	21.6%	100%

3 월별 다수의견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1월	시사기획 창	이날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의 정치적 영향력 가능성과 파장, 그 한계 등을 짚어보았다. 본인은 지난해 10월부터 광화문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시민인데, 해당 방송에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보수단체 혹은 돈을 받고 참석하는 사람으로 매도해서 보기 불편했다. 또한 전광훈 목사 측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도 편파적이었다.	30
2월	특별생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신현욱 목사가 패널로 출연해서 신천지가 어떤 종교단체인지 설명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만희 씨가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신앙촌 등에서 보고 배운 교리들을 혼합해 만든 단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신앙촌과 신천지는 교리가 다르며, 전혀 다른 종교다. 목사의 발언으로 신앙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재방송 및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장면을 편집해주시기 바란다.	359
3월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최동석 아나운서가 주말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따르기 위해 경조사 참석조차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의 메인 뉴스 앵커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망스럽고,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시청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는 진행자로 교체해주시기 바란다.	1,443
4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0 총선	오후 4시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방송되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0 총선」을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진보 쪽 인사를 대표해서 해설에 참여했는데, 유시민 작가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자주 해서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조금 더 공정한 진보 쪽 인사를 섭외했더라면 좋을 것 같다.	58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5월	6시 내고향	<p>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가 및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판로를 마련한 코너다. 본인도 해당 방송을 통해 영광 굴비와 천일염을 주문했다. 그러나 천일염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고, 영광 굴비는 사이즈가 작고 상태가 좋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KBS를 믿고 구매한 시청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주기 바라며, 원활한 주문이 이뤄지도록 접수 시스템도 개선해주기 바란다.</p>	521
6월	노래가 좋아	<p>토요일 오전마다 빠짐없이 시청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2020. 6. 27.)부터, 해당 방송의 방송 요일이 화요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속상했다. 해당 방송이 토요일 오전의 즐거움이었는데 편성이 변경된 사유가 궁금하다. 다시 토요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다.</p>	60
7월	<p>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p>	<p>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이유를 취재했다. 그 이유로 일부 기독교 단체들을 거론했는데, 해당 보도에 기독교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담기지 않아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들의 의견이 담기지 않은 점도 공정하지 않다.</p>	44
8월	불후의 명곡	<p>이날은 '김종국X터보' 특집으로 꾸며졌다. 출연자들 중 김호중 씨는 과거 불법 도박을 인정했기 때문에 편집이 됐다. 그런데 여전히 김호중 씨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팬들이 많다. 다음 주 방송에서는 김호중 씨의 무대를 볼 수 있길 바란다.</p>	417

구분	프로그램명	의견 내용	건수
9월	기막힌 유산	최근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매일 저녁 시청하는 일일연속극이 큰 위안이 되는데, 이날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특집 뉴스 편성으로 해당 드라마가 결방 됐다. 별다른 즐거움이 없는 요즘 같은 시기에 드라마만큼은 결방 없이 편성해 주기 바란다.	36
10월	수신료 담당부서 연결불가	본인은 장애인인데 보건복지부로부터 TV 수신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장애인 감면 혜택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수신료 담당부서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 담당부서와 연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2,087
11월	비밀의 남자	이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귀가했다. 그런데 이날 야구경기 중계로 인해 결방이 됐다. 최근 해당 드라마가 수시로 결방이 되며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는 등, 고정 시청자 입장에서 기분은 좋지 않다. 한국시리즈도 막을 내렸으니,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45
12월	14시 뉴스	지난 19일에 방송된 KBS 1라디오 오후 2시 뉴스에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가 여당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생략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기사를 원고대로 읽지 않고,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임의로 생략해 읽었다는 것이다. 공정해야 할 뉴스의 진행자가 이런 행동을 해서 실망스러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21

4 월별 Top 10 의견

| 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시사기획 창]	30	이날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의 정치적 영향력 가능성과 파장, 그 한계 등을 짚어보았다. 본인은 지난해 10월부터 광화문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시민인데, 해당 방송에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보수단체 혹은 돈을 받고 참석하는 사람으로 매도해서 보기 불편했다. 또한 전광훈 목사 측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도 편파적이었다.
1TV [2020 특별생방송 정치개혁 국민에게 길을 묻다]	28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생각하는 우리 정치의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지, 국민과 함께 정치 개혁의 큰 길을 찾아 나섰다. 방송을 시청하며 본인도 우리 정치에 대해 평가를 했고, 주문하고 싶은 점이 있어 문자 참여를 했지만 화면에 노출되지 않아 아쉬웠다. 문자 이외에도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2TV [우아한 모녀]	18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한 캐리 정(최명길 분)과 원수들의 팽팽한 대립이 펼쳐지면서 극이 점점 절정을 향해가고 있다. 이어질 이야기가 궁금해서 해당 드라마의 방송 시간만 기다렸는데, 이날 결방이 되어 무척 속상했다. 전개가 절정으로 치닫고 있으니 가급적이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시사기획 창]	17	전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의 극단적인 정치 활동의 모습과 역사적 배경, 그 의미를 분석한 방송이었다. 그러나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을 보수단체 혹은 돈을 받고 참석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전광훈 목사 측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이 편파적이었다. 앞으로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담아 공정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TV [우리말 겨루기]	15	아름다운 우리말을 퀴즈로 풀어보는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월요일마다 빠짐없이 시청한다. 특히 엄지인 아나운서의 편안한 진행이 집중력을 높인다. 그런데 이날은 엄 아나운서의 휴가로 다른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을 맡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엄 아나운서를 기다리는 시청자가 많으니 하루빨리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9	이날은 도경완 아나운서의 자녀들이 KBS 방송국을 견학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그런데 2부 전체를 도경완 씨 가족이 차지하는 바람에 다른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없어 아쉬웠다. 가족 별 비중 차이가 심하니, 앞으로는 가족 별 출연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해주시기 바란다.
1TV [생방송 심야토론]	9	검찰에 대한 인사권과 검찰의 수사권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보고, 검찰개혁이 나아가야 할 바에 대해 토론했다.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인사권자의 인사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 의무인데, 이를 두고 검찰인사가 정당한 통제인지 부당한 장악인지의 여부로 토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1TV [동행]	8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희망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시청하는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안타까웠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인 만큼,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TV [정치합시다]	8	이날은 경제와 정치가 어떤 관계인지, 경제적 불평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등에 관해 이야기 나눴다. 그런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반론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을 끊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등 좋지 않은 토론 태도를 보였다. 앞으로는 상대방의 의견이 본인의 뜻과 다를지라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8	이날은 전신 재건 프로젝트로 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김지범 족부정형외과 전문의가 패널로 출연했는데, 발에 생기는 질환에 대해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해주어 굉장히 유익했다. 특히 중장년층에서 많이 발생하는 족저근막염과 말초신경병증을 다뤄주어 많은 도움이 됐다.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감사하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특별생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359	신현욱 목사가 패널로 출연해서 신천지가 어떤 종교단체인지 설명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만희 씨가 한국의 대표적인 이단인 신앙촌 등에서 보고 배운 교리들을 혼합해 만든 단체.”라고 발언했다. 그러나 신앙촌과 신천지는 교리가 다르며, 전혀 다른 종교다. 목사의 발언으로 신앙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 재방송 및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장면을 편집해주기 바란다.
2TV [거리의 만찬]	198	해당 프로그램이 새 시즌을 시작하며 시사평론가 김용민과 배우 신현준을 새로운 MC로 선정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김용민 씨는 과거 방송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노인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던 인물로,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프로그램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 같다.
2TV [뮤직뱅크]	93	아이즈원의 출연 반대 청원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을 읽었다. 아이즈원은 KBS 심의 규정에 저촉되는 바가 없어 출연 규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논란이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1016회 방송에 한해 캐스팅한다는 답변이었다. 출연 규제자 명단에 포함되진 않지만, 논란을 감안해 1회만 출연시킨다는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이즈원의 해당 방송 캐스팅과 관련한 결정을 재고해주기 바란다.
2TV [뮤직뱅크]	64	이날 방송에 다음 주 컴백 가수들의 예고편이 공개됐다. 공개된 예고편에는 걸 그룹 아이즈원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그런데 아이즈원은 국민 투표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에서 투표 조작 논란에 휩싸인 그룹으로, 투표 조작의 피해자가 보상 받지 못한 상황에서 방송에 출연해 활동을 강행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다. 해당 그룹의 섭외를 다시 한 번 고려해주기 바란다.
1TV [노래가 좋아]	60	노래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노래 대결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재미있게 보고 있다.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가슴 찡한 인생사와 추억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 감동적이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매우 아쉬웠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거리의 만찬]	56	세 명의 여성 MC가 사회에서 소외당한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리의 만찬」을 유익하게 시청해왔다. 그런데 새 시즌을 시작하며 시사평론가 김용민과 배우 신현준을 새로운 MC로 선정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해당 방송은 여성 진행자가 여성의 시선으로 시사 이슈를 다루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남성 진행자가 프로그램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다.
1TV [노래가 좋아]	56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노래를 함께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뉴스특보」편성으로 해당 방송이 평소보다 늦게 시작되어 당황스러웠다. 편성 시간은 시청자와의 약속이므로, 될 수 있으면 방송 시간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	53	본인은 보고 싶은 방송을 놓쳤을 경우, KBS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이다. 이날도 놓친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홈페이지 오류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난감했다. 현재 홈페이지 오류로 복구 과정에 있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복구해주시기 바란다.
1TV [특집 KBS 뉴스 9]	46	KBS가 총선까지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의 세 번째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그런데 해당 여론조사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아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역시 대한민국의 정당이므로, 해당 정당이 포함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편파적으로 여겨진다.
1TV [KBS 뉴스특보]	35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맞물려 국민적 불안감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본인은 해당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고,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온종일 KBS를 시청하고 있다. 물론 「뉴스특보」가 편성되어 있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고 충분한 정보를 얻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1TV에서 온종일 특보를 편성하여 코로나19의 국내현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1,443	최동석 아나운서가 주말 가족 여행을 다녀온 것과 관련해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들은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 방침을 따르기 위해 경조사 참석조차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주관 방송사인 KBS의 메인 뉴스 앵커가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망스럽고, 뉴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다. 시청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는 진행자로 교체해주시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85	9시 뉴스의 앵커인 최동석 아나운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아서 논란이 되고 있다.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힘을 합치고 있는 요즘,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의 메인 뉴스 앵커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이 실망스럽다. 시청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줄 수 있는 진행자로 교체해주시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91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대중이 공분을 표하고 있다. 성 착취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한 것도 충격인데, 해당 방에 참여한 이의 숫자가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KBS에서 해당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 안타깝다. 메인 뉴스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해주시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66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KBS 9시 뉴스를 시청했는데, 해당 사건이 비중 있게 다루지지 않아서 의아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심층 보도를 해주기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8	약국과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공적으로 마스크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젊은 사람들, 식구가 많은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서 공적마스크를 사재기한다. 본인과 같은 노약자는 새벽부터 줄을 설 수가 없어서 며칠 째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했다. 직장인도 마찬가지다. 마스크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방법을 취재해주시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KBS 아침 뉴스타임]	31	해당 방송을 통해 우체국에서 65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접한 후,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우체국을 찾아갔다. 그러나 대구와 청도 지역 및 공급여건이 취약한 읍면소재 우체국에서만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인처럼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채 빈 손으로 돌아간 시민들이 많다. 정확한 내용만 보도해주기 바란다.
[스크롤 자막]	29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하고,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어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KBS에서는 방송 하단의 스크롤 자막을 통해 예방수칙 등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원망이 커지며 중국어도 보기 불편하다. 세계 공통어로 사용되는 영어로 안내하면 충분할 것 같다.
1TV [노래가 좋아]	24	고단한 한 주를 보낸 후 「노래가 좋아」를 시청하며 위로 받는 시청자이다. 그런데 지난 2월 22일부터 이날까지 해당 프로그램이 계속 결방되었다. 비록 코로나19로 나라가 여수선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즐거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정치합시다]	20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부산을 직접 찾아 영남권 민심의 향방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막말로 여러 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고, 더구나 정치적으로 너무 편향되어 있어 시청자 입장에서 믿음이 가지 않는 출연자이다. 조금 더 신중하고 공정한 성향의 출연자를 섭외해주기 바란다.
1TV [노래가 좋아]	18	노래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노래 대결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재미있게 보고 있다.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가슴 찡한 인생사와 추억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 감동적이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매우 아쉬웠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4월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0 총선]	58	오후 4시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방송되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0 총선」을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진보 쪽 인사를 대표해서 해설에 참여했는데, 유시민 작가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자주 해서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조금 더 공정한 진보 쪽 인사를 섭외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1TV [꽃길만 걸어요]	43	강여원(최윤소 분)과 봉천동(설정환 분)이 천신만고 끝에 하나음료의 비리를 밝혀냈다. 제목처럼 꽃길을 걷게 될 줄 알았지만, 왕꾼님(양희경 분)이 두 사람 사이를 반대해서 또다시 위기에 처했다. 이어질 내용이 궁금했는데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종영까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악인전]	39	새 음악 예능프로그램 「악(樂)인전」의 첫 회가 방송됐다. 화려한 출연진에 기대를 품고 시청 중이었는데, 1부 방송 후 2부가 이어지지 않아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후 하단에 시청자들의 양해를 부탁하는 자막이 나왔지만, 그마저도 명쾌하지 않아 의아했다. 편성은 시청자와의 약속이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1TV [노래가 좋아]	30	따뜻한 가족 노래 대결 프로그램으로, 매주 토요일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주말 아침을 즐겁게 보낸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당 방송이 자주 결방되었고, 이날 또한 결방됐다. 고정 시청자로서 무척 속상하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노래가 좋아]	27	고단한 한 주를 보낸 후 「노래가 좋아」를 시청하며 위로 받는 시청자이다. 그런데 지난 2월부터 3월 초까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해당 방송이 자주 결방되었고, 이날 또한 결방됐다. 비록 코로나19로 나라가 어수선하지만, 이런 시기일수록 즐거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정치합시다]	18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열띤 공방을 벌였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자주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등, 상대를 배려하는 점이 부족해보여서 보기 안 좋았다. 조금 더 독립적인 출연자로 교체해주기 바란다.
1TV [정치합시다]	16	총선 민심을 살펴보는 '민심포차 2부'에서는 경기·수도권 민심과 함께 경기·강원권 민심도 분석했다. 그런데 고정 패널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4·15 총선에서 범여권 180석 확보를 자신하는 등 편향적인 발언을 자주 했다. 추후에는 조금 더 독립적인 출연자 위주로 섭외해주기 바란다.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15	장윤정 씨가 무려 17년을 알고 지낸 30년차 명품 배우 손현주 씨를 집으로 초대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그런데 도경완 씨 가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커서 다른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없어 아쉬웠다. 또한 도경완 씨 가족만 아내 장윤정 씨가 출연하는 점도 의아하다. 앞으로는 엄마의 출연 비중을 줄이고, 가족 별 출연 시간을 균등하게 배분해주기 바란다.
1TV [6시 내고향]	14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어가와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내고향 상생 장터' 코너를 통해 양상추, 더덕, 우럭 등을 구매했다. 그러나 싱싱하지 않거나 크기가 너무 작은 상품들이 왔고, 일부 판매자는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해서 당황스러웠다. 공영방송 KBS를 믿고 상생 장터를 이용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업체 선정을 제대로 해주기 바란다.
2TV [개그 콘서트]	13	이날 「개그 콘서트」가 결방되고 특선영화가 편성됐다. 다양한 소재와 연기로 웃음을 선사하는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한 주의 커다란 즐거움이다. 코로나19로 웃을 일이 줄어든 요즘 같은 시기에,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6시 내고향]	521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가 및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판로를 마련한 코너다. 본인도 해당 방송을 통해 영광 굴비와 천일염을 주문했다. 그러나 천일염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고, 영광 굴비는 사이즈가 작고 상태가 좋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KBS를 믿고 구매한 시청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 주기 바라며, 원활한 주문이 이뤄지도록 접수 시스템도 개선해 주기 바란다.
1TV [6시 내고향]	455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만든 코너인 '상생장터'에서 이날은 '영광 굴비'를 판매했다. 맛있는 굴비도 먹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좋은 마음으로 주문하려했으나, 전화 연결과 홈페이지 접속 모두 어려워 며칠이 지나도록 주문을 할 수가 없다. 앞으로는 원활한 주문이 이뤄지도록 접수 시스템을 개선해 주기 바란다.
1TV [노래가 좋아]	44	매주 토요일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주말 아침을 즐겁게 보낸다. 그런데 이날은 강원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뉴스특보」가 편성됨에 따라 해당 방송이 결방 됐다. 물론 이해는 하지만,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사태로 결방이 잦았기에 서운한 마음이 크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40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음악 프로그램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시청한다. 흘러간 옛 노래를 들으며 그 시절을 추억할 수 있어 본인에게는 참 소중한 시간이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방송이 결방되어 너무 아쉬웠다. 될 수 있으면 편성을 지켜주기 바란다.
1TV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	32	정의기억연대(정의연)의 기부금 유용 등 관련 의혹을 처음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이날 2차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MBC와 SBS, YTN 등 주요언론사에서 해당 기자회견을 중계했는데, 정작 공영방송인 KBS만 편성하지 않은 점이 의아하고 실망스러웠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위험한 약속]	30	지난 방송에서 차은동(박하나 분)이 한지훈(이창욱 분)의 생모가 연두심(이칸희 분)이라는 사실을 고스란히 알게 되어, 이날 후폭풍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방송을 기다렸다. 그런데 프로야구 중계로 결방 되어 너무 속상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22	동네의 숨은 매력을 재발견하며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는 도시 기행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잃어버리고 살았던 동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했다. 그런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너무 아쉬웠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20	현재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인 '언론개혁'을 다뤘다. 그런데 출연자들이 자신과 다른 시각을 가진 언론이나 사람에 대해 비판하는 점이 보기 안 좋았다. 또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당선인을 비롯해, 출연자들의 성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출연자를 균형 있게 구성해주기 바란다.
1TV [6시 내고향]	19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어가와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내고향 상생 장터' 코너를 통해 감자를 주문했다.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감자가 배송되지 않아 의아해하던 중, 주문이 자동 취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다. KBS를 믿고 좋은 마음으로 상생 장터를 이용했는데 실망스러웠다. 앞으로는 책임감 없고 역량이 부족한 판매자는 섭외하지 않길 바란다.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14	조국 前 장관 관련 보도와 이천 화재현장에서의 노동자들 참사 보도 등에서 드러난 언론의 낡은 취재관행을 짚어보았다. 그런데 해당 방송에 출연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조 前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 前 장관 관련 보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게 느껴졌다.

| 6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노래가 좋아]	60	토요일 오전마다 빠짐없이 시청했다. 그런데 이번 주 토요일(2020. 6. 27.)부터, 해당 방송의 방송 요일이 화요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속상했다. 해당 방송이 토요일 오전의 즐거움이었는데 편성이 변경된 사유가 궁금하다. 다시 토요일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다.
1TV [6시 내고향]	49	지난 5월 18일 방송된 영광 굴비, 5월 25일 방송된 붉은 대게살 등을 구입했다. 질 좋은 제품을 구매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결제부터 배송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받은 물건들이 생각보다 질이 떨어져 실망했다. 앞으로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주기 바란다.
2TV [위험한 약속]	36	지난 회 방송에서 차은동(박하나 분)이, 최준혁(강성민 분)이 이만중(이대연 분)을 살해했다는 증거를 찾았다. 그래서 이어질 전개를 무척 기대했는데, 프로 야구 중계 여파로 결방이 됐다. 최근 결방이 잦아서 속상하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	35	5월 감사의 달 특집으로 '송해가요제' 두 번째 이야기로 꾸며졌다. 그동안 「전국노래자랑」에서 많은 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준 국민MC 송해 씨와,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는 트롯맨 6인의 만남이 무척 재미있었다. 해당 방송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2TV [위험한 약속]	28	불의에 맞서다 벼랑 끝에 몰린 차은동(박하나 분)과, 그런 그녀를 배신하고 자신의 가족을 살린 강태인(고세원 분)의 복수극이다.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서 열심히 시청 중인데, 최근 프로야구 중계로 인해 종종 결방이 된다. 이날도 LG와 KIA의 경기로 결방 되어 너무 속상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위험한 약속]	27	스토리가 흥미진진해서 매일 저녁마다 빠짐없이 해당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프로야구 중계로 인해 종종 결방이 된다. 이날도 KIA와 두산의 경기 중계로 결방 되어 너무 속상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2TV [기막힌 유산]	23	서른셋의 무일푼 처녀 가장이 팔순의 백억 자산가와 위장결혼을 작당해 막장 아들 넷과 가족애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탄탄한 극본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덕분에 매일 저녁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이날 6.25 전쟁 70주년 행사로 인해 해당 드라마가 결방되어 속상했고, 앞으로는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19	도경완 아나운서가 아들 도연우를 위해 집안에 코인노래방을 설치하는 장면이 방송됐다. 그런데 도경완 아나운서는 늘 과한 콘셉트를 잡는 것 같아서 어색하고 재미도 떨어진다. 또한 장윤정 씨가 자주 출연하는 점도 프로그램의 취지와 어울리지 않는다. 역시 콘셉트보다는 자연스러운 웃음을 선사해주시기 바란다.
1TV [노래가 좋아]	16	단순한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닌 우리 이웃들의 다양한 이야기와 노래를 함께 들을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은 「중계방송 불기 2564년 부처님 오신 날 봉축식」편성으로 해당 방송이 평소보다 늦게 시작되어 당황스러웠다. 편성 시간은 시청자와의 약속이므로, 될 수 있으면 방송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
1TV [노래가 좋아]	16	따뜻한 가족 노래 대결 프로그램으로, 고단한 한 주를 보낸 후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위로 받는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난 2월부터 결방이 잦았고, 이날은 현충일 중계방송 편성으로 또 결방이 됐다.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임에도 결방이 잦아 속상하다.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 7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44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이유를 취재했다. 그 이유로 일부 기독교 단체들을 거론했는데, 해당 보도에 기독교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담기지 않아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들의 의견이 담기지 않은 점도 공정하지 않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35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숨진 채 발견되어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KBS 뉴스에서 박 시장을 추모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보도가 많은데, 이는 자칫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면죄부를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 또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보도해주시기 바란다.
2TV [한 번 다녀왔습니다]	33	홍연홍(조미령 분)이 강초연(이정은 분)의 가족사진을 훔쳐, 송영달(천호진 분)에게 자신이 친동생이라고 거짓말하는 내용이 그려졌다. 이제까지 자신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강초연을 배신하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불편했다. 그동안 온 가족이 즐겁게 시청해왔는데, 홍연홍이 등장하며 갑자기 사기와 협박 등 좋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어 안타깝다.
1TV [중계방송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	23	지난 25일, 6.25 전쟁 70주년 행사가 열렸다. 그런데 애국가 제창 때 편곡한 전주가 흘렀는데, 그 전주가 북한 애국가의 전주와 음정과 리듬이 거의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편곡은 KBS 교향악단이 맡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다른 행사도 아닌 6.25 추념식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 안타깝다.
1TV [역사저널 그날]	19	여전히 논란이 가득한 한일협정과, 그 한일협정의 중심에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다뤘다. 그런데 패널들이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을 비판해서 보기 안 좋았다. 또한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일부 패널이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점도, 해당 방송을 시청한 청소년들에게 편협한 시각을 갖게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18	18일, KBS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유시민 노무현대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단정적으로 표현됐다며 바로 다음날 사과방송을 해 사실상 오보를 인정했다. 앞으로는 공영방송에서 보다 신중하게 보도해주길 바란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16	이날 앵커가 정세랑 작가의 '시선으로부터'라는 소설 속 문장인 '어떤 자살은 가해였다.'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진실의 무게는 피해자가 짊어지게 되었다고 발언했다. 아직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사자 명예훼손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동행]	15	열심히 일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려운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하고 희망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다. 매주 시청하는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안타까웠다. 소외된 이웃들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인 만큼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KBS 뉴스특보]	15	지난 23일 폭우로 인해 부산 일대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그 시각,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선 기존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방영해 실망스러웠다. 특히 자정을 넘어 폭우 피해가 심각해졌는데도 음악 프로그램이 방영돼 보기 불편했고, 뒤늦게 특보가 편성된 점도 아쉽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기 바란다.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14	황혼의 싱글 여배우들이 한 집에 모여 살며 일어나는 좌충우돌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재미있게 시청한다. 혼자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과 다양한 감정들을 솔직하게 이야기 해주어 공감이 된다. 해당 방송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불후의 명곡]	417	이날은 '김종국X터보' 특집으로 꾸며졌다. 출연자들 중 김호중 씨는 과거 불법 도박을 인정했기 때문에 편집이 됐다. 그런데 여전히 김호중 씨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팬들이 많다. 다음 주 방송에서는 김호중 씨의 무대를 볼 수 있길 바란다.
1TV [아침마당]	125	요일별로 특화된 주제를 통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 매일 아침 즐겁게 시청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요일 코너인 '도전! 꿈의 무대'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날 결방이 되어 기분이 좋지 않았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되도록 결방 없이 편성해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40	시대를 풍미했던 가수들의 주옥같은 명곡을 들려주어 매주 월요일마다 챙겨본다. 시청자들에게는 해당 방송이 매주 월요일 밤의 큰 즐거움인데, 지난주에 이어 이날도 결방이 됐다. 중장년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는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노래가 좋아]	34	일반인들이 펼치는 노래 대결 방송으로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한다. 가창력뿐 아니라 인생사, 가족사, 잊지 못할 추억 이야기 등을 들을 수 있어 더욱 재미있는 시간이다. 그런데 이날 결방이 되어 무척 실망스러웠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32	흘러간 노래와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는 매주 월요일 밤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앞으로는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위험한 약속]	32	온 가족이 매일 저녁 해당 드라마를 시청한다.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더해져 무척 흥미진진하다. 그런데 야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해당 드라마가 결방되어 너무 속상하다. 이날도 롯데와 두산의 경기 중계로 인해 결방이 되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더 라이브]	30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여, 해당 방송에서도 이에 대해 비판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의 실정을 규탄하는 집회의 목적은 다루지 않고, 전광훈 목사와 교회만 비판하는 점이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한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던 이재오 전 의원이 출연했는데 제작진과 다른 출연진의 안전이 염려된다.
1TV [KBS 뉴스특보]	29	올해 장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8일에는 제주도를 뺀 전국 16개 시도에 처음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그러나 그에 비해 뉴스특보 편성이 적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 1TV는 온종일 특보를 편성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전달하는 한편, 국민들이 대비 태세를 잘 갖추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2TV [위험한 약속]	28	흥미진진한 스토리에 배우들의 연기력까지 더해져 매일 저녁 무척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야구 경기가 있을 때마다 결방이 되어 속상하다. 이날도 KIA와 롯데의 경기 중계로 인해 결방이 되었다. 극의 흐름이 중요한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기막힌 유산]	28	서른셋의 무일푼 처녀가 장이 팔순의 백억 자산가와 위장결혼을 작당해 막장 아들 넷과 가족애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탄탄한 극본과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력 덕분에 매일 저녁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이날은 태풍 관련 뉴스특보 편성으로 인해 결방 됐다. 앞으로는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 9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기막힌 유산]	36	최근 코로나19와 태풍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호소하고 있다. 매일 저녁 시청하는 일일연속극이 큰 위안이 되는데, 이날 태풍 마이삭으로 인한 특집 뉴스 편성으로 해당 드라마가 결방 됐다. 별다른 즐거움이 없는 요즘 같은 시기에 드라마만큼은 결방 없이 편성해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심야토론]	19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여당은 서 모씨의 군 생활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 아들을 군대에 보낸 일반인 부모의 시선에서는 특혜로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다. 평소 많은 특혜를 누리는 국회의원들로 패널이 구성되니 일반인 시청자 입장에서는 다소 답답했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을 옹호하는 모습이 제 식구 감싸기로 보여 실망스러웠다.
1TV [기막힌 유산]	14	얼마 전까지 차정건(조순창 분)은 부영배(박인환 분)의 재산을 노리고 독버섯을 먹여왔다.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된 부영배는 차정건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됐다. 그동안 온가족이 좋은 마음으로 시청해왔던 드라마가 갈수록 폭력적이고 자극적으로 전개되어 당황스럽다. 코로나19로 민심이 흉흉한데 드라마라도 밝고 건전한 내용으로 제작해주기 바란다.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13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며 방역 책임에 대한 비판 수위도 거세지고 있다. 그래서 이날은 집단감염 사태 속에 언론의 책임은 없었는지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 책임을 일부 보수언론에만 묻는 것 같아 아쉬웠다. 또 집단감염과 관련해 민주노총 집회는 지적하지 않고, 광화문 집회만 비판하는 점도 공정하지 않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12	이날 방탄소년단(BTS)이 출연했다. 빌보드 핫100에서 연속 2주에 걸쳐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굉장히 놀랍고 자랑스럽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무급휴직중인 직장인,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 일자리를 잃은 아르바이트생 등 많은 국민들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런 엄중한 시기에 메인 뉴스에 연예인이 출연한 점이 보기 안 좋았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1TV [KBS 시청자 주간 역사저널 그날]	11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건설 공약을 내세웠던 내막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경부고속도로의 장점보다는 부실공사, 공사기간 중 발생한 희생자들, 국가 균형 발전을 저해한 점 등 단점을 많이 언급해 아쉬웠다. 또한 일부 젊은 출연자들이 당시의 어려웠던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대의 관점에서 공사 과정을 비판하는 점도 보기 불편했다.
1TV [KBS 뉴스특보]	9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우리나라를 향해 다가오는 가운데, 국민들이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KBS에서 뉴스특보를 편성하여 태풍 상황을 자세히 보도해주었다. 그런데 태풍의 위력과 행동 요령을 알려주기 위해 출연한 정창삼 KBS 재난방송 전문위원이 계속해서 '저희나라'라는 표현을 사용해 듣기 불편했다. 진행자가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주었다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9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그런데 장제원 의원의 아들도 음주운전 등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다른 사람의 아들을 나무라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반면 김종민 의원은 자기편을 감싸기만 해서 신뢰감이 떨어졌다. 앞으로는 당리당락에 따라 움직이는 국회의원이 아닌, 시청자들의 의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전문가들 위주로 섭외해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심야토론]	9	북한의 우리 공무원 피격사건이 온 국민을 놀라게 했다. 그래서 이날은 북한은 왜 사살했고 불태운 것은 무엇이었는지, 정부와 군의 대응은 적절했는지에 대해 토론했다. 그런데 양무진 교수가 해당 사건이 잘 해결되면 남북관계에 기회의 국면이 열릴 것이라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이 목숨을 잃은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느껴져 듣기 불편했다.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8	이날은 배우 한다감 씨가 남양주의 신혼집을 최초로 공개했고, 오뚜기 함영준 회장의 딸 함연지 씨도 신혼집을 공개했다. 갈수록 메뉴를 개발하는 장면보다 배우들의 집 공개가 주가 되는 것 같아 안타깝고 위화감도 들었다. 그리고 함연지 씨 분량 중 오뚜기 상표를 지나치게 노출하는 점도 보기 불편했다.

| 10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수신료 담당부서 연결불가]	2,087	본인은 장애인인데 보건복지부로부터 TV 수신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장애인 감면 혜택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수신료 담당부서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 담당부서와 연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수신료 담당부서 연결불가]	1,228	보건복지부로부터 방송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시각·청각 장애인은 TV수신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이후 수신료 감면 신청을 하고자 KBS 수신료 콜센터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 본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통화연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담당부서와 연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2TV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683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 씨가 코로나19로 지쳐가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 주기 위해 KBS와 함께 기획한 '대한민국 어게인' 공연을 부모님과 함께 시청했다. '역시 나훈아'라는 감탄사가 나올 만큼 거물급 스타의 저력을 확인시켜주는 공연이었다. 한가위를 맞아 나훈아 씨의 공연 실황 중계를 해주어 감사하고,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2TV [비밀의 남자]	24	지난 회 방송에서 한유정(엄현경 분)은 우연히 소매치기를 당한 윤수희(이일화 분)를 도와주며 인연을 맺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한유정과 이태풍(강은탁 분)의 사이가 가까워질 것을 기대하고 방송을 기다렸는데, 이날 결방이 되어 속상했다. 매일 저녁 해당 드라마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비밀의 남자]	23	이경혜(양미경 분)가 뺑소니 누명을 쓰게 됐고, 이태풍(강은탁 분)과 한유정(엄현경 분)이 그 누명을 벗기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어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가 큰데, 이날 추석 특선 영화 편성으로 결방이 되어 속상했다. 매일 저녁 해당 드라마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TV [역사저널 그날]	18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기 집권의 초석이었던 유신에 대해 알아보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과오가 많지만, 경제 발전을 이뤄낸 업적도 크다. 그런데 해당 방송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평가 절하하는 것 같아 보기 불편했다. 공과를 객관적으로 조명해주기 바란다.
2TV [비밀의 남자]	11	이태풍(강은탁 분)이 엄마의 누명을 벗겨줄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게 되지만, 주화연(김희정 분)의 계략으로 재활원에 갇히는 내용이 방영됐다. 일곱 살 지능을 가진 이태풍은 사실상 장애인인데, 주변사람들이 신분상승 등 다양한 이유로 장애인을 이용하는 내용이 보기 불편하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하는 시간대의 드라마치고 너무 잔혹하게 전개되고 있다. 추후에는 조금 더 건전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1TV [저널리즘 토크쇼 J]	9	전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던 북한에 의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언론의 보도를 다뤘다. 채널A를 비롯해 일부 종편의 보도를 비판했는데, KBS에서 다른 언론사를 비판하는 점이 보기 안 좋았다. 그보다는 해당 사건 발생 후 우리 정부의 대응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다뤄 주었더라면 더 유익했을 것 같다.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8	개리·하오 부자가 최근 이사한 집을 공개했다. 조정치·정인 부부가 딸 은이와 함께 첫 번째 손님으로 방문했고, 부자가 되라는 뜻으로 쌀을 선물했다. 이후 하오와 은이가 쌀자루를 엮은 뒤 쌀을 던지며 노는 장면이 방영됐다. 코로나19 여파로 결식아동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데, 아이들이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2TV [광고 송출 사고]	8	이날 「1주년 특집 신상 출시 편스토랑」을 시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 시작 전 광고 시간에 약 5분가량 화면이 하얗게 보이며 소리만 방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처음에 본인은 텔레비전이 고장 난 줄 알았다가, 다른 채널로 돌려본 후 방송사고임을 알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송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주기 바란다.

| 11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비밀의 남자]	45	이 드라마를 시청하기 위해 직장에서 퇴근하자마자 곧장 집으로 귀가했다. 그런데 이날 야구경기 중계로 인해 결방이 됐다. 최근 해당 드라마가 수시로 결방이 되며 이야기의 흐름이 끊기는 등, 고정 시청자 입장에서 기분은 좋지 않다. 한국시리즈도 막을 내렸으니,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가요무대]	36	흘러간 노래와 트로트를 따라 부르며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에게는 매주 월요일 밤의 즐거움이다. 그런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너무 속상했다. 중장년층 및 노년층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다. 앞으로는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비밀의 남자]	35	매일 저녁 일일드라마를 시청하는 것이 커다란 낙인 시청자이다. 그런데 지난 1일 '2020 KBO 포스트시즌'이 시작된 이후, 해당 드라마가 수시로 결방이 되고 있어 기분이 좋지 않다. 드라마의 특성상 다음 이야기를 기다리게 되므로, 앞으로는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TV [아침마당]	27	요일별로 특화된 주제를 통해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어 매일 아침 즐겁게 시청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수요일 코너인 '도전! 꿈의 무대'를 좋아하는데, 가수가 꿈이었던 사람들 혹은 무대가 없어 실망했던 사람들의 사연과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재미있다. 지난주 이도진 출연자가 우승한 이후 새로운 출연자들 기대하고 있는데 이날은 '뉴스특보' 편성으로 인해 결방이 되어 아쉬웠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되도록 결방 없이 편성해 주기 바란다.
2TV [비밀의 남자]	26	지난 회 방송에서 이태풍(강은탁 분)의 계획대로 차서준(이시강 분)과 한유정(엄현경 분)이 회사에서 재회하는 것으로 막을 내렸다. 다음 내용이 너무 궁금해서 주말 내내 해당 드라마를 기다렸는데, 이날 야구 중계로 인해 결방이 되어 속상했다. 매일 저녁 해당 드라마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용
2TV [비밀의 남자]	26	지난 회 방송에서 한유정(엄현경 분)이 유민혁이 자신이 찾던 이태풍(강은탁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행복해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워낙 고난을 겪어온 두 사람이라서 향후 관계가 어떻게 진행될지 무척 궁금한데, 이날 결방이 되어 답답했다. 매일 저녁 해당 드라마를 기다리는 시청자들을 위해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R [김경래의 최강시사]	15	이날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하루 파업에 나섰다. 그래서 해당 소식을 전하던 중, 진행자가 '돌봄전담사'가 아닌 '돌봄교사'로 호칭해서 듣기 불편했다.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개념으로 접근해야하는데, '돌봄교사'라는 호칭은 청취자들에게 자칫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또한 돌봄전담사의 입장만 다룬 점도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2TV [도도술술라라술]	13	각각 상처와 비밀을 안고 작은 시골 마을 피아노학원 '라라랜드'에 모여든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매주 재미있게 시청한다. 이날도 해당 드라마의 방송시간에 맞춰 TV 앞에 앉았는데, 야구 중계가 길어지며 편성이 지연됐다. 될 수 있으면 시청자와의 약속인 방송시간을 철저히 지켜주기 바란다.
2TV [노래가 좋아]	12	화요일마다 온가족이 「노래가 좋아」를 시청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님께서 좋아하신다. 일반인들이 펼치는 노래 대결과, 그들 각자의 사연에 공감하면서 재미있게 시청한다. 그런데 이날 결방이 되어 크게 실망했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노래가 좋아]	11	경제가 어렵고, 코로나19로 외출마저 자유롭지 않은 요즘 「노래가 좋아」를 시청하며 일반인들의 개성 넘치는 무대를 통해 위안을 얻는다. 이날 야구경기 중계로 결방이 되었는데, 많이 서운하고 무료했다. 많은 시청자들에게 희망과 응원을 전하는 해당 프로그램을 될 수 있으면 결방시키지 않길 바란다.

| 12월 |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1R [14시 뉴스]	21	지난 19일에 방송된 KBS 1라디오 오후 2시 뉴스에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가 여당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생략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기사를 원고대로 읽지 않고,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임의로 생략해 읽었다는 것이다. 공정해야 할 뉴스의 진행자가 이런 행동을 해서 실망스러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2TV [트로트 전국체전]	15	전국에 숨어 있는 신인을 발굴한 후, 베테랑 감독 및 코치가 최고의 트로트 신예로 거듭날 수 있게 돕는다는 취지로 기획되었다. 출연진은 물론, 감독진과 코치진 모두 쟁쟁하여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다만 첫 방송과 달리, 이날 방송부터는 편성 시간이 너무 늦어 시청하기에 불편하다. 더욱 많은 시청자가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도록 편성 시간을 앞당겨주기 바란다.
1TV [6시 내고향]	14	농어촌의 소식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저녁 시청한다. 덕분에 우리나라 각 지역에 대한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 됐다. 고정 시청자들을 위해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2TV [비밀의 남자]	13	매일 저녁 해당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전개에서 이태풍(강은탁 분)이 한유라(이채영 분)가 놓은 함정에 빠져 살인교사 혐의로 체포됐다. 거짓말, 사기, 폭력 등 한유라의 도를 넘는 악행이 갈수록 심해져 보기 안 좋다. 또한 사고로 일곱 살의 지능을 갖게 된 이태풍이 또 다른 사고로 천재가 되었다는 설정도 지나치다. 조금 더 공감 가능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1TV [우리말 겨루기]	12	우리말을 퀴즈로 풀어보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서 월요일마다 빠짐없이 시청한다. 특히 엄지인 아나운서의 유쾌하고 정겨운 진행이 방송을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든다. 그런데 이날은 엄 아나운서의 휴가로 다른 아나운서가 대신 진행을 맡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엄 아나운서를 기다리는 시청자가 많으니 하루빨리 밝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프로그램명	총 건수	내 용
2TV [살림하는 남자들]	9	남자 연예인들의 살림기를 담은 「살림하는 남자들」을 매주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최근 베테랑 배우 김일우 씨 등 몇 명의 살림남들이 새롭게 합류하며 프로그램이 활기차고 신선해졌다. 그러나 이날 갑자기 결방이 되어 서운한 마음이 들었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하고, 편성을 제대로 지켜주기 바란다.
2TV [트롯 전국체전]	9	'글로벌 K-트로트'의 주역이 될 새 얼굴을 찾기 위한 KBS의 대형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이날 첫 선을 보였다.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역대급 스케일을 자랑해서 잠시도 눈을 뗄 수 없었다. 물론 참가자들의 실력 또한 출중했고, 각자가 지닌 매력이 가득하여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계속해서 감동적인 무대와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R [주진우 라이브]	8	주진우 기자가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사 정보를 전달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이의 갈등과 같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다룰 때, 진행자가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진행을 하여 듣기 불편할 때가 많다. 청취자들을 배려해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태도를 취해주기 바란다.
1TV [생방송 심야토론]	8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됐다. 그래서 이날은 해당 징계를 둘러싼 논란의 쟁점과 검찰개혁을 위한 과제는 무엇인지 토론했다. 그런데 김남국 의원은 정부의 입장과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대변하느라, 시청자들의 아쉬움과 답답함을 놓치는 것 같아 안타까웠다. 무조건 옹호하기보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1TV [역사저널 그날]	7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수출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명과 암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일부 출연자들이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에 대해 너무 쉽게 발언하는 것 같아 보기 불편했다. 또한 박정희 전 대통령 정권을 너무 오랫동안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소재를 바꿔주었으면 좋겠다.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1

주요의견 선정 기준

△ 시청자의 권익에 관한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를 당했다는 의견
- 방송으로 인해 개인의 법익(명예훼손, 성명, 초상, 음성 침해, 모욕죄)에 침해를 받은 내용

△ 방송제작의 공영성에 대한 의견

- 방송내용의 공정성, 정확성, 진실성에 대한 타당한 이견 의견
- 출연자, 제작진, 공사 직원의 사회적 물의(음주운행, 폭행, 시민불편)에 대한 항의 의견
- 방송수신에 대한 다수의 합당한 불편 내용
- 방송과 제작진, 공사 직원에 대한 시청자의 합당한 호평과 칭찬

△ 사회적 의제를 제시한 내용

- 사회적 현안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영성이 높은 의견과 제안
- 타 방송, 신문 등에 방송, 보도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2

시청자상담 의견분류

	의견분류	세부의견
1	편성	편성 요청(신규), 재방송 요청, 지역편성 요청, 방송시간 변경, 프로그램 폐지반대, 변경고지관련(결방), 방송분량, 기타
2	제작요청	라디오,TV(소재추천), 캠페인, 해외드라마, 방송분량, 후속
3	드라마	극본, 소재, 제목, OST, 소품
4	출연자·진행자	발언, 태도, 진행, 의상, 섭외평가, 섭외요청, 호평, 연기
5	공정성	편파성, 객관성논란, 논거부족, 중립성
6	사실성	불명확, 내용오류, 왜곡, 자막오류
7	시청자권익	명예훼손, 초상권, 음성, 저작권, 개인정보 유출, 업체피해
8	프로그램 호평	호평
9	어린이, 청소년보호, 노약자	시청등급, 보호책임
10	표현(소재)	선정성, 폭력성, 모방위험, 상업성, 비윤리, 비하, 선곡혐오, 과장, 위생, 품위, 위법요소, 저급, (비)시의성, 적합, 안전(건강), 위화감, 업체선정, 자료화면, 자막(속도, 선명도), 차별, 자연(환경)보호, 중복, 다양성
11	간접광고	광고, 협찬
12	언어	우리말(한글, 표준어), 외래어, 외국어, 바른말(어법)
13	심의	사전, 사후심의
14	제작자 윤리와 주민피해	책임, 투명성, 도덕성, 직원품위, 주민피해
15	장애인·차별	장애인 배려(인권), 차별금지
16	외주제작	외주제작피해, 외주제작사 관련분쟁
17	재난방송	재난(재해)방송
18	일기예보	정확성(지역구분), 지역균형보도, 진행, 의상, 내용제언
19	방송품질	음향, 영상 품질, (생방송)무대, 방송세트
20	난시청	TV, 라디오, DMB
21	시청자참여	방청, 전화참여, 인터넷참여, SNS 참여(문자), 선물, 상품, 모금 ARS, 공개방청, 예심
22	홈페이지	다시보기듣기(불편), 방송정보, 게시판, 실시간, 에이블(장애인), 이용문의(로그인 등)
23	수신료	수신료안내, 환불요구
24	KBS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팟캐스트(아이폰), my k
25	시청자서비스	상담실, 견학, 공헌, 기부, 직원(불)친절
26	프로그램 구매	프로그램 구입, 프로그램 상품개발, 콘텐츠관련
27	방송경영(정책)	디지털전환, 수신료관련, 경영사업
28	선거방송	공정성, 선거중립, 여론조사
29	보도제언	보도요청, 심층보도요청, 후속보도요청, 뉴스적합도, 뉴스편성, 뉴스속보제언, 보도제언

3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 작성 유의사항

△ 검증과 확인 단계 / 정확성, 사실성, 객관성

- KBS 프로그램 홈페이지 방송정보 및 공지사항
- 방송 다시보기
- 제작진과 사실 확인 관계
- 언론보도 관련 내용 담당처를 통한 객관적 사실 확인
- 업체 주소, 연락처
- 출연자 정보 기재
- 표준어 및 바른 우리말 사용

△ 판단 단계

- 방송의 자유와 제작자의 책임
- 정확, 공정, 진실
- 국민의 보편성, 사회통합, 민주적 여론 형성
- 방송의 공익성, 공영성
- 방송강령,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 제작진 답변 단계

- 제작진의 성실한 답
- 민원처리가 완료된 내용
- 제작진이 해당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답변을 게시한 경우

시 청 자 상 담

일 일 보 고 서 [4.10]

■ 담당: 시청자서비스부 (000, 2690) [작성: (주)케이티아이에스]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0. 4. 9.(목) 06:00 ~ 2020. 4. 10.(금) 06:00
- 상담건수: 1,826건
- 주요의견: 1R「김경래의 최강시사」- 출연자 발언 제언

II. 주요의견 내용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수민의 10분 총선찌개’
방송일시 : 2020. 4. 8.(수) 1R (07:25-08:57)

- 상담의견 : **출연자 발언 제언(4명)**

김수민 정치평론가와 박창선 브랜드디자이너가 출연해서 4.15 총선 공보물에 대해 분석했다. 그런데 박창선 디자이너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코드를 삽입한 정의당 공보물을 칭찬하던 중 “시각장애인은 이걸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웃었다. 이 발언이 마치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아 굉장히 듣기 불편했다. 앞으로 출연자들은 신중하게 발언해주기 바란다.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전국노래자랑 미스터트롯 출신자 편성” 등 3건.
울산 편에 나온 미스터 트롯 출신 김희재 출연 분량 올려주세요.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IV. 일일 상담내용

1. 상담실적 : 총 1,826건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¹⁾	계
712	29	-	-	1,085	1,826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926	686	25	-	-	189	1,826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88	1,638	-	1,826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1,510	8	147	161	1,826

시청자 의견	문 의
<p>【편 성】 ○「KBS 네트워크 특선 고고씽 [창원총국]」 - 편성 제언</p> <p>【보 도】 ○「제21대 총선 후보자 경력방송」 - 방송 제언</p> <p>【시사교양】 ○「제보자들」 - 출연자 섭외 제언</p> <p>【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 출연자 발언 제언 ○「바른말 고운말」 - 방송 호평 ○「임백천의 골든 팝스」 - 방송 호평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 방송 호평</p>	<p>【방 송】 ○「6시 내고향」 - 「제주동문재래시장」연락처 문의 192건 ○「2TV 생생정보」 - 「10,000원 회 정식」연락처 문의 101건 ○「아침마당」 - 「출연자」문의 31건 ○「인간극장」 - 「식초」연락처 문의 23건 ○「다큐멘터리 3일」 - 「조청」연락처 문의 16건</p> <p>【기 술】 ○「난시청」문의 6건 ○「디지털전환」문의 2건</p> <p>【경 영】 ○「프로그램구입」문의 73건 ○「홈페이지」문의 47건 ○「전화교환」문의 14건 ○「수신료」문의 13건</p> <p>【기 타】 ○ 한전 문의사항 포함 161건</p>

1)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편 성]	
편성 제언	<p>○「KBS 네트워크 특선 고고씽 [창원총국]」(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4. 8.(수) 1TV (13:00-13:50) - 이날 방송은 트로트 가수 박상철 씨의 신곡 ‘버스 한 대’로 시작됐다. 그런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객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 앉아 함께 즐기는 모습에 위화감을 느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녹화되었다고 해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니 이러한 내용은 편성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 참고: 실시간 방송시간 12시 59분 05초경, ‘코로나19 경남지역 발생 전 녹화된 프로그램입니다’라는 안내 자막이 방송됨. [편성제작정보시스템]</p>
[보 도]	
방송 제언	<p>○「제21대 총선 후보자 경력방송」(6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4. 8.(수) 1TV (14:30-15:45) - 해당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공화당 후보자를 소개할 때 보라색을 사용했다. 우리공화당은 새마을운동 색깔인 녹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무척 의아했다. 당 고유 색깔로 수정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 참고: <부서답변> 직전선거 득표율 3% 미만이거나 의석수가 4석 미만 될 경우, 지역구 후보자 고유번호를 받은 1번부터 6번까지 정당 외에는 기술적인 부분 때문에 일괄적으로 상징색을 보라색으로 통일하고 있음. [선거방송기획단]</p>

의견	세부내용
[시사.교양]	
출연자 섭외 제언	<p>○「제보자들」'끝나지 않는 지옥, 온라인 성범죄왕국'(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4. 8.(수) 2TV (20:55-22:00) - 이날 방송에서는 온라인 성범죄를 추적하고, 이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았다. 누리꾼들은 운영자는 물론, 그곳을 이용했던 자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제작진은 그 이용자들을 쫓고 있는 디지털 장의사 박형진 씨의 인터뷰를 담았는데, 하필 이날 박형진 씨는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으로 제작진은 출연자 섭외에 신중해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 참고: <부서답변> 재방송 및 모든 다시보기 서비스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도록 하겠음. [시사교양2국_시사교양4]</p>
[라디오]	
출연자 발언 제언	<p>○「김경래의 최강시사」'김수민의 10분 총선짜개'(4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4. 8.(수) 1R (07:25-08:57) - 김수민 정치평론가와 박창선 브랜드디자이너가 출연해서 4.15 총선 공보물에 대해 분석했다. 그런데 박창선 디자이너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 코드를 삽입한 정의당 공보물을 칭찬하던 중 “시각장애인은 이걸 볼 수 없을 것 같다.”며 웃었다. 이 발언이 마치 시각장애인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 같아 굉장히 듣기 불편했다. 앞으로 출연자들은 신중하게 발언해주시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 참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기준 실시간 방송시간 1시 17분 06초경, 박창선 디자이너가 “유일하게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이스아이를 집어넣어주고 배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건 시각장애인이 이걸 볼 수 있을까요? 볼 수 없을 거 같은데?”라고 발언함. [KBS 홈페이지] - <부서답변> 생방송 중 제작진과 진행자 모두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며 문제가 있음을 인지, 더 이상 관련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였음. 앞으로 출연자 섭외에 더욱 주의하겠음. [1라디오국]

의견	세부내용
<p>방송 호평</p> <p>방송 호평</p> <p>방송 호평</p>	<p>○「바른말 고운말」(2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4. 9.(목) 1R (06:56-06:58) - 2분가량의 짧은 시간동안 속담이나 관용구, 다양한 사자성어를 배울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아침에 출근을 준비하며 해당 방송을 청취하는데, 꾸준히 청취하다보니 어휘력이 많이 향상됐다. 늘 좋은 방송으로 청취자들의 바른말 사용에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 앞으로도 열심히 청취하겠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p>○「임백천의 골든 팝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4. 9.(목) 2R (11:00-12:00) - 팝의 전성기인 7080년대의 명품 팝송들을 청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인 연령대의 청취자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데, 중장년층 청취자들이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너무 고맙다. 특히 이날은 선곡이 너무 좋아 무척 만족스러웠다. 앞으로도 좋은 곡을 많이 소개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p>○「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4. 9.(목) 3R (14:05-15:00) - 부산에 거주 중인 청취자이다.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주고, 무엇보다 진행자 이지연 씨가 청취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시니어들의 자기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기타상담]	
수신료 및 난시청	<p>⊙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상담건수: 19 건 (방송기술 관련 6p 참고)</p>

3. 시청자상담 통계(2020. 4. 9.~ 4. 10.)

(단위: 건)

○ 방송

구분	처리 형태				소계	비고
	전화	방문	서신	인터넷		
편성	9			4	13	
보도	147			2	149	
스포츠	-			-	0	
교양	1,296			5	1,301	
예능	9			-	9	
드라마	13			-	13	
라디오	23			2	25	
인터넷 방송	-			-	0	
계	1,497	0	0	13	1,510	

○ 기술

난시청	6				6	
수신기술	-				0	
주파수	-				0	
디지털전환	2				2	
DMB	-				0	
계	8	0	0	0	8	

○ 경영

수신료	13				13	
전화교환	14				14	
사업 및 행사	-				0	
견학	-				0	
주차	-				0	
프로그램구입	72			1	73	
홈페이지	46			1	47	
계	145	0	0	2	147	

○ 기타

기타	147	-	-	14	161	
계	147	0	0	14	161	

4

상담내용 분석

| 1. 편성 |

○ 1TV 「지구촌 뉴스」

-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해주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주어 매일 오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도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TV 앞에 앉았는데, 결방이 되어 속상했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1TV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신년음악회」

-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오케스트라 빈 필하모닉이 매년 1월 1일 개최하는 음악회를 보여주는 방송이다. 좋은 음악회를 감상할 수 있어서 해마다 잊지 않고 방송을 챙겨본다. 그러나 편성이 너무 늦어 다음 날 출근하는 직장인들은 시청하기가 어렵다. 추후에는 조금 이른 시간으로 편성해주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1TV 「특선영화」 '울지마 톤즈'

- 이날 KBS에서 영화 '울지마 톤즈'를 방영해주었다. 영화를 시청하던 중 14일이故 이태석 신부의 열 번째 기일이었음을 깨닫고 KBS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덕분에 아프리카 수단인 작은 마을 톤즈에서 자신을 바쳤던 이태석 신부를 기릴 수 있었다. 이태석 신부의 10주기에 의미 있는 영화를 편성해주어 감사하다. <1월 16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 '경기 의왕'

-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는 음악 경연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평소보다 늦게 시작되어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시청자와의 약속인 편성시간을 꼭 지켜주기 바란다. <2월 4일 보고서>

○ 1TV 「기생충」

-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했다. 국내외적으로 뜨거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해당 영화를 보지 못한 시청자들이 많이 있을 것 같다. 공영방송인 KBS에서 한국 영화의 새로운 역사를 쓴 '기생충'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2월 13일 보고서>

○ 1TV 「안중근 의사 특집 제작 요청」

- 2월 14일은 연인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밸런타인데이로 알려져 있지만, 안중근 의사의 '사형선고일'이기도 하다. 특히 올해는 안중근 의사가 순국한 지 110주년인 해다. 오늘 같은 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삶을 바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희생을 되새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지 않아 아쉬움이 남는다. <2월 17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 이날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0명 추가됐고, 경북에서 3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했다. 하루 사이

에 대구·경북 13명을 포함해, 확진 환자 15명이 추가로 발생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다. 그런데 재난주관방송사인 KBS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중계하는 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속히 「뉴스특보」를 편성해주기 바란다. <2월 2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과 맞물려 국민적 불안감이 견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본인은 해당 질병에 대한 정보를 얻고, 확산 방지에 동참하기 위해 온종일 KBS를 시청하고 있다. 물론 「뉴스특보」가 편성되어 있지만, 불안감을 잠재우고 충분한 정보를 얻기엔 턱없이 부족한 것 같다. 재난주관방송사인 KBS 1TV에서 온종일 특보를 편성하여 코로나19의 국내현황을 실시간으로 전달해주기 바란다. <2월 24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

- 역사가 움직인 터닝 포인트인 결정적 하루를 입체적으로 구성하는 프로그램이다. 교양과 재미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매주 화요일마다 챙겨보고 있다. 그런데 이날 결방이 되어 안타까웠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결방이 잦은데, 최대한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3월 5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가요무대 스페셜'

- 매주 「가요무대」를 손꼽아 기다리는 시청자이다. 그런데 이날은 '가요무대 스페셜'로 진행되어, 예전에 했던 방송들을 재편집해 보여주었다. 해당 방송을 좋아하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무척 서운했다. 코로나19로 불안한 마음이 가득한 날들을 보내고 있는 시청자들을 위해, 될 수 있으면 새로운 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3월 18일 보고서>

○ 1TV 「걸어서 세계속으로」

- 세계의 다양한 도시들을 여행하며 역사와 문화를 자세히 소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볼거리가 풍성한 방송이라 빠짐없이 시청하는데, 이날 결방이 되어 속상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여행을 떠나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 중이다. 방송을 통해서라도 여행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3월 30일 보고서>

○ 1TV 「KBS 네트워크 특선 고고씽 [창원총국]」

- 이날 방송은 트로트 가수 박상철 씨의 신곡 '버스 한 대'로 시작됐다. 그런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객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 앉아 함께 즐기는 모습에 위화감을 느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녹화되었다고 해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니 이러한 내용은 편성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4월 10일 보고서>

○ 1TV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연설」'국가혁명배당금당'

-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후보의 연설을 보여주었다. 허경영 후보는 18세가 되면 죽을 때까지 매월 150만원씩을 지급하고, 결혼식 1억 원에 주택마련비용 2억 원을 더해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워 보기 불편했다.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수감된 적도 있는 등 여러 기행을 선보이는 인물의 연설까지 편성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의문이 든다. <4월 13일 보고서>

○ 1TV 「TV는 사랑을 싣고」

- 추억 속의 사람을 찾아서 만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감동을 받으며 시청 중이다. 그

런데 최근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결방이 잦았다. 이날도 특선다큐멘터리 재방송으로 인해 해당 방송이 결방되어 굉장히 속상했다. 앞으로는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4월 20일 보고서>

○ **1TV 「4.19혁명 60주년 특집 4.19 세대의 증언」'4월의 함성, 역사를 바꾸다'**

- 올해로 4·19 혁명 60주년을 맞았다. KBS에서 4·19 전개 과정을 입체적으로 재구성하여, 4·19혁명이 대한민국 역사에 새긴 깊은 의미를 되짚어보는 특집을 편성해주어 감명 깊게 시청했다. 본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다시 시청할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주기 바란다. <4월 28일 보고서>

○ **1TV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

- 동네의 숨은 매력을 재발견하며 시청자들에게 따뜻한 감동을 주는 도시 기행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다. 매주 토요일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잃어버리고 살았던 동네의 아름다움에 감탄하곤 했다. 그런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너무 아쉬웠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5월 4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일반인이 소장하고 있는 고미술품을 감정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조상의 삶과 지혜를 엿볼 수 있고, 도자기, 그림, 고서, 글씨 등 다양한 유물을 감상하는 재미가 쏠쏠하다. 그런데 이날은 결방이 되어 속상했다. 될 수 있으면 편성을 잘 지켜주기 바란다. <5월 11일 보고서>

○ **1TV 「제25회 KBS 119상 시상식」**

- 이날 KBS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119구조대원들을 위한 시상식을 개최했다. 방송을 지켜보는 동안 각종 재난현장에서 투철한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대원들을 향한 존경심이 샘솟았다. 시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시상식을 개최해주어 감사하다. <5월 29일 보고서>

○ **1TV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평화음악회 길을 걷다」**

- '6·15 남북공동선언'이 20주년을 맞았다. 그래서 KBS에서 남과 북의 평화의 시대를 기대하며 평화음악회를 마련했다. 그런데 현재 북한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뿐 아니라 평양 옥류관 주방장까지도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막말을 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평화음악회를 방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6월 16일 보고서>

○ **1TV 「양코르 20주년 인간극장」**

- 지난 5월「인간극장」이 20주년을 맞이해 '그리운 그 사람' 특집을 진행했다. '그리운 그 사람'으로 선정된 출연자는 2016년에 해당 방송에 출연했던 이용오 씨로, 4년 만에 다시 출연해서 근황을 전했다. 그런데 이날, 지난 5월 방영분의 재방송이 편성되어 지루했다. 본방송 시간에 '양코르'라는 제목을 달고 재방송을 편성한 점이 시청자 입장에서 성의 없이 느껴져 안타까웠다. <7월 2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올해 장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숨지거나 실종됐다. 8일에는 제주도를 뺀 전국 16개 시도에 처음으로 산사태 위기경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심각' 단계가 발령됐다. 그러나 그에 비해 뉴스특보 편성이 적은 것 같아 우려스럽다. 1TV는 온종일 특보를 편성하여 실시간으로 피해 상황을 전달하는 한편, 국민들이 대비 태세를 잘 갖추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 KBS에서 청와대 녹지원에서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을 중계해주었다. 방탄소년단(BTS)이 청년 대표로 참석해 청년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부탁하는 연설을 해서 의미 있게 시청했다. 또한 젊은 거장 임동혁 피아니스트의 축하 공연을 볼 수 있어 즐거웠다. 뜻깊은 행사를 생중계해주어 감사하다. <9월 21일 보고서>

○ **1TV 「2020 제2차 정당 정책토론회」**

- 이번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민생당 등 8개 정당이 참여했다. 토론의 주제는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방향과, 미 대선 이후 한반도 외교 정책 방향이었다. 국민들이 정치·외교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주요 현안을 알 수 있도록 KBS 1TV에서 해당 토론회를 생중계해주어 감사하다. <11월 13일 보고서>

○ **1TV 「2020 MAMF 이주민 가요제」**

- 지난 10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다양성 축제인 '이주민과 함께하는 문화다양성 축제 맘프(MAMF)'가 열렸다. 그 행사 중 하나인 '이주민 가요제'를 KBS에서 방송해주어 정말 재미있게 시청했다. 출연자들의 실력이 출중했고, 초대가수들의 축하공연도 화려했다. 다시 한 번 시청할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주시기 바란다. <11월 18일 보고서>

○ **2TV 「지구촌 뉴스」**

- 지구촌 곳곳에서 벌어지는 뉴스를 신속하게 전달해주고, 주요 이슈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분석해주어 매일 오전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도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기 위해 TV 앞에 앉았는데, 결방이 되어 속상했다. 될 수 있으면 결방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다복한 8남매의 집'**

-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경자년 흰 쥐의 해를 맞아 8남매의 집을 소개했다. 요즘 매일 같이 뉴스 지면에 저출산 문제가 거론되는데, 8명의 자녀를 둔 행복한 가정을 소개해주어 몹시 보기 좋았다. 해당 방송에서 추후에 8남매 집의 후속 이야기도 전해주시길 바란다. <1월 8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연예인 아빠들의 육아 도전을 담은 프로그램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한다. 그런데 지난 해 12월부터 편성 시간이 변경되었고, 그때부터 연세 많으신 부모님과 자녀들이 해당 방송 시청이 어려워졌다. 온 가족이 함께 시청할 수 있도록 원래 시간으로 편성을 옮겨주시기 바란다. <2월 11일 보고서>

○ **2TV 「음치는 없다 엑시트」**

- 연예계 음치 스타들과 국내 최고 실력파 가수들이 1:1 맞춤 트레이닝을 통해 음치 탈출에 도전하는 내용으로, 올해 설 연휴에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방영됐다. 도전자들이 트레이닝을 통해 약점을 극복해나가는 과정이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타 프로그램들과 차별화된 콘셉트도 돋보이므로, 해당 방송을 정규 편성해주시기 바란다. <2월 20일 보고서>

○ **2TV 「날아라 숲들이 뉴 비기닝」**

- 다양한 축구 실력을 가진 어린이들이, 축구를 통해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성장 스토리를 그린

프로그램이다. 본인의 자녀가 매주 화요일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열심히 시청한다. 그런데 늦은 시간대 편성으로 다음날 등교에 지장이 있다. 어린이들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니 편성 시간을 조금 앞당겨주면 좋을 것 같다. <3월 20일 보고서>

○ 2TV 「악인전」

- 새 음악 예능프로그램 「악(樂)인전」의 첫 회가 방송됐다. 화려한 출연진에 기대를 품고 시청 중이었는데, 1부 방송 후 2부가 이어지지 않아 너무 당황스러웠다. 이후 하단에 시청자들의 양해를 부탁하는 자막이 나왔지만, 그마저도 명쾌하지 않아 의아했다. 편성은 시청자와의 약속이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4월 27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온가족이 함께 「개그 콘서트」를 시청해왔다. 그런데 최근 해당 방송의 폐지설이 불거지고 있어 오랜 시청자 입장에서 당황스럽다. 지상파 3사 코미디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개그 콘서트」가 폐지된다면 굉장히 아쉬울 것 같다. 가뜰이나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들고 어려운데,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는 해당 프로그램을 폐지하지 않길 바란다. <5월 11일 보고서>

○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김호중 편'

- 최근 「미스터트롯」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굉장한 인기를 얻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출연했다. 그의 라이브 무대를 감상하는 동시에, 한 편의 영화 같은 인생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 무척 인상적인 방송이었다. 해당 방송을 다시 한 번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주시기 바란다. <5월 25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 「한 번 다녀왔습니다」

- 바람 잘 날 없는 송영달(천호진 분)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주말드라마로 무척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다만 매번 편성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 이날도 원래 시작 시간보다 10분이나 늦게 드라마가 시작됐다. 앞으로는 시청자와의 약속인 편성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란다. <6월 9일 보고서>

○ 2TV 「2020 프로야구-NC:KIA」

- 이날 KBS에서 2020 프로야구 NC 대 기아의 경기를 생중계했다. 그로인해 기존에 편성된 교양 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이 결방되어 너무 아쉬웠다. 스포츠 전문 케이블 채널을 비롯해 아프리카TV 등 프로야구를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이 많다. 굳이 기존 프로그램을 결방시키며 프로야구를 생중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6월 18일 보고서>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 연예인들이 옥탑방에 갇혀 열 문제를 풀어야만 퇴근할 수 있는 지식토크쇼이다. 재미를 얻기 위해 시청했는데, 점점 상식이 늘어나는 기쁨도 맛보고 있다. 그런데 이날부터 밤 시간대로 편성이 바뀌어서 시청하기 불편하다. 다음 날 출근하는 직장인들을 위해 편성 시간을 조금 앞당겨주시기 바란다. <7월 2일 보고서>

○ 2TV 「특선다큐 일곱 개의 대륙, 하나의 지구」

- BBC 제작진이 일곱 대륙을 돌며 각 대륙의 자연과 동물들의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이다. 6월 22일부터 KBS에서 월요일과 화요일에 한 편씩 소개해주어 감명 깊게 시청 중이다. 현재 4부까지 방영되었는데, 5부-6부-7부가 방영되지 않아 의아하다. 남은 3편의 다큐멘터리를 속해 편성해주시기 바란다. <7월 9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다양한 장르의 대중가요 및 최신 음악 정보를 전달해주는 가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응원하는 가수의 무대를 보기 위해 매주 금요일을 손꼽아 기다린다. 그런데 이날은 해당 프로그램이 결방되어 너무 속상했다. 차후에는 결방 없이 방송해 주기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도도솔솔라라솔」

- 피아니스트 구라라(고아라 분)와 아르바이트생 선우준(이재욱 분)의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로, 당초 8월 26일 첫 방송을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배우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서 촬영을 전면 중단했다. 그런데 얼마 전 촬영이 재개되었다는 기사를 접했으니, 아무쪼록 첫 방송 날짜가 빨리 정해지길 바란다. <9월 10일 보고서>

○ 2TV 「특집 다시 보는<동백꽃 필 무렵>」

- 외부활동이 어려운 요즘, 퇴근 후 재미있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 새 수목드라마의 제작이 중단되며 「동백꽃 필 무렵」의 재방송이 방영되고 있다. 평일 저녁 황금 시간대에 재방송이 편성된 점이 아쉽고, 새 수목드라마가 편성되기 전까지 재방송이 아닌 다른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9월 11일 보고서>

○ 2TV 「2020 한가위 대기획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 트로트의 황제 나훈아 씨가 코로나19로 지쳐가는 국민들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KBS와 함께 기획한 '대한민국 어게인' 공연을 부모님과 함께 시청했다. '역시 나훈아'라는 감탄사가 나올 만큼 거물급 스타의 저력을 확인시켜주는 공연이었다. 한가위를 맞아 나훈아 씨의 공연 실황 중계를 해주어 감사하고, 한 번 더 볼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0월 5일 보고서>

○ 2TV 「2020 KBS 가요대축제」

- 지난 18일 '가요대축제'가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비대면으로 치러졌다. 비록 관객은 없었지만, 방탄소년단을 비롯해 올해의 케이팝 인기를 주도한 많은 아이돌 그룹들이 출연해서 화려한 무대를 선사해주었다. 해당 방송을 다시 한 번 시청할 수 있도록 재방송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12월 22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정준희 저널리즘 전문가가 진행하고, 각계각층의 패널들이 출연해서 정치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부분을 생각하게 해주는 점이 마음에 들어 매일 저녁 청취한다. 다만 저녁에 했던 방송을 새벽에 또 재방송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 새벽 시간대에 어울리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편성해 주기 바란다. <6월 3일 보고서>

○ 한민족1 「세월따라 노래따라」

- 추억의 노래와 정겨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중장년층에게 굉장히 가치 있는 방송이다. 그러나 너무 이른 시간 편성으로 마음 편히 청취할 수 없어 속상하다. 그뿐 아니라 재방송까지도 새벽에 편성되어 있다. 본방송이나 재방송 중 하나라도 오전 혹은 낮 시간대에 편성해 주기 바란다. <5월 26일 보고서>

| 2. 제작 요청 |

○ 1TV 「추적 60분」

- 지난 36년간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이슈를 추적해온 「추적 60분」이 종영 되어 무척 안타까운 시청자이다. 대한민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들춰내고, 각종 비리와 맞서 싸웠던 좋은 방송이 사라져서 우려스럽다. 2020년을 맞아 해당 방송의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1TV 「KBS 바둑왕전」

- 오랜 시간동안 바둑 팬들을 위한 문화의 장이 되어주었던「KBS 바둑왕전」이 지난 달 종영됐다. 평소 좋아하는 기사들의 모습과 수준 높은 대국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송이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다. 바둑 팬들을 위해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월 20일 보고서>

○ 1TV 「콘서트 7080」

- 중장년층을 위한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이다. 이 방송을 통해 추억을 회상하고 향수에 젖을 수 있었다. 무려 14년가량 수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던 해당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안타깝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13일 보고서>

○ 1TV 「명견만리 시즌3」

- 지성 교양인이 매주 출연해 우리 사회가 당면한 미래 이슈를 직접 취재하고, 강연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청중과 직접 소통하고 공감을 이룬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익했다. 또한 일반적인 강연들과는 조금 다르게 사회, 미래적인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룬다는 점이 특별했다. 그런데 해당 방송이 종영되어 아쉽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3월 19일 보고서>

○ 1TV 「소비자리포트」

- 소비자의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믿을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었다. 시청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점에서 무척 유익했다. 좋은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아쉽고, 후속 방송을 제작해 준다면 도움이 될 것 같다. <6월 4일 보고서>

○ 1TV 「TV는 사랑을 싣고」

- 추억 속의 사람을 찾아서 만나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KBS의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으로, 매 회 감명 깊게 시청해왔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시즌이 종료되어 너무 아쉽고 속상하다. 하루빨리 새로운 시즌으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6월 30일 보고서>

○ 1TV 「시청자칼럼 우리사는세상」

- 억울하고 딱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도와주고, 우리 사회 곳곳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데 크게 기여한 프로그램이다. 특히 시청자들이 직접 출연해서 잘못된 관행을 고발하고, 이후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추적해서 알려주는 점이 좋았다. 그러나 현재는 종영된 상태라 아쉽다. 빠른 시일 내에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면 좋겠다. <7월 8일 보고서>

○ 1TV 「엄마의 탄생」

- 초 저출산국이라는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 제작된 임신, 출산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다. 실제 부부의 임

신과 태교, 출산 그리고 육아를 관찰하고 재조명하여 가족의 의미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해주어 감동적이었다.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비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준다면 임신을 고려하는 많은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9월 10일 보고서>

○ 1TV 「KBS 장기왕전」

- 치열한 예선전을 거친 48명의 프로 기사들이 토너먼트로 대국을 펼치는 장기 대결 프로그램이다. 방영 당시 정말 흥미진진하게 시청했는데 아쉽게도 종영되었다. 그 후 설날과 추석에 명절특집으로 편성되긴 했으나 일회성으로 그쳐 아쉬움만 남는다. 추후 해당 프로그램을 부활시켜 주기 바란다. <9월 24일 보고서>

○ 1TV 「바다 건너 사랑」

- 스타들이 바다 건너 어려움에 처한 이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시청자들이 후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가난으로 빚을 잃어 가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에 충격 받았다. 빈곤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0월 27일 보고서>

○ 1TV 「클래식 오디세이」

- 국내외 클래식 스타들의 음악과 삶의 이야기, 그리고 재미있는 에피소드까지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했다. 클래식의 매력을 대중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편안한 프로그램이었는데, 해당 방송이 종영되어 너무 안타깝다. 최근 클래식 방송을 접하기 어려운데, 클래식을 사랑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2월 10일 보고서>

○ 1TV 「취재파일 K」

- 사회 현안과 쟁점을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 진단하는 프로그램으로, 방영 당시 해당 프로그램에 제보도 할 만큼 애정을 가졌던 시청자이다. KBS 기자들의 취재 역량과 노하우가 결집된 시사 프로그램이었는데 종영이 되어 안타깝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 준다면 본인 같은 시청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12월 10일 보고서>

○ 1TV 「가족오락관」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 이후로 온 가족이 함께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 예전에는 주말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가족오락관」을 시청했는데, 최근에는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는 오락 프로그램을 찾아볼 수 없다. 해당 프로그램처럼 시청자들이 부담 없이 웃고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오락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2월 11일 보고서>

○ 1TV 「사랑의 리퀘스트」

-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 난치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2014년을 끝으로 해당 방송이 종영되어 무척 아쉽다. 어려운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작은 정성이나마 보탬 수 있도록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2월 29일 보고서>

○ 2TV 「1 대 100」

- 1인과 100인의 대결로, 최후의 생존자 1인을 가릴 때까지 대결하는 퀴즈쇼 프로그램이다. 1인은 상금이 쌓여도 도전을 멈출 수 없으며, 1인과 100인 중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문제를 풀어야 한다. 이러한

형식이 손에 땀을 쥐게 했고, 상식을 쌓을 수 있어 유익했는데 종영이 되어 아쉽다. 후속 방송을 제작 해주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2TV 「연예가 중계」

-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 수 있어 매주 금요일마다 빠짐없이 시청했다. 그런데 작년 11월경, 해당 방송이 종료되어 당황스럽고 안타까웠다. 2020년을 맞아 시청자들에게 연예계 소식을 전달해줄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월 13일 보고서>

○ 2TV 「체험! 삶의 현장」

- 각계각층의 명사들과 스타들이 땀 흘려 일한 후 노동의 대가를 받고, 삶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다. 치열한 노동의 현장에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종영이 되어 아쉽다.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해 노동의 신성한 가치를 전해주기 바란다. <2월 18일 보고서>

○ 2TV 「안녕하세요」

- 남녀노소 다양한 출연자들의 독특한 고민을 듣는 게 재미있어서 매회 즐겁게 시청했다. 사연 하나하나에 진심 어린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진행자들의 모습도 보기 좋았다. 하루빨리 시즌2를 제작하여, 대한민국 남녀노소의 고민들을 해결해주기 바란다. <3월 16일 보고서>

○ 2TV 「위기탈출 넘버원」

- 위기 상황뿐만 아니라 생활 속 응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주어 빠짐없이 시청했다. 살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하게 마련인데, 각종 사고에 대한 대처법과 예방법 등을 자세히 알려주어 굉장히 도움을 받았다. 여러모로 유익한 프로그램이 종영되어 아쉽다.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4월 3일 보고서>

○ 2TV 「혼자서도 잘해요」

- 미취학 아동들에게 무슨 일이든 스스로 할 수 있는 자립심을 길러주기 위해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최근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미세먼지와 전염병 등으로 밖에서 놀 수 없는 환경인데, 해당 프로그램의 후속 방송을 편성해서 아동들에게 올바른 생활 습관과 기초예절 등을 재미있게 가르쳐주기 바란다. <5월 13일 보고서>

○ 2TV 「2009 전설의 고향」

- 곧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전설의 고향」은 귀신이나 괴물이 나오는 장면이 많아서 더위를 잊는데 제격이다. 특히 마무리에는 권선징악의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있어 유익한데, 2009년 종영이 된 후 후속 방송이 제작되지 않아 너무 아쉽다. 시청자들이 이번 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후속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5월 28일 보고서>

○ 2TV 「VJ특공대」

- 시청자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와 시의성 있는 소식을 전달해주어 무척이나 좋아했던 프로그램이다. 특히 전국의 다양한 맛집 정보를 소개해주는 코너를 즐겨 시청했다. 그런데 해당 프로그램이 종영 되어 아쉽다. 「VJ특공대」를 사랑하는 시청자들이 많으니, 추후에 다시 제작해주면 좋을 것 같다. <6월 12일 보고서>

○ 2TV 「글로벌24」

- 저녁 국제 심층 뉴스쇼 프로그램이다. 세계의 주요 뉴스와 온·오프라인을 망라한 국제 정보들을 신속하게 전달해주어 매일 저녁 유익하게 시청했는데, 이날 방송을 끝으로 종영이 되어 무척 아쉽다. 국제뉴스를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거의 없는데 종영이 된 이유가 궁금하다. 빠른 시일 내에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7월 3일 보고서>

○ 2TV 「무한리필 샐러드」

- 다양한 문화와 정보를 시청자들에게 무한제공하는 토크쇼로, 매일 오전 재미있게 시청했다. 총 10개의 다채로운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었다. 보는 재미가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종영이 되어 서운하다. 빠른 시일 내에 해당 콘셉트의 토크쇼가 다시 제작되면 좋을 것 같다. <7월 15일 보고서>

○ 2TV 「날아라 숫돌이-뉴 비기닝」

- 13일 방송을 끝으로 FC숫돌이 7기의 대장정이 마무리됐다. 그동안 다양한 실력을 가진 어린이들이 축구를 통해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느꼈다.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종영을 해서 서운하고, 하루빨리 FC숫돌이 8기들의 경기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7월 17일 보고서>

○ 2TV 「부부 클리닉 사랑과 전쟁 2」

- 실제 부부들의 사연을 재구성해서 드라마로 보여주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부부간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즐겨 시청했는데 폐지되어 아쉽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갈등을 겪는 부부들이 많다. 시즌3을 제작해준다면 많은 부부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9월 1일 보고서>

○ 2TV 「제보자들」

- 의문의 제보를 단서로 미스터리로 숨겨진 진실과, 불가사의한 사건의 이면 등을 다룬 프로그램이다. 매회 흥미진진하게 시청해왔는데, 지난 2일 종영이 되어 무척 아쉽다. 「추적 60분」을 비롯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없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가까운 시일 안에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9월 8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지난 6월, 21년간 시청자들에게 웃음과 눈물을 선사했던 「개그 콘서트」가 막을 내렸다. 매주 일요일마다 온가족이 해당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으로 한 주를 마무리했는데 결국 폐지가 되어 속상하고 안타깝다. 지상파 3사 코미디 프로그램이 모두 사라졌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방송이 다시 제작되길 바란다. <9월 14일 보고서>

○ 2TV 「악인전」

- 각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지만, 한 많은 음악 늑둥이들이 레전드 음악인을 만나 새 프로젝트를 실현해가는 과정을 담은 프로그램이다. 음악 늑둥이들의 도전기도 재미있었지만, 트로트 가수부터 성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음악인들의 콜라보 무대와 음악적인 교감을 보는 재미가 상당했다. 해당 방송의 종영을 아쉬워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시즌2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9월 22일 보고서>

○ 2TV 「학교 2017」

- 성장 드라마「학교」의 일곱 번째 시즌으로, 18세 고등학생들이 겪는 솔직하고 다양한 감성을 담아내어 굉장히 재미있게 시청했다. 생활기록부, 수시전형 등 입시 문제를 현실감 넘치게 다뤘기 때문에 본인의 학창시절을 떠올리며 추억에 젖기도 했다. 후속으로 「학교 2020」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10월 16일 보고서>

○ 2TV 「TV소설」

- 1987년부터 2018년까지 KBS 2TV에서 방송됐던 아침드라마인데,「파도야 파도야」를 마지막으로 폐지됐다. 제목처럼 마치 한 편의 소설을 읽는 듯한 기분이 드는 드라마였고, 자극적인 전개나 톱스타 없이 가슴 아픈 근대사 속에서 살아가는 다양한 인생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향수를 느낄 수 있었다. 주부들에게 인기 많았던 「TV소설」이 폐지되어 아쉽고, 조만간 후속 방송이 제작되길 바란다. <10월 22일 보고서>

○ 2TV 「청춘불패 시즌2」

- 걸 그룹 멤버 8명이 대부도에서 펼치는 리얼 버라이어티쇼 프로그램으로, 방영 당시 재미있게 시청했다. 매주 주말에 농장을 가꾼다는 설정이었다. 최근 걸 그룹들의 세대교체도 많이 이뤄졌는데, 새롭고 신선한 멤버들을 섭외해서 '청춘불패 시즌3'을 제작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 <11월 13일 보고서>

○ 1R 「싱싱 농수산」

- 농업에 종사하는 청취자이다. 평소 해당 방송을 통해 농수산 뉴스와 첨단 기술 등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많이 제공받아왔다. 현재 비슷한 취지의 다른 프로그램이 없는데, 해당 방송이 종영되어 안타깝다. 빠른 시일 내에 후속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월 8일 보고서>

| 3. 드라마 |

○ 1TV 일일연속극「꽃길만 걸어요」

- 주인공 강여원(최윤소 분)을 응원하며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최근 황수지(정유민 분)가 강여원·봉천동(설정환 분)의 마음을 확신한 후 강여원의 뺨을 때리는 등 악행을 저지르는 장면이 자주 그려지고 있다. 갑질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 강자가 약자를 괴롭히는 장면은 될 수 있으면 자제해주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이날 봉선화(이유진 분)가 오빠 봉천동(설정환 분)과 강여원(최윤소 분)이 사귀는 것을 반대하는 반전이 그려져 흥미롭게 시청했다. 사실 봉천동은 강여원의 사별한 남편 남동우(임지규 분)의 심장을 기증 받았기에, 이 사실이 언제 알려지는 것인지도 무척 궁금하다. 갈수록 흥미진진한 전개를 보여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다. <1월 15일 보고서>
- 강규철(김규철 분)이 딸 강여원(최윤소 분)에게 유서를 남긴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장면이 방영됐다. 앞서 강규철은 꽃뱀 윤정숙(김미라 분)에게 사기를 당한 후 전 재산을 잃었는데,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놓였더라도 자살을 시도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어려운 이웃들이 많으니 희망을 줄 수 있는 내용으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5일 보고서>

- 하나음료 황병래(선우재덕 분) 사장이 사람을 시켜 하나음료의 비리를 추적하는 강여원(최윤소 분)을 해치려는 내용이 방영됐다. 그것도 모자라 황병래는 사위 김지훈(심지호 분)에게 강여원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내용이 너무 잔인하고 충격적이어서 시청하던 도중 불편함을 느꼈다. 속히 강여원이 진실을 찾고, 극의 제목처럼 꽃길만 걷는 전개를 보여주길 바란다. <4월 2일 보고서>
- 봉천동(설정환 분)이 왕꾼님(양희경 분)의 아들을 자처하며, 강여원(최윤소 분)과 새로운 가족이 되어 해피엔딩으로 극이 마무리 됐다. 지난 7개월간 해당 드라마를 시청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됐다. 여운이 길게 남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제작해준 제작진과 배우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4월 20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기막힌 유산」

- 서른셋의 무일푼 처녀 가장이 팔순의 백억 자산가와 위장결혼을 작당해 막장 아들 넷과 가족애를 찾아가는 내용이다. 옛날에 활동했던 배우들이 많이 출연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시청하고 있다. 특히 부영배역을 맡은 박인환 씨가 연기력도 출중하고 재미있는데, 극 중간에 돌아가시는 설정이라 매우 안타깝다. 박인환 씨가 오래 출연했으면 좋겠고, 앞으로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다. <4월 23일 보고서>
- 부영배(박인환 분)가 자신이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을 자각했다. 이어 자식들이 재산 싸움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슬퍼했는데, 저승사자로부터 반려 당해 환생하게 됐다. 박인환 씨가 극에서 하차할까봐 걱정했는데 다시 살아나 다행스럽다. 앞으로도 출중한 연기력으로 부영배 역할을 잘 소화해서 재미있는 작품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4월 29일 보고서>
- 부설악(신정윤 분)이 마음에 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공계옥(강세정 분)이 심란함을 감추지 못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부설악이 마음에 둔 사람은 다른 아님 공계옥인데,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각자 질투하는 모습이 흥미진진했다. 두 사람이 하루빨리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길 바라고, 계속해서 재미있는 전개를 보여주길 바란다. <6월 25일 보고서>
- 유쾌하면서도 따뜻한 가족극으로, 온가족이 매일 저녁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최근 주방장 차정건(조순창 분)이 부루나면옥 주인 부영배(박인환 분)의 재산을 노리고 가게 육수실에 감금해 충격을 안겼다. 이어 차정건은 전기충격기를 이용해 육수실 밖에서 문을 잠겼는데, 행여나 모방범죄가 일어날까 우려된다.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장면은 될 수 있으면 방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9월 21일 보고서>
- 얼마 전까지 차정건(조순창 분)은 부영배(박인환 분)의 재산을 노리고 독버섯을 먹여왔다. 결국 그 사실을 알게 된 부영배는 차정건과 몸싸움을 벌이던 중 쓰러져 사경을 헤매게 됐다. 그동안 온가족이 좋은 마음으로 시청해왔던 드라마가 갈수록 폭력적이고 자극적으로 전개되어 당황스럽다. 코로나19로 민심이 흉흉한데 드라마라도 밝고 건전한 내용으로 제작해주길 바란다. <9월 25일 보고서>

○ 1TV 일일연속극「누가 뭐래도」

- 부모의 이혼과 재혼을 겪은 자녀들이 세상의 편견과 맞서며 성장해가는 이야기를 담은 일일연속극이다. 이날 첫 회가 방송되었는데 주요인물인 김보라(나혜미 분)와 신아리(정민아 분), 나준수(정현 분)와 강대로(최웅 분)의 얽히고설킨 관계가 암시되어 흥미진진했다. 캐릭터들이 각자 개성을 지니고 있어 앞으로의 전개가 기대된다.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10월 14일 보고서>

- 신아리(정민아 분)가 친엄마의 딸인 정벼리(김하연 분)의 존재를 온 가족에게 숨긴 채 데리고 있던 중, 새엄마인 이해심(도지원 분)에게 들키고 말았다. 얽히고설킨 인물들의 정체가 하나씩 드러나며 극이 점점 흥미진진하다. 부모의 이혼과 재혼으로 경계가 넓어진 확대가족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려낸 점도 보기 좋다. 계속해서 웃음과 감동이 있는 전개를 보여주길 바란다. <10월 23일 보고서>
- 이날 방송 말미에 신아리(정민아 분)가 양서리 이장으로부터 한억심(박철민 분)의 가족이 모두 사고로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의심을 품는 장면이 그려졌다. 향후 한억심이 여장남자이며, 정벼리(김하연 분)의 친아빠라는 사실이 어떤 식으로 밝혀질지 궁금하다. 매일 저녁 열심히 시청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짜임새 있는 전개와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을 보여주길 바란다. <11월 9일 보고서>
- 최근 신아리(정민아 분)가 임신 테스트기를 이용해 나준수(정헌 분)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평소 두 사람이 앙숙이었기에 어떻게 전개될지 무척 궁금했는데, 이날 마침내 신아리가 나준수에게 초음파 사진을 공개하며 임신 사실을 알려 흥미진진했다. 더욱이 신아리의 의자매 김보라(나혜미 분)가 나준수와 '쌈'을 타는 관계이기 때문에 향후 전개가 무척 궁금하다. 계속해서 흥미로운 전개를 보여주길 바란다. <12월 17일 보고서>
- 최근 이해심(도지원 분)이 혼전임신을 한 신아리(정민아 분)에게 계속해서 중절수술을 강요하고 있다. 이해심은 "가시밭길이 뻥한데,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려 한다."며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 신아리를 말리는데, 열심히 살아가는 미혼모들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대사이다. 또한 남자 쪽 엄마인 노금숙(문희경 분)도 신아리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고 협박하는데, 등장인물들이 낙태를 쉽게 생각하고 강요하는 내용이 보기 불편하다. <12월 29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포레스트」

- 심장 빠곤 다 가진 남자 강산혁(박해진 분)과 심장 빠곤 다 잃은 여자 정영재(조보아 분)가 신비로운 숲에서 만나 숲의 비밀을 파헤쳐가는 내용이다. 이날은 강산혁이 드디어 미령숲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찾아내기 시작해 흥미진진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강산혁과 정영재의 로맨스를 응원하며, 앞으로도 재미있게 시청하도록 하겠다. <2월 14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사랑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 김청아(설인아 분)가 홍화영(박해미 분)의 계약으로 파면 위기에 처했지만, 문준익(정원중 분)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그려졌다. 이후 홍화영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김청아를 매장시키겠다고 다짐하는데, 안하무인 재벌 캐릭터가 보기 안 좋았다. 최근 재벌가 갑질 파문이 많으므로, 이런 극본은 자제해 주기 바란다. <2월 18일 보고서>
-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가는 '소확행' 드라마로 주말마다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이날은 문해량(조우리 분)이 마침내 강시월(이태선 분)이 본인의 친오빠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무척 흥미진진했다. 하루빨리 홍유라(나영희 분)-홍화영(박해미 분) 자매가 악행에 대한 벌을 받고, 김청아(설인아 분)를 비롯한 모든 주인공들이 행복한 결말을 맞았으면 좋겠다. <3월 9일 보고서>
- 주말마다 해당 드라마를 시청한다. 그런데 매주 홍화영(박해미 분)의 악행과 폭언 장면이 보기 불편했다. 이날은 홍화영이 운전기사에게 "할 줄 아는 게 운전밖에 없는 게" 등 막말을 쏟았는데, 본인도 운전

기사이기 때문에 무척 불쾌했다. 앞으로는 특정 직업을 비하하는 장면이나 발언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3월 10일 보고서>

- 이날 홍유라(나영희 분)가 기자회견을 열어 뺑소니 사건의 전말을 고백하고, 뉘우치는 장면이 그려졌다. 또한 김청아(설인아 분)·구준휘(김재영 분) 커플과 김설아(조윤희 분)·도진우(오민석 분) 커플도 역경을 이겨내고 사랑을 이뤄서 흐뭇했다. 드라마가 제목처럼 해피엔딩으로 막을 내려 보기 좋았고, 그동안 좋은 작품을 제작해준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감사하다. <3월 24일 보고서>

○ 2TV 일일드라마「우아한 모녀」

- 한유진(차예련 분)이 결혼식 전날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고 경악했다. 즉 자신이 사실은 홍유라이며, 자신을 유괴한 사람이 캐리(최명길 분)이고, 캐리의 친아들이 구해준(김홍수 분)임을 전부 알게 됐다. 그런데 시청자가 받아들이기엔 내용이 너무 비상식적이다. 오직 흥미를 위해 지나치게 자극적이고 비논리적인 설정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3월 11일 보고서>
- 제니스(차예련 분)가 캐리정(최명길 분)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구해준(김홍수 분)을 끌어안고 강물에 뛰어들었다. 이에 앞서 캐리정도 강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한 바 있다. 이처럼 자극적인 설정이 이어져 시청하는 내내 피로감이 쌓였다. 또한 캐리정도 피해자인데 계속 가해자로 묘사되는 것도 보기 불편하다. 종영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행복한 결말로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다. <3월 16일 보고서>
- 서은하(지수원 분)가 큰딸 한유진(차예련 분)에게 절연을 당하고, 엄마 곁을 떠나려는 둘째 딸 홍세라(오채이 분)를 잡으려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물론 서은하가 그동안의 짓값을 치르는 건 통쾌하지만, 극이 전반적으로 너무 잔인해서 보기 힘들었다. 극단적인 전개보다는,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적인 전개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3월 27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계약우정」

- 평범한 고등학생 박찬홍(이신영 분)이 우연히 쓴 시 한 편 때문에 전설의 주먹이라 불리는 허돈혁(신승호 분)과 '계약우정'을 맺게 되며 일어나는 사건을 다룬 드라마이다. 독특한 설정과 예측 불가능한 전개에 빠져 첫 회부터 재미있게 시청했다.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이 크니, 흥미진진한 드라마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4월 8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한 번 다녀왔습니다」

- 자식 네 명이 모두 이혼한 바람 잘 날 없는 송영달(천호진 분) 집안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로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이날 송가희(오윤아 분)가 여동생 송나희(이민정 분)의 남편 윤규진(이상엽 분)을 향해 '매제'라고 표현했다. 언니가 여동생의 남편을 이룰 때는 '제부'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니, 앞으로는 가족 간 호칭을 정확히 사용해주기 바란다. <4월 13일 보고서>
- 용주시장에 김밥집을 오픈한 강초연(이정은 분)이 거한 개업식을 열었다. 이에 용주시장의 민원이 폭주하고, 상인회장 송영달(천호진 분)이 나서서 강초연과 제대로 한판 붙는 장면이 그려졌다. 탄탄한 극본에 배우들의 연기력이 더해져 잠시도 시선을 땔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내용으로 드라마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4월 14일 보고서>
- 자식들의 이혼을 지켜보는 송영달(천호진 분)·장옥분(차화연 분) 부부의 현실적인 고민에 공감하며 재미

있게 시청 중이다. 그런데 강초연(이정은 분)이 본격적으로 김밥집 장사를 시작하며 여성의 성역할을 상품화하는 장면이 많이 그려져 보기 불편하다. 간판부터 시작해서 호객 행위 등으로 유흥업소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많이 등장하는데, 온 가족이 함께 보는 주말드라마이니 이런 부분들을 시정해주시기 바란다. <4월 20일 보고서>

- 송다희(이초희 분)가 형제들에게 송나희(이민정 분)와 윤규진(이상협 분)의 이혼 사실을 알렸다. 이 폭로로 인해 다음 회에서 송영달(천호진 분)-장옥분(차화연 분)이 자식 네 명 모두 이혼한 사실을 알게 될 것 같아 벌써부터 흥미진진하다. 탄탄한 극본과 배우들의 연기력 덕분에 너무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전개를 보여주시기 바란다. <4월 28일 보고서>
- 이날 엄마 장옥분(차화연 분)과 딸 송나희(이민정 분)의 감정의 골이 극에 달해 안타까웠다. 그러나 송나희가 자신을 피하는 장옥분에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유산에 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고, 방송 말미에 온 가족이 화해하는 장면이 그려져 가슴이 뭉클했다.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감동적인 드라마를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19일 보고서>
- 홍연홍(조미령 분)이 강초연(이정은 분)의 하나뿐인 가족사진을 훔쳐 송영달(천호진 분)에게 접근하는 내용이 방영됐다. 이제까지 막장 요소가 없어 온 가족이 즐겁게 시청해왔는데, 갑자기 홍연홍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해 강초연과 송영달의 사이에 끼어드는 설정이 보기 불편하다. 하루빨리 강초연과 송영달의 얽히고설킨 관계가 풀어졌으면 좋겠다. <7월 21일 보고서>
- 마침내 홍연홍(조미령 분)의 정체가 밝혀졌고, 송영달(천호진 분)과 강초연(이정은 분)은 기적 같은 재회를 이뤘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막장 요소 없이 흘러가던 주말드라마에 갑자기 홍연홍이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시장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설정이 당황스러웠다. 이제 종영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감동적인 내용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길 바란다. <8월 4일 보고서>
- 첫 회부터 열심히 시청해왔던 「한 번 다녀왔습니다」가 해피엔딩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마지막에 극중 인물들의 3년 후 일상을 보여주었는데,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모습에 벅찬 감동을 느꼈다. 흥미진진한 전개와 주-조연 배우들의 열연으로 간만에 명품 드라마를 시청할 수 있었다. 그동안 고생한 배우들과 제작진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다. <9월 15일 보고서>

○ 2TV 월화드라마「본 어게인」

- 두 번의 생으로 얽힌 세 남녀의 운명과 부활을 그린 드라마로, 이날 첫 회가 방영됐다. 탄탄한 스토리와 연출력이 돋보였고, 배경음악도 좋아서 극에 쉽게 몰입할 수 있었다. 배우들의 연기력 또한 보는 재미를 더했다. 전생의 사랑으로 얽힌 세 남녀의 환생을 다뤘다는 점이 흥미진진하고, 앞으로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다. <4월 22일 보고서>
- 전생과 현생으로 얽힌 세 남녀가 미스터리한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쳐가는 드라마다. 그런데 살인 사건을 다루다보니 잔인한 장면이 너무 많이 그려지고 있다. 이날도 천종범(장기용 분)이 서태하(최대철 분)의 부하를 칼로 찌르고, 이부동생을 향해 살인을 시도하는 장면이 너무 잔혹해서 보기 불편했다. 15세 이상 관람가에 맞게, 지나치게 자극적인 전개는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5월 13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영혼수선공」

- 마음이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닌 치유하는 것이라고 믿는 정신의학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로, 이날 첫 회가 방영됐다. 환자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주인공 이시준(신하균 분) 캐릭터가 공감대를 형성해 무척 재미있게 시청했다. 여타의 의학 드라마와 다른 전개에 벌써부터 다음 회가 기대된다. 앞으로 열심히 시청하도록 하겠다. <5월 8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출사표」

- 새 수목드라마 「출사표」에 대한 기사를 접했다. 해당 드라마에 가상 정당인 '애국보수당'과 '다같이진보당'이 등장하는데, 보수 쪽 인물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정치인으로 묘사하고 진보 쪽 인물은 정의감이 높은 인물로 묘사했다는 것이다. 시청자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시청할 수 있도록, 정치 편향 논란을 극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6월 29일 보고서>
- 취업 청탁 의혹으로 사퇴 위기에 몰린 구세라(나나 분)가 우여곡절 끝에 마원구 의원에 당선됐다. 모두가 무모하다고 여기던 도전에서 굴하지 않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여타의 드라마들처럼 사랑 타령만 하지 않아서 흥미롭고, 막장 요소가 없는 점도 마음에 든다. 계속해서 현실적이고 공감 가능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7월 10일 보고서>
- 구세라(나나 분)가 사랑동 지명 변경을 막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사랑동 지명 변경 주민 동의서 조작성을 포착한 구세라는 직접 통장을 찾아가서 주민 간담회에서 증언해달라고 요청하고 양심선언을 이끌어내는 등 속 시원한 행보를 보였다. 극이 거듭될수록 구세라의 행동력이 빛을 발한다. 계속해서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8월 7일 보고서>

○ 2TV 일일연속극「비밀의 남자」

- 사고로 일곱 살의 지능을 갖게 된 이태풍(강은탁 분)이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을 마주하며 복수를 위해 질주하는 과정을 그린 드라마다. 이제 막 시작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이태풍의 바리스타 실수 장면이나 그의 재산을 노린 꽃뱀들의 등장 등을 보면 발달장애인의 문제를 여실히 다뤄 공감이 간다. 계속해서 흥미롭고 공감 가능한 전개로 시청자들에게 재미있는 드라마를 선사해주기 바란다. <9월 17일 보고서>
- 궁지에 몰린 차서준(이시강 분)이 결국 한유라(이채영 분)의 결혼 제안을 수락했다. 앞서 한유라는 최준석(이루 분)의 아이를 임신한 채 이태풍(강은탁 분)과 결혼했던 과거가 있는데, 그 과거를 모두 숨긴 채 또다시 차서준과 결혼을 하려는 모습이 너무 지나치다. 아무리 드라마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공감 가능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10월 22일 보고서>
- 이태풍(강은탁 분)이 한유정(엄현경 분)이 키우는 한동호(서우진 분)가 자신의 아들 '민우'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나 한동호는 사실 이태풍의 아들이 아닌 최준석(이루 분)의 아들이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어떻게 밝혀질지 궁금하다. 지금까지처럼 빠른 전개로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재미있는 드라마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11월 18일 보고서>
- 이날 한유라(이채영 분)는 자신이 버린 아들인 한동호(서우진 분)에게 골수이식을 약속했지만, 현재 남편인 차서준(이시강 분)이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될까봐 수술 직전에 도망쳤다. 그사이 한동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끝내 사망했다. 한유라의 행동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친아들에게 그런 짓을 저질렀다는

것에 공감할 수 없었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데, 조금 더 공감 가능하고 따뜻한 전개를 보여주기 바란다. <12월 28일 보고서>

○ **2TV 주말드라마「오! 삼광빌라」**

- 새로 시작한 주말드라마 「오! 삼광빌라」를 시청했다. 다양한 사연을 안고 삼광빌라에 모여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정들어 가는 과정을 그렸다. 여느 주말드라마들과 달리 혈연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따뜻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해서 벌써부터 기대가 크다. 세대 간 서로 융화되는 모습을 통해 남녀노소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9월 22일 보고서>

- 다양한 사연을 안고 삼광빌라에 모여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로, 타인이었던 이들이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과정을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다. 그러나 막장 요소 없는 따뜻한 주말극을 기대했는데, 출생의 비밀과 기억상실 등 갈수록 극이 진부하게 흘러가 실망스럽다. 화려한 출연진만큼 다채로운 이야기로 재미있는 드라마를 만들어주기 바란다. <10월 27일 보고서>

○ **2TV 수목드라마「바람피면 죽는다」**

- 범죄소설 베스트셀러 작가 강여주(조여정 분)와 이혼전문 변호사 한우성(고준 분) 부부의 코믹 미스터리 스릴러 작품이다. 이날 첫 방송이 시작됐는데, 예측 불허의 스토리 전개와 주연 배우들의 명품 연기 덕분에 재미있게 시청했다. 앞으로 펼쳐질 강여주-한우성 부부의 아슬아슬한 결혼생활이 기대가 된다. 흥미진진한 수목극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2월 4일 보고서>

| 4. 출연자·진행자 |

○ **1TV 「생방송 심야토론」'2020 한반도 평화의 길은?'**

- 북미 간 북핵협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한반도의 평화가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날은 한반도 평화의 길을 주제로 토론했다. 북한은 새로운 전략무기를 예고하며 강경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데, 군사 지식이나 무기 관련 지식이 없는 국회의원들이 출연해서 답답했다. 군사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이 출연했다면 더 유익한 토론이 되었을 것 같다. <1월 6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

- 지난달 31일, 진행자 송해 선생님이 감기몸살 증세로 입원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다. 그렇지 않아도 너무 많은 연세로 늘 걱정스러웠는데, 이런 소식을 접하니 시청자 입장에서는 건강이 걱정되어 앞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시청하기 어려울 것 같다. 새로운 진행자를 섭외해서 프로그램에 활력을 넣어주길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1TV 「청소년 공감 콘서트 온드림스쿨」**

- 방송과 강연에서 종횡무진 활약하는 광정은 작가가 출연해서 청소년들은 물론 현대인의 큰 고민인 자존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인생에 빛낸 자존감 그래프를 공개한 점이 크게 공감됐다. 자존감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존감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강연이었다. <1월 13일 보고서>

○ 1TV 「동행」'열한 살 정우의 겨울 산'

- 질병이나 파산, 실직 등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이웃들을 돕기 위한 뜻깊은 프로그램으로, 늘 시청한다. 이날은 낡은 간판을 단 건물의 단칸방에 살아가는 삼대의 사연이 방영됐다. 그중 아버지는 51세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보였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방송 출연의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 <2월 3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

- 그날의 생생한 시사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내는 생방송 시사 프로그램이다. 최근 한상헌 아나운서가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며 방송인 최옥 씨가 단독으로 진행을 맡게 됐다. 그런데 중요한 시사 프로그램의 진행을 최옥 씨가 혼자 맡기에는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든다. 시사 분야의 전문가를 한 명 더 섭외해서 최옥 씨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 더 유익한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 <3월 5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코로나19 기획'

- 이날 방송도 코로나19 특집으로 꾸며져,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그런데 패널로 출연한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가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 꼭 써야 하나?'라는 질문에, 건강한 사람은 쓸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건강한 사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서 코로나 19에 걸릴 수도 있으니, 경솔한 발언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1TV 「정치합시다」'민심포차'

-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전원책 변호사가 열린 공방을 벌였다.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은 자주 다른 사람의 말을 끊는 등, 상대를 배려하는 점이 부족해보여서 보기 안 좋았다. 조금 더 중립적인 출연자로 교체해주기 바란다. <4월 7일 보고서>

○ 1TV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0 총선」

- 오후 4시부터 개표가 끝날 때까지 방송되는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0 총선」을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유시민 작가가 진보 쪽 인사를 대표해서 해설에 참여했는데, 유시민 작가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등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자주 해서 크게 신뢰가 가지 않는다. 조금 더 공정한 진보 쪽 인사를 섭외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4월 16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화제조차 안 된 4.15 총선 낙선자 특집'

- 이날은 '화제조차 안 된 4.15 총선 낙선자 특집'으로, 박종진 미래통합당 낙선자와 김성희 열린민주당 낙선자가 출연했다. 그런데 진행자 최옥 씨가 박종진 낙선자에게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비례대표 2번을 준다면 가겠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등 무례하게 대해 보기 불편했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예의 바른 진행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5월 4일 보고서>

○ 1TV 「저널리즘 토크쇼 J」'언론, 진실은 어디에도 없었다'

- 조국 前 장관 관련 보도와 이천 화재현장에서의 노동자들 참사 보도 등에서 드러난 언론의 낡은 취재 관행을 짚어보았다. 그런데 해당 방송에 출연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조 前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 前 장관 관련 보도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 공정하지 않게 느껴졌다. <5월 14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라이브」‘총리에게 듣는다’

- 정세균 국무총리와와의 단독 대담으로 진행됐다. 취임 후 임기 대부분을 코로나19 대응에 쏟은 총리에게 현재 우리나라의 코로나19 상황은 어떤지, 그리고 각종 현안들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보는 시간이었다. 그런데 진행자가 총리가 말하는 도중에 계속 대답을 해서 총리의 말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앞으로 진행자는 시청자들이 패널의 말에 집중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주시기 바란다. <5월 18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학교 내’ 감염 없지만, ‘교문 앞’까지 온 바이러스...방역 대처 어떻게?’

- 서울의 고3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학생과 학부모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이날 기자가 서울교육청 비상상황실로 가서 학교 방역 상황을 전달해주었다. 그런데 마스크를 턱에 걸친 모습이어서 보기 안 좋았다. 뉴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정작 기자가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신뢰감이 떨어진다. 앞으로 취재기자들은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주시기 바란다. <6월 10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 김원장 앵커가 진행하는「사사건건」을 매일 오후 시청했다. 날마다 쏟아지는 각종 시사 이슈들을 김 앵커가 공정하고 냉철하게 분석해주어 유익했다. 그런데 지난 22일부터 진행자가 교체되어 오랜 시청자 입장에서는 무척 서운하다. 빠른 시일 안에 다른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원장 앵커를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7월 1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

- 최근 해당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송해 선생님이 병원에 입원하며 녹화에 불참했고, 작곡가 이호섭 씨가 스페셜 MC로 등장했다. 그런데 송해 선생님이 녹화에 불참할 경우, ‘미스터트롯’에 출연하며 스타로 떠오른 이찬원 씨가 스페셜 MC를 맡으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다. 추후에 송해 선생님이 자리를 비울 경우 이찬원 씨를 스페셜 MC로 섭외해주시기 바란다. <7월 22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서울을 비롯해 경상북도, 충청북도, 강원도 등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고, 곳곳에서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KBS에서 발 빠르게 특보를 편성해주어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그런데 여성 진행자가 머리를 풀고 진행을 해서 시청자들이 보기에 답답했다. 현재 녹록하고 습한 공기에 불쾌지수가 높으므로 진행자들은 최대한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을 갖추주시기 바란다. <8월 3일 보고서>

○ 1TV 「여름특선 시니어 토크쇼 황금연못」

- 해당 방송을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역경의 세월을 살아온 어르신들의 인생경험 및 지혜를 배울 수 있어 즐겨 시청한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거리두기도 하지 않은 채 가까이 앉은 모습이 우려스럽다. 고령층이 코로나19에 취약하다는 것이 이미 알려졌으므로, 출연자들은 더욱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8월 4일 보고서>

○ 1TV 「광복절 특집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 오는 15일,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KBS에서 재일동포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특집방송을 방영한다. 그런데 홈페이지의 출연자 명단에서 가수 김호중 씨를 보았는데, 최근 김호중 씨는 전 여자친구 폭행 문제를 비롯해 여러 논란에 휩싸여 있다. 좋은 취지의 광복절 특집 방송에 물의를 빚은 연예인을 섭외한 점이 시청자 입장에서 많이 불편하다. <8월 13일 보고서>

○ 1TV 「KBS 시청자 주간 6시 내고향」‘청년회장이 간다’

- 이날도 청년회장인 개그맨 손현수 씨가 어르신들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기 위해 서천을 방문했다. 그런데 마스크를 착용할 때는 얼굴에 밀착이 되어야 하는데, 손현수 씨는 시종일관 코를 노출시키고 있었다. 코로나19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들을 상대하면서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9월 4일 보고서>

○ 1TV 「가요무대」‘작곡가 백영호’

- 백영호 작곡가의 탄생 100년을 맞아, 삶의 고달픈 격동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준 그의 작품들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1920년생인 백영호 작곡가의 노래를 소화하기에는 너무 젊은 가수들이 출연해서, 본인과 같은 7080 세대들이 추억에 젖어들기엔 한계가 있었다. 옛 감성을 소화할 수 있는 원로가수들을 섭외했다라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10월 7일 보고서>

○ 1TV 「TV쇼 진품명품」

- 지난 4일 개봉한 영화 ‘도굴’의 출연 배우들인 이제훈 씨, 조우진 씨, 임원희 씨가 깜짝 게스트로 출연했다. ‘도굴’은 문화재 도굴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전문 감정위원이 우리 고미술품의 진가를 확인하는 「TV쇼 진품명품」과 묘하게 어우러지며 재미있게 시청했다. 해당 방송에서 유명 배우들을 만나 반가웠고, 앞으로도 다양한 출연자를 섭외해 재미를 안겨주기 바란다. <11월 9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 이날은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출연해 최근의 시사 이슈들에 대해 분석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강훈식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도중 모바일게임을 하는 장면이 포착되어 빈축을 산 바 있다. 당시 반성하고 자숙하겠다고 사과했는데, 아직 방송에 출연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다. <11월 11일 보고서>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당신이 몰랐던 체질과 체형의 비밀’

- 패널 박민선 서울대 가정의학과 교수가 유방암 고위험군으로 과음과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람을 꼽았다. 그런데 유방암의 위험요인으로 가족력·임신 경험 전무·이른 초경 및 늦은 폐경 등이 흔히 알려져 있는데, 박민선 교수의 설명이 부족하게 느껴졌다. 또한 최근 출연하는 의학 전문가들의 설명이 상투적이고 불충분해서 실망스러울 때가 있다. 앞으로 패널들은 조금 더 충실하게 방송준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11월 12일 보고서>

○ 1TV 「열린음악회」

- 늦가을 주말 저녁에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즐길 수 있는 노래들을 들려주었다. 문, 노을, 위클리, 부활, 홍진영 등 실력파 가수들이 많이 출연했다. 그런데 홍진영 씨는 최근 논문 표절 논란에 휩싸였고, 이로 인해 다수의 프로그램에서 홍진영 씨 부분을 편집하고 있다. KBS에서도 논란을 일으킨 인물을 섭외하기보단, 자숙할 시간을 주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 <12월 1일 보고서>

○ 2TV 「1박 2일」‘세 번째 여행! 충남 태안군’

- 2020년을 맞이해 연정훈, 김종민, 문세윤, 김선호, 단딘, 라비가 충청남도 태안으로 MT를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마치 대학생들의 MT처럼 스무 살 의상 콘셉트로 등장한 여섯 멤버들의 모습이 풋풋했다. 지난 시즌보다 출연자들의 협동심이 돋보이고,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출연자들과 제작진이 협동해서 계속해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7일 보고서>

○ 2TV 「KBS 경제타임」[글로벌 경제] '젯더미'된 호주...경제도 휘청'

- 호주 전역을 덮친 산불 피해를 보도했다. 산불이 무려 다섯 달째 이어지고 있으며, 캥거루와 코알라 등 야생 동물 5억 마리 가까이 죽거나 심하게 다쳤다는 소식이었다. 그런데 진행자가 안타까운 상황에도 웃으면서 이야기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가슴 아픈 상황이니만큼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했어야 한다. <1월 10일 보고서>

○ 2TV 「스탠드 업!」'조혜련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다'

- 개그우먼 조혜련이 게스트로 출연해서 녹록치 않았던 삶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특히 아들 우주 군의 검정고시 도전기를 전해주었는데, 본인의 자녀도 같은 상황에 있어서 많은 위로가 됐다. 직접 보고 겪은 사연들을 통해 시청자들에게 위안을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방송에서 볼 수 있길 바란다. <2월 6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오는 21일에 아이즈원이 출연한다는 소식을 접했다. 해당 그룹은 타 방송사에서 시청자의 투표를 통해 결성된 그룹이다. 하지만 투표 조작으로 인해 그룹 결성 과정에 문제가 발견 됐다. 이런 그룹이 공영 방송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든다. 해당 그룹의 섭외를 다시 한 번 고려해주시기 바란다. <2월 19일 보고서>

○ 2TV 「도올학당 수다승철」

- 도올 김용옥 선생과 가수 이승철 씨, 그리고 특별손님으로 배우 정우성 씨가 출연한 첫 회를 시청했다. 그런데 김용옥 선생은 과거 KBS 프로그램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국의 괴뢰'라고 표현하는 등 여러 차례 막말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공영방송의 파급력을 고려해서 공정하고 진중하게 말하는 진행자를 섭외해주시기 바란다. <3월 13일 보고서>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 연예인들이 옥탑방에 갇혀 열 문제를 풀어야만 퇴근할 수 있는 지식토크쇼이다. 재미를 얻기 위해 시청했는데, 점점 상식이 늘어나는 기쁨도 맛보고 있다. 그런데 이날은 게스트로 출연한 장영란 씨가 너무 산만하고 소란스러워서 방송에 집중할 수 없었다. 차분히 문제를 풀고 설명을 듣고 싶은 시청자들을 위해 겸손하고 진지한 게스트 위주로 섭외해주시기 바란다. <3월 18일 보고서>

○ 2TV 「무한리필 샐러드」'법대 오빠, 손수호'

- 매주 수요일 코너인 '법대 오빠, 손수호'에서, 이날은 '대중교통에 관한 법'을 다뤘다. 평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에 주의 깊게 시청했다. 그런데 대중교통의 민폐 승객에는 어떤 유형이 있는지 알아보던 중, 여성 진행자가 '노빠꾸 형'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공영방송의 진행자들은 올바른 우리말 사용에 앞장서주기 바란다. <3월 26일 보고서>

○ 2TV 「제보자들」'끝나지 않는 지옥, 온라인 성범죄왕국'

- 이날 방송에서는 온라인 성범죄를 추적하고, 이들을 막을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았다. 누리꾼들은 운영자는 물론, 그곳을 이용했던 자들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래서 제작진은 그 이용자들을 쫓고 있는 디지털 장의사 박형진 씨의 인터뷰를 담았는데, 하필 이날 박형진 씨는 음란물 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으로 제작진은 출연자 섭외에 신중해주시기 바란다. <4월 10일 보고서>

○ 2TV 「도올학당 수다승철」‘인간과 기계’

-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가 특별손님으로 출연해서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제 기계 없이 산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기계에게 잠식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지를 쉽게 설명해주어 흥미진진하게 시청했다. 앞으로도 김상욱 교수를 다양한 방송에서 자주 볼 수 있길 바란다. <5월 12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이것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

- 이번 ‘나나랜드’의 주인공은 경기도 가평군의 조용하고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자신만의 아름다운 정원을 꾸미고 사는 정구선 씨였다. 화사하고 예쁜 봄꽃으로 가득한 정원이 정말 보기 좋았다. 특히 정구선 씨가 이웃들에게 자신이 가꾼 꽃과 나무를 나누고 베푸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앞으로도 나만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웃들의 생생한 삶의 현장을 전해주기 바란다. <5월 13일 보고서>

○ 2TV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 심영순 요리연구가가 현주엽 감독에게 갈비탕과 함께 먹을 쉼박지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방영됐다. 그런데 심영순 요리연구가와 개그우먼 김숙 씨가 ‘가르치다’를 ‘가리키다’로 잘못 말했다. 앞으로 출연자들은 올바른 우리말 표현에 신경써주기 바란다. <6월 16일 보고서>

○ 2TV 「지구촌 뉴스」‘중국판 GPS 구축...마지막 위성 발사 성공’

- 중국이 미국의 위성 위치확인 시스템 GPS에 대항하는 중국판 GPS 구축을 위한 마지막 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쓰촨 시창위성발사센터에서 해당 소식을 전해준 특파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어서 우려스러웠다. 중국에서 여전히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 마스크 착용 등 위생수칙을 준수해주기 바란다. <6월 25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월벤져스 아빠 샘’

- 샘 해밍턴이 아들 윌리엄의 생일을 맞이해 평소 윌리엄의 로망이었던 조종 로봇을 조종해볼 기회를 주는 장면이 그려졌다. 조종 로봇을 조종하며 즐거워하는 윌리엄·벤틀리 형제의 순수함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매회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해주어 고맙고, 앞으로도 해당 방송을 통해 월벤져스 형제를 오래도록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7월 21일 보고서>

○ 2TV 「연중 라이브」‘조명섭의 전통 트로트 콘서트’

- 스타가 사랑한 노래를 명품 목소리로 들어보는 ‘연중 플레이리스트’ 코너에 가수 조명섭 씨가 출연했다. 최근 화제의 중심에 있는 조명섭 씨가 송인도 씨의 노래인 ‘나 하나의 사랑’을 열창해주어 즐거운 마음으로 감상했다. KBS에서 조명섭 씨를 발굴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2TV 「개는 훌륭하다」

- 본인도 견주로서 해당 방송을 늘 시청한다. 이날은 질투심이 심한 불도그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런데 개들마다 성격이 다양하고 문제점도 각양각색인데, 강형욱 훈련사는 모든 개들에 대해 비슷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 같아 아쉽다. 또한 견주의 사정과 개의 크기 및 성향에 관계없이 무조건 실내에서 키워야 한다고 강요하는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8월 12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김종국X터보 편'

- 이날은 '김종국X터보' 특집으로 꾸며졌다. 출연자들 중 김호중 씨는 과거 불법 도박을 인정했기 때문에 편집이 됐다. 그런데 여전히 김호중 씨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팬들이 많다. 다음 주 방송에서는 김호중 씨의 무대를 볼 수 있길 바란다. <8월 24일 보고서>

○ 2TV 「2020 제천 KOVO컵 프로배구대회」'여자부 결승전'

- KBS 2TV에서 충북 제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흥국생명과 GS칼텍스의 대회 결승전을 생중계 해주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장을 찾을 수 없어 방송을 통해 열심히 응원했다. 그런데 진행자들이 전반적으로 흥국생명 쪽에서 중계를 이끌어가서 GS칼텍스의 팬들 입장에서 듣기 불편했다. 양 팀 팬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도록 공정하게 중계해주기 바란다. <9월 7일 보고서>

○ 2TV 「추석 특집 TV 라떼는」

- 90년으로 돌아가서 당시 뜨거운 인기를 누린 프로그램들과 스타들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낸 방송으로, 아마도 중장년층이 많이 시청했을 것 같다. 그런데 여성 진행자들이 너무 젊어서 90년대에 대해 아는 바가 없어 중장년층 시청자들과 공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진행자들이 90년대에 대해 더욱 공부를 하고 진행했더라면 더 재미있고 공감 가능한 방송이 되었을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10월 5일 보고서>

○ 1R 「김용민 라이브」

- 방송 말미에 김용민 씨가 라디오 하차 소식을 알렸다. 어려운 시사 이슈를 쉽고 재밌게 풀어주어서, 시사 프로그램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버리게 해준 프로그램이다. 매일 퇴근길에 재미있게 청취했는데 아쉬운 마음이 든다. 그동안 수고 많았고, 추후에 다른 프로그램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길 바란다. <2월 17일 보고서>

○ 1R 「라이브 비대위」

- 이날은 최경영 KBS 기자가 비대위원장을 맡아 방송을 진행했다. 그런데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코로나19 감염자가 늘고 있는 일본 상황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진행자가 "우리도 경제 상황이 엄중한데, 일본도 안 좋다고 하니 기분이 좋다."는 발언을 해서 듣기 불편했다. 건강과 직결되는 질병과 관련해 농담식의 발언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2월 21일 보고서>

○ 1R 「오태훈의 시사본부」

- '각설하GO!' 코너에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출연해서 마스크 수급 논란 및 신천지 강제조사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과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무조건 정부를 비난하고 정부의 정책에 반대만 하는 태도가 청취하기 불편했다. 지금은 정치인들이 여야 구분 없이 힘을 합쳐 이 사태를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 <3월 9일 보고서>

○ 1R 「김경래의 최강시사」'최강 인터뷰'

- 이날 '최강 인터뷰'는 박은하 주영국대사와 진행했다. 박은하 주영국대사는 한국의 코로나19 대처를 보는 유럽의 시선과, 현재 영국의 심각한 코로나19 상황 등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를 '저희나라'로 지칭해 듣기 불편했다. 자기의 나라와 민족은 낮출 대상이 아니다. 앞으로 출연자들은 우리말을 제대로 사용해주시기 바란다. <5월 7일 보고서>

○ 1R 「정관용의 “지금, 이사람” ‘김용원 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용원 변호사와의 인터뷰가 방송됐다. 김 변호사는 부산 형제복지원의 강제노역 현장을 목격한 후 수용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실태를 최초로 세상에 알린 인물이다. 진행자와 김 변호사의 대담을 청취하며 깊은 감명을 받았다. 계속해서 이 시대의 이슈가 되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바란다. <6월 19일 보고서>

○ 1R 「최경영의 경제쇼」

- 코로나19 발생 이후 부동산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며, 정부에서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방송에서 2020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부동산 세법과 6.17 부동산 대책을 잘 짚어주어 유익했다. 무엇보다 진행자가 어려운 경제를 쉽게 설명해주어 늘 감사한 마음으로 청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는 경제 분야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기 바란다. <7월 1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꼭 필요한 경제정보를 전달해주어 매일 출근길에 유익하게 청취하고 있다. 경제와 법률, 재테크 등 어려운 경제를 쉽고 명확하게 전달해주는 점은 너무 좋다. 그런데 진행자가 사회 현안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자주 피력해서 객관성과 중립성이 떨어질 때가 있다. 앞으로는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8월 19일 보고서>

○ 1R 「라디오 매거진 ‘위크 앤드(Week &)’」

- 매거진 스타일의 주말 프로그램으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주의 시작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 성기영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고 있는데, 진행이 너무 편안하고 좋아 새벽일을 마치고 들어와서 잠이 들기 전까지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늘 한결같은 진행으로 청취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사해주는 진행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11월 16일 보고서>

○ 1R 「뉴스와 화제」

- 김혜송 기자가 진행하고, 평일 아침에 방송되는 1라디오의 종합 뉴스 프로그램이다. 각 분야의 주요 사안을 전달해줄 뿐 아니라, KBS 특파원들이 세계 각지에서 지구촌 소식을 알려주어 유익하다. 무엇보다 김혜송 기자가 주요 사안에 대해 아주 간결하고 적합하게 설명해주어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매 방송마다 청취자들이 알고 싶은 내용을 선정해서 세세한 해설을 덧붙여주어 감사하다. <12월 2일 보고서>

○ 2R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

- 매일 오전 해당 방송을 청취하는 청취자이다. 감미로운 음악과 따뜻한 사연을 들을 수 있어 오전 시간대에 적합한 방송인 것 같다. 더욱이 가수 겸 작곡가 조규찬 씨가 진행을 맡아서인지 늘 선곡이 좋다. 즐거운 아침을 보낼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꾸준히 좋은 진행을 해주기 바란다. <2월 7일 보고서>

○ 2R 「김원준의 라디오스타」

- 매일 오후 「김원준의 라디오스타」를 들으며 퇴근한다.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이 담긴 사연과 음악을 듣다 보면 퇴근길이 지루하지 않아서 좋다. 특히 김원준 DJ의 진행이 좋아 편안하게 청취할 수 있다. 앞으로도 청취자들의 힘겨운 퇴근길에 즐거운 동무가 되어주길 바란다. <5월 8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가수 주현미 씨가 오랜만에 라디오 DJ로 돌아왔다고 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청취했다. 주현미 씨만의 따뜻한 감성으로 중장년층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지루할 틈 없는 두 시간을 보냈다. 앞으로 솔직하고 따뜻하며 인간적인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9월 2일 보고서>

○ **2R 「이상호의 드림팝」**

- 이날 한 청취자가 여섯 살 아들이 샤워하고 나와서 속옷도 안 입고 마스크부터 썼다는 사연을 보내왔다. 방역모범어린이라는 뜻으로 보낸 사연이었는데, 진행자가 "야하다"고 농담을 해서 당황스러웠다. 현재 홈페이지 게시판에도 해당 발언을 질책하는 게시물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 진행자의 사과가 필요해 보인다. <9월 4일 보고서>

○ **3R 「건강 365」**

- 날마다 해당 방송을 빠짐없이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각 분야의 전문의가 출연해 각종 의학 정보를 제공해주는 덕분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 특히 최윤경 아나운서가 세심한 진행으로 청취자들이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잘 설명해주어 유익하다. 항상 좋은 진행으로 청취자들에게 도움을 주어 감사하다. <7월 15일 보고서>

○ **1FM 「김미숙의 가정음악」**

- 좋은 음악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싶어 매일 아침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한다. 그런데 진행자 김미숙 씨가 역대 진행자들에 비해 음악에 대한 해설이 부족하고, 음악 이외의 이야기가 많아서 아쉬움이 남는다. 추후 개편 시에는 클래식 전문가가 진행을 맡아주면 보다 유익한 방송이 될 것 같다. <1월 10일 보고서>

○ **1FM 「베토벤의 사계, 영혼을 치유하다」**

- 매일 아침, 활기차고 다채로운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준비하고 싶어서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음악뿐 아니라, 날씨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해주어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이날은 음악보다 진행자의 이야기가 더욱 많이 방송되어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1FM을 애청하는 청취자들은 대부분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될 수 있으면 음악 위주의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0월 14일 보고서>

○ **1FM 「FM 실황음악」**

- 아주 오랫동안 KBS 1FM을 청취해온 애청자이다. 그중에서도「FM 실황음악」을 가장 즐겨 청취하는데, 무엇보다 진행을 맡은 최은규 음악칼럼니스트를 칭찬하고 싶다. 최은규 씨의 상세한 해설과 명확한 발음이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음악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계속해서 깊고 풍부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1월 5일 보고서>

○ **2FM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 KBS 라디오의 간판 프로그램인 「볼륨을 높여요」의 애청자이다. 과거 이본, 최강희, 유인나 등 스타 DJ를 많이 배출한 방송인데, 새해부터 배우 강한나가 새 DJ로 발탁되어 기대가 크다. 아직까지는 모든 면에서 만족스러운 진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좋은 진행으로 청취자들과 편안하고 유쾌한 시간을 만들어주길 바란다. <1월 15일 보고서>

○ **2FM 「조정현의 굿모닝팝스」**

- 32년째 이어지고 있는「굿모닝팝스」의 오랜 청취자이다. 최근 진행자가 조승연 씨에서 조정현 씨로 교체

됐다. 조승연 씨는 영어 문화권 거주 경험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들을 많이 알려주어 좋았는데, 현재는 그런 부분이 다소 부족해 아쉽다. 앞으로 진행자 섭외 시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1월 15일 보고서>

○ 2FM 「박명수의 라디오쇼」

- 개그맨 박명수 씨의 재치 넘치는 진행에 이끌려 매일 점심시간에 해당 방송을 청취하고 있다. 그러나 간혹 박명수 씨가 방송에 출연한 게스트들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아 듣기 불편할 때가 있다. 남녀노소 함께 듣는 방송인만큼, 앞으로 박명수 씨는 게스트들과 청취자들에게 좋은 방송 태도를 보여주기 바란다. <3월 18일 보고서>

| 5. 공정성 |

○ 1TV 「시사 직격」'무엇이 이들을 죽게 하나 3천 원의 목숨 값, 배달 라이더'

- 배달 라이더들이 처한 열악한 현실을 고발했다. 4대 보험 등의 비용을 줄이며 소득을 창출하는 구조에 배달 라이더들이 희생을 당한다는 내용이였다. 본인은 배달 라이더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로 4대 보험을 제공하고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라이더들이 프리랜서로 전향하길 희망한다. 배달 라이더가 일방적인 피해자로 묘사된 점이 편파적이고, 신호 위반 등으로 배달 라이더가 가해자가 되는 문제도 짚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1월 6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교회 정치' 광장에 갇히다'

- 이날은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목사가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의 정치적 영향력 가능성과 파장, 그 한계 등을 짚어보았다. 본인은 지난해 10월부터 광화문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 시민인데, 해당 방송에서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은 보수단체 혹은 돈을 받고 참석하는 사람으로 매도해서 보기 불편했다. 또한 전광훈 목사 측 입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도 편파적이었다. <1월 13일 보고서>

○ 1TV 「사사건건」'안철수 탈당, 국민의당 돌풍 재연할까?'

- 바른미래당 소속인 안철수 전 의원이 탈당하고 독자 행보에 나섰다. 그래서 신지호 전 국회의원과 김성완 시사평론가가 출연해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김성완 시사평론가는 한 쪽에 치우친 발언을 많이 하고, 안철수 의원을 일방적으로 비판해서 보기 불편했다. 방송에 출연해서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월 31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이슈 더 이슈'

- 최영일 평론가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지난 2016년 총선 이후 4년 동안 있었던 일을 정리해주었다. 그런데 칠판에 지금의 한국당인 새누리당을 '친박', '골박' 등으로 분류해서 표기했는데, '골박'은 보수를 비하하는 표현으로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너무 편파적인 방송이었다.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야 하는 상황이니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2월 17일 보고서>

○ 1TV 「특집 KBS 뉴스 9」'지역구 투표 민주당 31.5%...미래통합당 24.1%'

- KBS가 총선까지 실시하는 정기 여론조사의 세 번째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그런데 해당 여론조사에 국가혁명배당금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의아했다. 국가혁명배당금당 역시 대한민국의 정당이므로, 해당 정당이 포함되지 않은 여론조사는 편파적으로 여겨진다. <2월 27일 보고서>

○ **1TV 「저널리즘 토크쇼 J」'100주년 맞이한 조선·동아, 그들이 지운 흑역사를 찾아서'**

- 이날 주제는 창간 100주년을 맞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역사였다. 그런데 패널들이 같은 목소리로 두 신문사가 자신들이 소유한 종편 채널을 통해 편파 보도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두 신문사가 우리나라에 기여한 바는 모두 무시한 채, 패널들이 한 목소리로 비난만 하는 모습이 공정하지 않게 여겨져 실망스러웠다. <3월 10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시민, 트랜스젠더'**

- 우리 사회에서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는 트랜스젠더의 삶을 조명했다.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것은 안타깝다. 그러나 트랜스젠더와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도 중요하지만,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입장에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 반대하는 입장도 함께 다뤄주었으면 좋을 것 같다. <3월 30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차별금지법, 14년째 제자리걸음한 이유는?'**

- 그동안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무산된 이유를 취재했다. 그 이유로 일부 기독교 단체들을 거론했는데, 해당 보도에 기독교 단체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담기지 않아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이들의 의견이 담기지 않은 점도 공정하지 않다. <7월 1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삼성과 이재용 리스크'**

-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 취재했다. 그런데 삼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기여한 바는 배제하고, 경영권 승계 과정의 문제점만 다룬 점이 편파적이었다. 삼성은 코로나19 발생과 관련해 물품기부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친 바 있는데, 이러한 업적도 함께 다뤄주었더라면 더 좋을 것 같다. <7월 27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정부와 여당을 규탄하는 집회였는데, KBS 뉴스에서 집회의 사유를 다루지 않아 의아했다. 반면 집회 참가자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만 비판했는데, 시청자가 보기에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8월 18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순국결사대 카톡방과 전광훈'**

- 전광훈 목사 추종세력의 카톡방을 통해 교회 발 코로나19 재확산의 진실을 추적했다. 그런데 코로나19 재확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전광훈 목사와 교회 탓으로만 돌리는 부분이 편파적이었다. 또한 종교와 상관없이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을 모두 전광훈 목사 추종세력으로 몰아가는 점도 보기 불편했다. <8월 31일 보고서>

○ **1TV 「남북의 창」'긴급 좌담 - 북, 신속 사과 배경은?'**

- 전문가 패널들이 출연해서 북한이 우리 공무원에 총격을 가해 피살한 사건의 배경과 쟁점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출연자들이 북한의 만행을 규탄하기보다는 옹호하는 입장을 취했고, 시신을 소각한 행위에 대해서도 코로나 방역 때문이라고 변호하는 태도를 취했다. 출연자들이 북한의 만행을 강하게 질타해서 국민 여론을 대변해주었더라면 더 유익한 좌담이 되었을 것 같다. <9월 28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인터뷰] 최재성 정무수석에 듣는다...추-윤 갈등·부동산 해법은?
 -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최근 현안들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묻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는데, 최재성 정무수석이 정부·여당 입장에서 윤석열 총장만 비판해서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꼬집는 날카로운 질문이 없었던 점도 아쉬움이 남는다. <10월 30일 보고서>
-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
 - 미국 대선 특집으로, 플로리다의 현지 취재와 여론조사 동향 등을 통해 마지막 판세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바이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인터뷰 및 트럼프를 비난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를 더 많이 보여줘서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방송이 전반적으로 바이든을 지지하는 듯 여겨져 보기 안 좋았다. <11월 2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이명박 前 대통령 재수감 주진우 기자가 보내는 편지'
 - 이명박 전 대통령이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재수감됐다. 그래서 이날 방송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집중적으로 취재해 온 주진우 기자가 출연했다. 그런데 주진우 기자는 물론이고, 공정해야 할 진행자들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편파적인 입장을 취해 보기 불편했다.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1월 4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혼돈의 선거, 분열된 미국'
 - 지난 11월 3일 미국 대선이 열렸고, 이 선거에서 미국 사회의 갈등이 적나라하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날 방송에서 미국 현지를 찾아 앞으로 미국이 어떤 길로 나아갈지 그 방향을 탐구했다. 그런데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그의 지지자들을 인종차별주의자로 비쳐지게 해서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11월 9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성소수자·'이민2세대' 주한대사들이 말하는 '차별금지법'"
 - '차별금지법'이 기독교계 일부와 몇몇 보수단체의 반발로 계류 중이라는 보도를 보았다. 차별 금지 영역에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포함됐기 때문인데, 비단 기독교계와 보수단체만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 시민들 중에도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정 집단만 반대하는 것처럼 보도되어 납득하기 어려웠다. 또한 반대하는 입장의 이유는 다뤄지지 않아 공정하지 않게 여겨졌다. <11월 30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회장님의 상속법'
 -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 승계 현장을 밀착 취재하고, 불공정 행위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짚어보았다. 그런데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 발전에 미친 영향이 크다. 대기업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력은 다루지 않고, 편법과 불공정 승계 등 부정적인 면만 다루는 것은 편파적으로 보인다. <12월 1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코로나19의 '3차 대유행'의 기세가 거세지며 일일 신규 확진자가 1천명 선을 넘어섰다. 그런데 뉴스에서 집단 감염지로 교회를 자주 언급하는 점이 보기 불편하다. 반면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집회를 강행한 민노총에 대한 비판은 상대적으로 적어 편파적으로 느껴진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하는 시기이므로 특정 집단에 대한 비판을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2월 15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아이즈원의 출연 반대 청원에 대한 제작진의 답변을 읽었다. 아이즈원은 KBS 심의 규정에 저촉되는 바가 없어 출연 규제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논란이 많은 상황을 감안하여 1016회 방송에 한해 캐스팅한다는 답변이었다. 출연 규제자 명단에 포함되진 않지만, 논란을 감안해 1회만 출연시킨다는 답변은 납득하기 어렵다. 아이즈원의 해당 방송 캐스팅과 관련한 결정을 재고해주기 바란다. <2월 24일 보고서>

○ 2TV 「무한리필 셀러드」'사건 재구성'

- 이번 '사건 재구성' 코너에서는 '집단감염의 비밀, 신천지 특집'을 다뤘다. 본인은 신천지 교인인데, 이날 관련 전문가로 출연한 윤재덕 종말론사무소 소장이 일방적으로 신천지를 비난해서 안타까웠다. 또한 신천지를 탈퇴한 사람들의 인터뷰만 보여준 점도 공정하지 않게 느껴졌다. 신천지 교인의 입장도 다뤄주었더라면 더 공정한 방송이 되었을 것 같다. <3월 19일 보고서>

○ 2TV 「2020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 두산:KT」'고척'

-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두산 베어스와 KT 위즈의 경기가 열렸다. 그런데 김현태 아나운서를 비롯한 해설진이 KT를 응원하는 분위기로 해설을 이어가 시청자 입장에서 불편함을 느꼈다. KT 선수들이 등장하면 멘트도 길고 해설도 많아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앞으로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설해주기 바란다. <11월 12일 보고서>

○ 2TV 「2020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3차전」'NC:두산-고척'

-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두산 베어스와 NC 다이노스의 한국시리즈 3차전이 열렸다. 두산이 역전에 역전을 거듭한 끝에 승리를 거둬 굉장히 짜릿하게 시청했다. 그러나 해설위원들이 특정 팀에 우호적인 해설을 펼쳐 시청 내내 불편한 마음이 들었다. 앞으로는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설해주기 바란다. <11월 23일 보고서>

○ 1R 「김용민 라이브」

- 다양한 분야의 상식을 쌓기 위해 해당 방송을 자주 청취한다. 그런데 진행자 김용민 씨가 과거 여러 차례 여성 혐오성 발언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 또한 공정하지 않은 진행을 하는 점도 고쳐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진지하고 공정한 진행을 부탁한다. <2월 10일 보고서>

○ 1R 「김성완의 시사夜」

- 그날그날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정리해주어 매일 밤 하루를 마감하며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시사평론가 김성완 씨의 안정적인 진행이 프로그램에 대한 집중도를 높인다. 다만 김성완 씨가 너무 현 정부와 여당 입장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점이 듣기 불편하다. 앞으로는 공정하게 진행해주기 바란다. <2월 12일 보고서>

○ 1R 「김용민 라이브」

- 이날은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론 쾌거를 전하며 시작됐다. 이어 진행자가 "봉준호 감독과 송강호 배우, 이미경 CJ 그룹 부회장,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라고 언급했다. '기생충'의 수상은 우리나라의 국격을 높인 경사스러운 일인데, 굳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점이 듣기 불편했다. <2월 13일 보고서>

○ 1R 「김경래의 최강시사」‘한명숙, 양심의 법정에선 무죄’

- 2015년 대법원 판결로 유죄가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위증 교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김현 사무부총장이 출연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해 이야기 나눴는데, 이미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사건에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 청취자 입장에서 너무 불편했다. 또한 한명숙 전 총리를 변론하기 위한 방송 같아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5월 28일 보고서>

○ 1R 「주진우 라이브」“인국공’사태 청년 커뮤니티 여론은?”

- 정치유튜버 황희두 씨가 출연해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그런데 진행자와 패널이 ‘인국공 사태’에 대한 청년들의 분노를, 언론이 갈등을 조장한 탓도 있다는 식으로 설명해서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또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를 비난해서 가슴 아프다”는 패널의 발언도 듣기 불편했다. <7월 2일 보고서>

○ 1R 「김경래의 최강시사」‘돌봄전담사 오늘 파업, 초등 돌봄에 학교가 빠진다고요?’

- 이날 전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하루 파업에 나섰다. 그래서 해당 소식을 전하던 중, 진행자가 ‘돌봄전담사’가 아닌 ‘돌봄교사’로 호칭해서 듣기 불편했다. 돌봄은 교육이 아닌 보육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돌봄교사’라는 호칭은 청취자들에게 자칫 잘못된 인식을 줄 수 있다. 또한 돌봄전담사의 입장만 다룬 점도 편파적으로 느껴졌다. <11월 9일 보고서>

○ 1R 「14시 뉴스」

- 지난 19일에 방송된 KBS 1라디오 오후 2시 뉴스에서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가 여당 측에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생략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관련 기사를 원고대로 읽지 않고,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임의로 생략해 읽었다는 것이다. 공정해야 할 뉴스의 진행자가 이런 행동을 해서 실망스러웠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 <12월 24일 보고서>

6. 사실성

○ 1TV 「우리말 겨루기」

- 재미있는 퀴즈와 대결 구도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고마운 프로그램이다. 항상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자막에 ‘틀린 단어’가 ‘틀리 단어’라고 잘못 표기되어 당황스러웠다. 우리말 지킴이 운동에 앞장서는 프로그램이므로, 앞으로는 자막 표기에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1월 22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우한 폐렴’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그래서 이날 방송에서 진행자가 “우한에서 국내 입국 14일 이내에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그런데 진행자는 콜센터 번호를 1339로 알려주었으나, 자막에는 1399로 표기되어 혼란스러웠다. 중요한 정보이므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1월 28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

- 이날 뉴스가 시작되기 전, 하단의 스크롤 자막을 통해 정부가 우한 지역의 우리 교민 7백여 명을 데려오기 위해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그런데 탑승자들에 대해 철저한 검역을 진행할 방침이라는 부분에서 '철거한 검역'이라는 오타가 있었다. 앞으로는 자막에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1월 30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코로나19 확진자 46명 추가 총 602명'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코로나19의 감염증 확산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 해소와 학생 안전 보호를 위해 전국 단위의 신학기 개학을 연기한다는 보도를 보았다. 그런데 바로 다음 하단에 '교육부 '전국 단위 개학 연기 계획 없어''라는 자막이 나와서 혼란스러웠다. 자막에 오류가 없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2월 25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 이날 광주의 한 식당에서 60대 남성이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서 12시 뉴스에서도 해당 사건을 다뤘는데, 앵커는 용의자에 대해 "64살 남성 A씨"라고 설명했으나 하단의 자막에는 '50대 용의자'로 표기해 혼란스러웠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4월 22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화요초대석'

- 이날은 TV조선의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가수 류지광 씨, 나태주 씨가 출연했다. 그런데 2009년에 '미스터 코리아'를 수상한 류지광 씨와, 2018년에 '세계 태권도품새 선수권대회'에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나태주 씨의 이력을 소개하던 중, 자막에 '재패'라는 단어가 표기 됐다. '재패'는 다시 패한다는 뜻으로, 이 상황에서는 '제패'라고 표기해야 한다. 자막에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5월 6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글로벌 브리핑] 中·몽골, 코로나 이어 흑사병까지..3명 확진'

- '글로벌 브리핑' 코너에서, 몽골에서 아직 코로나도 잡히지 않았는데 흑사병 환자까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런데 자막에 '흑사병'이라고 잘못 표기 됐다. 추후에는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7월 8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도전! 꿈의 무대'

- 수요일 코너인 '도전! 꿈의 무대'를 굉장히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이날도 다섯 명의 출연자들의 사연과 노래를 들을 수 있어 즐거웠다. 그런데 출연자 중 나현재 씨의 나이 정보가 명찰(69세)과 자막(48세)에 다르게 표기되어 혼란스러웠다. 앞으로는 자막 표기에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7월 9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직장 갑질 금지법 시행 1년, 무엇이 달라졌나?'

- '직장 갑질 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그래서 이날 박정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이 출연해, 해당 법 시행 후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그런데 최근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갑질 사례를 설명하던 중 '코로나19 고용안전지원금'으로 휴직급여 90%를 국가 지원 받아도 무급휴직 강요'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고용안전지원금' 혹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다. <7월 20일 보고서>

○ 1TV 「특집 KBS 뉴스 7」

- 섬진강 유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섬진강댐이 방류량을 늘렸는데, 제방 백 미터 정도가 무너지며 주변 마을이 물에 잠긴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하단 자막에 '중부지방에 ㄱ도 강하고 많은 비 예상'이라고 오타자가 표기됐다. 특보를 급히 전달하느라 오타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 오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8월 10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

- 이날도 스포츠 신문 기사를 비롯해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일반인들이 우리말 달인에 도전했다. 방송 중반에 조인식 도전자가 '고장난 벽시계'를 열창했는데, 자막에 해당 노래의 원곡자로 조용필 씨가 표기됐다. 해당 노래의 원곡자는 나훈아 씨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9월 9일 보고서>

○ 1TV 「뉴스특보」

-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질병관리청 직제 제정안이 의결되면서, 12일자로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그런데 방송 하단에「뉴스특보」가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는데, 여전히 질병관리본부로 표기되어 있다. 빠른 시간 안에 질병관리청으로 자막을 수정해주시기 바란다. <9월 15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바다 우등생 봉 선장'

- 서울에서 직장에 잘 다니다가, 고향으로 내려와 어부가 된 이봉국 씨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다. 이날 이봉국 씨가 처가인 '전라남도 영암군'을 찾는 내용이 방영됐는데, 자막에 '전라북도 영암군'이라고 표기됐다. 앞으로는 지역 표기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11월 6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KBS 뉴스 9」'탐사K 홍수 위험 경고 외면...속타는 주민들'

- 충주시가 명서리를 포함해 산척면 일대 18곳을 홍수대비 사업 지역으로 지정했으나, 사업이 시행된 곳은 한 곳도 없음을 고발한 보도였다. 그런데 투자 우선순위가 높은 곳 중 하나로 '충주시 흥덕구 복대동'이 표기되었는데, '흥덕구 복대동'은 충주시가 아닌 청주시에 위치해있다. 지역명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12월 3일 보고서>

○ 2TV 「송년특집 코미디의 전당 - 전설」

- 「코미디의 전당」2편에서는 '봉숭아 학당'을 이끌었던 원조 맹구 이창훈 씨를 집중 조명했다.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맹구 캐릭터를 다시 볼 수 있어 즐거웠다. 그런데 개그맨들이 배우 흉내를 내는 장면에서, 현재 생존해계신 이대근 씨에게 '배우故 이대근'이라는 자막이 사용되어 당황스러웠다.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2TV 「2019 KBS 연기대상」

- 이날「2019 KBS 연기대상」시상식이 열렸다. 지난 한 해 동안 KBS 드라마를 재미있게 시청했기에, 어떤 배우가 수상의 영예를 안을까 궁금해 하며 해당 방송을 시청했다. 그런데 새해로 넘어갈 무렵, 화면에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자막이 표기되어 당황스러웠다. 연기대상은 큰 행사이고 중요한 방송인데 이런 실수가 벌어져 안타깝다. <1월 2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급식농가 돕자! 착한소비 확산'

- 코로나19로 초·중·고등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학교급식에 농산물을 공급해 온 농가들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 이런 시기에 천안의 한 매장에서 판로가 막힌 급식농산물을 판매한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해당 매장에서 농산물을 구매하는 시민의 인터뷰를 보여주며 '일부로'라는 자막을 사용했다. '일부러'가 옳은 표현이니,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3월 19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 귀엽고 우애가 좋은 윌리엄·벤틀리 형제를 좋아한다. 그런데 벤틀리가 어려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다. 특히 윌리엄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녕"이라고 부를 때가 많다. 그런데 자막에도 "녕"이라고 표기되는 점이 보기 안 좋다. 해당 프로그램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도 많이 시청하므로 올바른 자막 표기에 신경써주기 바란다. <6월 23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한국 가요계의 여왕, 하춘화'

- 한국 가요계의 여왕이라 불리는 하춘화 씨가 출연했다.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하춘화 씨가 '내 인생의 노래 TOP 3'로 '영암 아리랑'을 꼽았다. 이어 그 덕분에 영암에 트로트 센터를 개관했다고 설명했는데, 자막에 '강원도 영암'으로 표기됐다. '강원도 영암'이 아닌 '전라남도 영암'이므로 주의해주기 바란다. <8월 20일 보고서>

○ 2TV 「연중 라이브」'연중 챌린지'

- 지난 25일, 영화 '이웃사촌'이 개봉했다. 그래서 이날 방송에서 '이웃사촌'의 주연 배우들인 정우 씨, 김희원 씨, 김병철 씨, 이유비 씨를 만나보았다. 그런데 화면 좌측 상단에 김희원 씨의 이름이 계속해서 김원희로 적혀 있어 보기 안 좋았다. 배우 이름을 정확하게 기재해주기 바란다. <11월 30일 보고서>

○ 기타 「한국가스안전공사」

- 이날 「한국인의 밥상」재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 도중 설 연휴에 집을 비우기 전 지켜야 할 안전수칙이 하단의 자막으로 안내되었는데, '주시기 바랍니다'가 '주시시 바랍니다'로 잘못 표기되어 있었다. 앞으로는 사소한 실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자막 표기에 더욱 신경써주기 바란다. <1월 28일 보고서>

| 7. 프로그램 호평 |

○ 1TV 「특집 KBS 뉴스광장」

- 하루의 시작을 「KBS 뉴스광장」과 함께 한다. 밤사이 발생한 뉴스와 각종 생활정보 등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해주어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 2020년에도 계속해서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에 힘써주길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1TV 「신년기획 생로병사의 비밀」'시간을 거스른 사람들, 슈퍼에이저'

- 국내외를 넘나들며 활기차게 생활하는 슈퍼에이저들을 만나보고, 최신 의학 연구를 통해 건강하게 장수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늘 슈퍼에이저들이 젊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궁금했는데, 해당 방송을 통해 장수의

비결을 알게 되어 만족스럽다. 2020년에도 시청자들의 건강과 희망찬 노후를 위해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1월 3일 보고서>

○ **1TV 「신년기획 사랑의 가족」‘당신 손 놓지 않을게요’**

- 평소에도 해당 방송을 시청하지만, 이날 방송은 특히 감명 깊게 시청했다. 시각장애 아내가 남편의 헌신적인 사랑으로 마라톤을 해내고, 철인 3종 경기를 완주하는 모습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하루아침에 시각을 잃은 아내를 다시 일으켜준 남편의 사랑 이야기를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1월 6일 보고서>

○ **1TV 「신년기획 다큐세상」‘우주, 지구, 그리고 나’**

- 이날은 우주탐사의 새로운 시대를 연 보이저호의 위대한 여정을 보여주었다.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인류의 모험정신이 문명을 이루고, 신대륙을 발견했으며, 지구 너머의 세상까지도 개척하고자 했다는 것을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우주의 신비에 빠져들게 하는 유익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해주어 감사하다. <1월 6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설 중소기업·상인 신규 자금 36조 원..고속도로 통행료 ‘공짜’**

- 정부가 발표한 설 민생 안정대책을 종합해서 알려주었다. 특히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점과, KTX 역귀성·귀경은 3~40% 정도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유익했다. 늘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주어 감사하다. <1월 9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9」[국회감시K] 의원과 상③ “200만 원 내고 상 받았습시다”**

- 지난 6일부터 연말연시에 국회의원들이 받는 상의 이면을 파헤쳤다. 의원들에게 상을 주는 수많은 단체와 언론사들이 무슨 돈으로 무슨 목적으로, 그리고 무슨 기준으로 이런 상을 주는지에 대해 기자정신으로 끝까지 취재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앞으로도 KBS에서 정치 개혁에 대한 언론의 목소리를 내어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공포, 대책은?’**

- 전문가 패널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바이러스의 실체를 정밀 진단하고, 감염경로와 확산을 차단할 대응책을 모색해주어 굉장히 유익했다. 3차 감염자가 나오며 국민들의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 해당 주제로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2월 3일 보고서>

○ **1TV 「다큐멘터리 3일」‘눈꽃 피는 탄광마을 - 함백산 만향재 72시간’**

- 국내에서 자동차 포장도로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만향마을의 72시간을 보여주었다. 현재는 40가구, 70여명만 남은 작은 폐광촌이 된 마을이지만, 주민들끼리 나누는 따뜻한 정이 보기 좋았다. 함백산의 아름다운 설경과, 그 속에서 살아가는 만향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주어 감사하다. <2월 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 12」‘영화 ‘기생충’ 美 아카데미 각본상 수상’**

-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헤드라인으로 다뤄졌다. ‘기생충’이 아카데미가 할리우드 위주라는 고정관념을 깨트렸다는 점에 자부심을 느꼈다. 또한 아카데미 시상식 장을 연결해서 생생한 현지 분위기를 전해준 점도 좋았다. 즐거운 소식을 전해주어 감사하다. <2월 11일 보고서>

- **1TV 「아카데미 수상 특집 영화 ‘기생충’ 세계를 매혹하다」**
 -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제 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장편영화상을 수상했다. 그래서 KBS에서 ‘기생충’과 봉준호 감독을 다룬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편성해주어 재미있게 시청했다. 한국영화의 역사를 새로 쓴 ‘기생충’의 쾌거를 다뤄주어 감사하다. <2월 12일 보고서>
- **1TV 「다큐세상」‘씹어야 산다’**
 - 한국인의 평균 식사 시간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의 절반 이상은 10분 이내에 식사를 끝낸다고 한다. 빠른 식사는 음식을 덩어리째 삼키게 해서 건강에 좋지 않다. 그래서 이날 우리보다 앞서 구강 건강 제도를 정착시킨 의료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를 확인했다. 천천히 하는 식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유익한 방송이었다. <2월 17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긴급르포 - 신천지는 어떻게 ‘슈퍼전파자’가 되었나’**
 - 국내 코로나19의 슈퍼전파자가 되어버린 신천지에 대해 파헤쳤다. 발원지로 알려진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데, 신천지에 대해 KBS에서 발 빠르게 취재해주어 유익했다. 정부의 통제권을 벗어난 신천지의 실태를 알려주어 감사하다. <3월 2일 보고서>
- **1TV 「특집 KBS 뉴스광장」‘마스크 부족에..시민들이 직접 ‘천 마스크’ 만든다’**
 -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마스크 착용이 중요한데, 정작 마스크를 구하기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이날은 천 마스크 제작에 나선 시민들의 소식을 전해주었다.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며 너무 불안했는데 희망을 주는 보도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유익한 보도를 부탁한다. <3월 5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공사 창립 특집 우리말 겨루기’**
 - 월요일 저녁마다 유익한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우리말 겨루기」를 꼭 시청한다. 이날은 KBS의 마흔 일곱 번째 생일을 맞아 트로트 가수 윤수현, 개그맨 송준근 등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패널들이 출연해 더욱 재미있었다. 최근 코로나 사태로 해당 프로그램이 자주 결방되어 서운했는데, 이날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방송을 제작해주어 무척 감사하다. <3월 11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라이브」‘코로나19 집단감염 비상 방역 대책은?’**
 -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해서 국내 코로나19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해주었다. 두 전문가가 국내 상황이 안정적으로 접어들었으나,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명확하게 정리해주어 마음이 놓였다. 매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더불어 이날은 희망적인 소식까지 전해주어 감사하다. <3월 16일 보고서>
- **1TV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화산섬 초록덮개 거문오름’**
 -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과, 벵뒤굴-웃산전굴-만장굴-김녕굴-용천-당처물-남지미동굴 등 14km 구간을 보여주었다. 현재 코로나19로 여행은 물론이고 외출조차 자유롭지 않은데, 방송을 통해서나마 광대한 용암대지를 보니 눈이 시원해지는 기분이었다. 코로나19 사태로 우울한 시청자들에게 기분전환이 되는 아름다운 풍광을 보여줘서 감사하다. <3월 26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7000회 특집’**
 - 1991년 5월에 첫 막을 열었던 「6시 내고향」이 이날 7,000회를 맞이했다고 한다. 그동안 고향의 어르신

들과 함께 호흡하며 7,000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니 시청자 입장에서 감회가 새로웠다. 늘 각박한 도시인들에게 따스한 고향 소식을 전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겹고 따뜻한 방송을 만들어 주기 바란다. <4월 1일 보고서>

○ 1TV 「한국인의 밥상」'흙에 살어리랏다'

- 이날의 주제는 '아낌없이 내어주는 흙'으로, 봄나물을 넣어 만든 냉이콩탕과 달래장떡 그리고 막장칼국수까지 강원도 홍천 지역의 봄맞이 밥상을 소개했다. 코로나19로 봄을 느낄 여유가 없었는데, 강원도 홍천 사람들의 힘찬 봄맞이를 시청하며 기분전환이 됐다. 이번 주에도 아름다운 영상과 깊이 있는 취재를 통해 강원도 지방의 대표음식들을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4월 6일 보고서>

○ 1TV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0 총선」

- 15일에 진행되었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를 KBS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았다. 깔끔한 진행과 정치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덕분에 늦은 시간까지 즐겁게 시청할 수 있었다. 기본기에 충실한 품격 있는 개표 방송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4월 17일 보고서>

○ 1TV 「UHD 숨 터」'나를 깨우네 매화 향기'

- 전남 장성에 위치한 백양사를 소개했다. 백양사에는 천연기념물 제 486호인 고불매가 있는데 향기가 십 리를 가고 수령은 약 350년이 됐다고 한다. 영상을 통해 보는 고불매가 너무 아름다워서 마음이 저절로 치유되는 기분이었다. 치열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프로그램 제목처럼 잠시나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좋은 방송이다. <4월 24일 보고서>

○ 1TV 「제41회 근로자 가요제」

-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에만 만날 수 있는 「근로자 가요제」를 올해도 재미있게 시청했다. 더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근로자들이 무대에 올라 숨겨왔던 노래 실력을 뽐내는 모습이 그 어느 때보다 보기 좋았다. 코로나19로 우울했는데 즐거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기분 좋았고, 내년 '근로자 가요제'도 기대하겠다. <5월 4일 보고서>

○ 1TV 「야생여정」'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

- 이날의 주제는 '생명을 키워내며 흐르는 강'으로, 갯벌 생물과 새들의 고향이 되는 강의 이야기를 조망했다. 산란을 위해 섬진강을 거슬러 오르는 황어와, 모래에서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꼬마물떼새 등을 보며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리고 이상협 아나운서의 친절한 설명이 방송에 대한 흡입력을 높였다.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5월 8일 보고서>

○ 1TV 「도전, 골든벨」'스페셜 5'

- 1,000회를 맞아 지난 5주간 특별한 방송을 준비해왔는데, 이날 마침내 스페셜 대장정의 마지막 편이 방영됐다. 김홍성-김보민 아나운서가 특별 출연해서 지난 20년의 방송 동안 황당한 순간들과 별별 이색 특집 모음 등을 보여주었는데 너무 재미있었다. 학생뿐 아니라 전 연령대가 함께 시청할 수 있는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계속해서 장수 프로그램으로 남아 시청자와 함께해주기 바란다. <5월 12일 보고서>

○ 1TV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점으로 채운 공간'

- 한 주간의 공연예술과 문화정보를 다양하고 재미있게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세밀한 펜으로 종이에 점을 찍는 독특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화가 박자현 씨의 작품을 소개했다. 점으로 화면을 채

워나가는 방식이 신선했고, 방송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예술을 접할 수 있어 유익했다. 앞으로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프로그램이 되어주길 바란다. <5월 21일 보고서>

○ **1TV 「국악 한마당」‘입과손 스튜디오’**

- 국악을 좋아하여 토요일마다 이 방송을 즐겨 시청하고 있다. 방송을 통해 듣는 맑고 청아한 국악의 소리가 삶에 활력을 준다. 이날은 소리꾼과 고수 3명이 재해석한 동시대형 완창 판소리 '강산제 수궁가'를 입과손 스튜디오의 무대로 함께 했는데, 덕분에 풍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국내 최장수 국악 전문 프로그램으로 오래도록 시청자와 함께 해주기 바란다. <5월 25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스페셜14편’**

- 일반인 출연자가 노래 실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스페셜 방송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날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이라는 주제로 방송됐는데, 모처럼 외국인들의 무대를 보니 무척 재미있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주어 감사하다. <6월 2일 보고서>

○ **1TV 「다큐멘터리 3일」‘천상의 화원을 거닐다 강원 인제 곰배령 72시간’**

- 설악산 대청봉과 마주하는 점봉산 남쪽 자락의 넓은 초원 지대 '곰배령'의 72시간을 보여주었다. 놀라운 사실은 이곳에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20%가 서식한다는 점이다. 그래서인지 다양하게 핀 야생화들이 지천으로 널린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운 시기에 힐링이 되는 좋은 방송이었다. <6월 5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갑상선 흑의 두 얼굴’**

- 우리나라가 갑상선암 발생률 세계 1위라고 한다. 그래서 갑상선 초음파 과잉 진료 논란이 일어나는 등, 환자들이 너무 혼란스럽다. 그런데 이날 갑상선 암과 흑에 대한 진단 기준과 치료 방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주어 막연한 불안감이 다소 해소됐다. 늘 각종 질병에 대해 시청자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감사하다. <6월 19일 보고서>

○ **1TV 「6.25 전쟁 70주년 기획 아침마당」**

- 이날 방송은 6.25 전쟁 70주년 기획으로 진행됐다. 주제는 '그 시절 마음을 울린 우리 노래'로, 작곡가 이호섭 씨가 출연해서 전통 가요의 역사적 상징을 소개했다. 특히 우리나라 전통가요인 트로트의 역사적 맥락과, 최근 트로트 열풍의 원인을 분석해주어 흥미로웠다. 뜻깊은 날에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6월 26일 보고서>

○ **1TV 「인간극장」‘동갑내기 영농일기’**

- 충북 괴산의 시골마을에서 소를 키우며 살아가는 스물셋 동갑내기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학생 신분으로 일찌감치 엄마-아빠가 되었지만, 부모님의 축사를 이어받아 열심히 일하면서 아들도 키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귀감이 될 수 있는 젊은 부부의 사연을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7월 2일 보고서>

○ **1TV 「시사 직격」‘배달앱의 두 얼굴 - 누가 이 공룡을 키웠나’**

- 이날은 음식 배달앱들이 가진 문제점을 조망했다. 본인도 배달앱을 즐겨 사용하기에 관심 있게 시청했다. 배달앱이 소비자와 점주의 직접적인 연결을 막고, 가게의 단골은 사라지고 배달앱의 단골만 늘어나

는 시스템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다. 해당 방송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알게 되어 다행스럽고, 하루빨리 플랫폼과 점주들의 상생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 <7월 13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팬데믹의 시대, 당신에게 녹색을 처방합니다’**

- 시청자들에게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의학 정보를 심층적으로 다루어 매주 빠짐없이 시청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휴식이 필요한 도시인들을 위한 처방전으로 숲을 제시하고 감정 치료제인 녹색 식물 등을 다루어 주어 잠시라도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다. 숲으로 가서 인생과 일상을 바꾸며 건강을 되찾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팬데믹 시대에 지친 도시인들의 일상을 깨우는 유익한 방송이었다. <7월 17일 보고서>

○ **1TV 「정전협정 67주년 특집 D선상의 아리아」**

- 해당 방송은 전쟁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뮤직 다큐멘터리다. 6.25 전쟁으로 고아가 된 어머니를 둔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의 사연을 다뤘는데, 무척 감동적이었다. 전쟁의 아픔을 겪은 이들뿐 아니라, 전쟁 이후를 살아가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도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7월 29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슬기로운 목요일’**

- '언제나 청춘 프로젝트 동안이시네요'를 주제로 한 강연이 공개됐다. 각 분야의 전문의 두 명과 헤어디자이너가 출연해서 탈모 예방법, 피부 관리법, 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는 헤어 연출법을 소개해주었는데 굉장히 유익했다. 누구나 자신의 나이보다 어려 보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젊게 보이는 비법을 가르쳐주어 감사하다. <7월 31일 보고서>

○ **1TV 「우리, 다시 호프 프롬 코리아스페셜」**

-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서 이날 대한민국 최고의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모여 아름다운 공연으로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최근 유례없는 트로트 열풍으로 TV만 틀면 트로트가 흘러나와 피로도가 높았는데, 세계적인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만들어내는 희망의 하모니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8월 4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중부지방 집중호우’**

- 긴 장마와 연이은 집중호우로 전국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 앞으로도 많은 비가 예보된 만큼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서 실시간으로 뉴스특보를 편성하여 현재 상황과 전망을 분석해주어 든든하다. 계속해서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전달해주기 바란다. <8월 6일 보고서>

○ **1TV 「KBS 중계석」‘KBS 교향악단 특별연주회 영웅을 그리다’**

- KBS 교향악단이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한 '영웅을 그리다' 연주회를 방영해주었다. 성기선 지휘자의 지휘로 베토벤의 명곡 세 곡을 선보였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연주회장을 찾지 못했던 터라 그 어느 때보다 감동적으로 시청했다. 문화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매주 좋은 공연을 방영해줘서 감사하다. <8월 14일 보고서>

○ **1TV 「광복절 특집 백두산 항일투쟁사」**

- 올해 광복 75주년을 맞아 KBS에서 우리 역사를 돌아보는 특집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백두산 중심의 항일 투

쟁 역사를 다뤘는데, 덕분에 수업시간에 배우지 못했던 역사와 백두산 시공간에 담겨 있는 숨겨진 이야기들을 많이 알게 됐다. 항일열사들의 용기와 희생정신을 기리는 뜻깊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8월 18일 보고서>

○ 1TV 「KBS 시청자 주간 우리 함께, 그 기억」

- KBS에서 시청자 주간을 맞아 텔레비전의 역사를 보여주었다. 특히 1983년도에 방송되어 무려 1만 189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던 KBS 특별생방송「이산가족을 찾습니다」를 보며 방송의 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됐다. 더불어 텔레비전이 귀했던 시절의 향수를 느낄 수 있어 감격스러웠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9월 7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태풍 하이선’

- 제10호 태풍 하이선이 한반도에서 빠져나갔다. 지난여름 태풍 장미를 시작으로, 태풍 바비, 태풍 마이삭, 그리고 태풍 하이선에 이르기까지 무려 4개의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갔는데, 그때마다 KBS에서 실시간으로 뉴스특보를 편성하여 태풍의 상황 및 전망을 분석해주어 든든했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어 감사하다. <9월 9일 보고서>

○ 1TV 「온택트 시민토크 코로나 시대를 말하다」

- 이종구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가 출연해서 세계 석학들과 화상으로 만나 코로나19에 대해 정확히 분석하고 정보를 제시해주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증가하고 있고, 백신 개발 관련 가짜 뉴스와 의혹이 난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유익한 방송이었고, 벌써부터 2부 방송이 기대 된다. <9월 11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

- KBS에서 청와대 녹지원에서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라는 이름으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을 중계해주었다. 방탄소년단(BTS)이 청년 대표로 참석해 청년에 대한 지지와 격려를 부탁하는 연설을 해서 의미 있게 시청했다. 또한 젊은 거장 임동혁 피아니스트의 축하 공연을 볼 수 있어 즐거웠다. 뜻깊은 행사를 생중계해주어 감사하다. <9월 21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신종 전염병과 경제’

-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 그래서 이날은 방역과 경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진단해보았다. 그 예로 비대면 방식으로 자기 변신을 꾀하는 업체들을 소개했는데, 그 참신한 아이디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전염병이 일상화되는 상황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안정적인 의료 자원을 확보하고 경제 활동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해준 유익한 방송이었다. <9월 28일 보고서>

○ 1TV 「2020 추석장사 씨름대회」‘한라장사’

- 강원도 영월군 영월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0 추석장사 씨름대회를 시청했다. 군입대를 앞둔 최성환 선수가 입대 전 마지막으로 참가한 대회를 우승으로 마무리하는 장면이 감동적이었다. 최근 씨름이라는 종목이 대중들의 눈에서 벗어나 소외되고 있었는데, 해당 방송을 통해 박진감 넘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고 씨름이라는 종목을 재발견 할 수 있었다. <10월 5일 보고서>

○ **1TV 「추석특집 다큐멘터리 청산도로 간 물사람들」**

- 전라남도 완도에서 뱃길로 50분쯤 가면 나오는 작은 섬 청산도와, 도시생활을 정리하고 섬에 살기 시작한 물사람 홍혜정 씨를 조명했다. 청산도는 토박이와 외지인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곳인데, 홍혜정 씨는 그중 외지인으로 마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이 시대 고향의 모습과 공동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 수 있었다. 추석 연휴에 감명 깊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0월 5일 보고서>

○ **1TV 「남북이산가족을 위한 열린음악회」**

- 한가위 명절의 마지막 날, 이산가족 대면 상봉 20주년을 맞아 남북이산가족을 위한 방송이 진행됐다. 특히 일부 이산가족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화상으로 방송에 동참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양희은 씨, 남상일 씨, 송가인 씨 등 유명한 가수들의 위로 무대도 감동적이었다. 추석 마지막 날에 뜻깊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0월 6일 보고서>

○ **1TV 「한글날 특집 백일장 콘서트 노래를 짓다」**

- 백일장과 토크쇼, 콘서트가 하나로 합쳐진 신개념 백일장 콘서트를 자녀와 함께 시청했다. 한글날을 맞아 우리말의 가치를 되새겨보기 위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랫말 공모를 실시했다는 점이 유익하고 신선했다. 노래와 퀴즈를 매개로 한글의 매력과 아름다움을 깨닫게 해주어 감사하고, 공영방송에서 이런 유익한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제작해주기 바란다. <10월 12일 보고서>

○ **1TV 「청산리전투 100주년 특별기획 그때 우리는 하나였다」**

- 우리나라 무장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청산리 전투'가 100주년을 맞았다. 그래서 이날 청산리 대첩을 조명한 특별기획 방송이 방영됐는데, 민족의 주체를 지키고자 일제와 싸워 승리를 거둔 역사에 가슴이 뭉클했다. 35년간의 일제 치하에서 우리민족에게 가장 빛나는 승리를 안겨준 전투와, 그 전투를 승리로 이끈 김좌진 장군을 조명해주어 감사하다. <10월 26일 보고서>

○ **1TV 「동행」'동행(同行)은 동행(同幸)입니다'**

- 이날은 방송 이후 관심과 나눔이 모여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세 가족들의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시청자들의 정기후원을 통해 긍정적으로 변화된 모습을 보니 뿌듯하고 감회가 새로웠다. 이웃에게 건넨 작은 관심이 그들에게 새로운 용기가 될 수 있음을 가르쳐준 「동행」제작진에게 감사인사를 전한다. <11월 2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전태일 50주기 기획, 노동자는 안전한가?'**

-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산업재해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대안 마련에 대해 토론했다. 이 토론을 시청하며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처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고, 매일 5~6명의 노동자가 귀중한 생명을 잃고 있는 현실에 답답함을 느꼈다.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산업 안전 문제에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 <11월 16일 보고서>

○ **1TV 「전국노래자랑 연말특집 전국가수노래자랑」**

- 코로나19로 인해 무대에 서지 못하는 가수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전국가수노래자랑'이 이날 막을 내렸다. 전국에 분포한 실력파 가수들과 원로가수들이 대거 출연했는데, 이날은 특히 좋은 노래가 많이 나와서 즐겁게 시청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청자들에게 감동과 위안을 주는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어 감사하다. <12월 29일 보고서>

○ 2TV 「KBS 경제타임」『사슴 태반’ 즐기세포 캡슐 33억여 원 밀수 적발』

- 복용이 금지된 사슴태반 즐기세포 캡슐을 밀수입하던 업자들이 적발됐다는 보도를 보았다. 왜 사슴태반 즐기세포의 복용이 금지됐는지 궁금했는데, 해당 보도에서 사슴태반의 식품 원료 사용은 허용하지만 즐기세포와 같은 특정 성분을 분리해 판매하는 것은 안전상 문제로 금지한다는 설명을 곁들여주어 도움이 됐다. 정확한 보도와 상세한 설명에 감사드린다. <1월 16일 보고서>

○ 2TV 「살림하는 남자들」

- 갑자기 입원한 율희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최민환 가족의 이야기와, 배우 김승현과 장정윤 작가의 결혼식 현장이 공개됐다. 특히 결혼식에 ‘살림남’의 다른 가족들이 찾아와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신세대 남편부터 노년의 남편까지, 남자들의 리얼 살림기로 시청자들에게 늘 즐거움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1월 31일 보고서>

○ 2TV 「고립낙원」『신비로운 핀란드 가족의 겨울동화』

-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있는 숲과 호수의 나라 핀란드에서 자연의 속도에 맞춰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자유인 가족을 소개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던 중,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힐링할 수 있었다. 자신만의 낙원을 건설한 자유인들의 삶을 통해 본인의 삶을 성찰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2월 20일 보고서>

○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 이날 「신상 출시 편스토랑」의 1차 기부금이 공개됐는데, 그중 일부 금액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혀 고마웠다. 해당 프로그램의 장점이 소비가 기부로 연결되는 점인 것 같다. 다섯 명의 ‘편세프’들의 남다른 열정과 요리 실력도 재미를 더한다. 앞으로도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 착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2일 보고서>

○ 2TV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스파이 야생 대탐험」

- 최신 카메라 기술로 무장한 스파이들이 무더운 열대 지방, 북쪽 나라들, 남쪽 바다의 섬들, 눈과 얼음에 뒤덮인 극지 등에서 촬영한 다양한 동물의 삶을 보여주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외출을 하지 못했는데, 해당 방송에서 신비하고 경이로운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어 기분 전환이 됐다. 마음에 위안을 주는 정서적이고 따뜻한 방송을 보여주어 감사하다. <3월 25일 보고서>

○ 2TV 「KBS 경제타임」

- 방송을 놓치지 않기 위해 귀가시간을 앞당길 정도로 「KBS 경제타임」을 열심히 시청하는 시청자이다. 이날도 긴급재난지원금 소득하위 70%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등, 시청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었다. 늘 소비자의 입장에서 방송을 제작하기 때문에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4월 2일 보고서>

○ 2TV 「KBS청소년 특별기획 특선다큐 르네상스의 거장들」

- 르네상스 거장들의 탄생 과정을 사실적으로 재연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통해 르네상스 예술의 정수를 맛볼 수 있었던 프로그램이다. 현재 코로나19로 개학이 연기되어 아이들이 집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마침 해당 방송이 방영되어 공부와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로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주기 바란다. <4월 2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긴급재난지원금 논란, 쟁점은?'

-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지급 대상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본인은 어떠한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것인지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날 형평성 논란과 여러 쟁점들을 짚어주어 굉장히 도움이 됐다. 자영업자들이 실질적으로 소생할 수 있는 대책이 속히 마련되길 바란다. <4월 9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가요톱10 골든컵' 특집'

- 80-90년대 KBS의 대표 음악 프로그램이었던 「가요톱10」에서는 5주 연속 1위를 기록하면 '골든컵'이 주어졌다. 이날 바로 그 '골든컵'의 주인공들이 총 출연해서 시청자들에게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골든컵 가수들의 화려한 무대를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어 감사하다. <4월 27일 보고서>

○ 2TV 「무한리필 셀러드」

- 일일 두 개의 코너, 일주일 총 열 개의 고정 코너를 고정 패널이 운영하는 색다른 형식의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마치 다양한 열 개의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는 느낌이 들어 재미있다. 또한 진행자들의 재치 있는 입담이 보는 재미를 더한다. 앞으로도 패션, 인테리어, 음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기 바란다. <5월 7일 보고서>

○ 2TV 「악인전」

- 한 많은 음악 늦둥이들이 레전드 음악인을 만나 새 프로젝트를 실현해가는 과정을 담았다. 무엇보다 요즘 최고의 인기가수 송가인 씨가 고정 출연하는 점이 마음에 든다. 특히 이날은 천재 뮤지션 헨리와 기타 전설 함춘호 씨가 함께 출연해서 음악적인 교감을 보여주었다. 계속해서 음악 늦둥이들의 도전기를 열심히 응원하겠다. <5월 25일 보고서>

○ 2TV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특선 앙코르 옥란면옥」

- 반세기 넘도록 평양냉면과 통일에 집착하는 늙은 아버지 달재(신구 분)와, 그런 아버지의 곁을 떠나지 못하는 아들 봉길(김강우 분)의 이야기를 담은 휴먼 코미디다.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도는 탈북민들의 서글픈 현실을 엿볼 수 있어 가슴 아팠다.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드라마를 방영해주어 감사하다. <6월 17일 보고서>

○ 2TV 「유네스코 가입 70주년 기념 열린음악회」

-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가입 70주년을 맞아, 그 오랜 인연을 축하하는 방송으로 꾸며졌다. 그래서인지 대중음악으로 변신한 우리전통 판소리인 수궁가를 들려주었는데, 판소리는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있는 무형유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 있었다. 현재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힘든데 유네스코 정신을 되새겨주는 좋은 방송이었다. <6월 23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2020 상반기 결산 특집'

- 2020년 상반기 우승자들의 대결을 보여주었다. 대한민국 록의 전설 김경호 씨부터 요즘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는 김호중 씨와 조명섭 씨 등 트로트 열풍의 주인공들이 대거 출연해서 기대감을 높였다. 모두 1, 2부로 나뉘어져 다음 주 방송도 무척 기다려진다. 대한민국 대표 음악 예능 프로그램으로 매주 환상적인 무대를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7월 6일 보고서>

○ 2TV 「퀴즈 위의 아이들」

- 다국적 K팝 아이돌들이 퀴즈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 퀴즈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기대를 품고 첫 방송을 시청했는데,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퀴즈로 구성이 되어있어 편안하면서도 유익하게 시청했다. 정형돈 씨와 장성규 씨의 호흡도 좋아서 보는 재미를 더한다. 앞으로 기존 아이돌 프로그램과 차별화 된 신선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7월 22일 보고서>

○ 2TV 「KBS 시청자 주간 1박 2일」

- 멤버들이 알찬 여름방학을 보내는 모습이 그려졌다. 특히 예상치 못한 제작진의 방학 숙제 검사에 당황한 여섯 멤버들의 모습이 웃음을 자아냈다. 현재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자제하고 사람들과 만나지 못해 우울한데, 방송에서 활기찬 멤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 즐겁다. 답답한 시청자들을 위해 더욱 신나고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9월 2일 보고서>

○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 배우 이효춘 씨가 남해 하우스를 찾아왔다. 이효춘 씨와 남해 식구들이 중장년 세대가 직면한 현실과 노후 고민, 외로움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을 보며 정말 많이 공감했다. 전성기를 지난 여배우들이 서로의 상처와 고민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 계속해서 재미있게 시청하도록 하겠다. <9월 11일 보고서>

○ 2TV 「영상앨범 산」'지리산 종주 2부작'

- 작가 오세진 씨와 그의 친구들이 지리산 종주길에 올랐다. 전문 산악인들에게도 쉽지 않은 코스여서 도전해보지 못했는데, 방송을 통해 장엄하고도 웅장한 경치를 감상할 수 있어 즐거웠다. 뜨겁고도 힘찬 지리산 종주의 길을 방영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국내외의 명산을 찾아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9월 14일 보고서>

○ 2TV 「추석 특집 랜선장터- 보는 날이 장날」

- 코로나19로 농산물의 판로가 막힌 농가를 위해 KBS에서 제작한 예능 프로그램이다. 대세 개그맨들이 지역민과 함께 특산물이 생산되는 현장을 체험하는 모습이 건강한 웃음을 자아내는 한편, 어려워진 지역 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있어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날 첫 방송이 되었는데, 앞으로 따뜻하고 의미 있는 방송으로 오래도록 시청자들과 함께해주기 바란다. <10월 5일 보고서>

○ 2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 방송사 최초로 3시간 동안 1부, 2부, 3부에 걸쳐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아침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다. 처음에는 3시간 동안이나 한 방송이 진행되면 지루하지 않을까 우려했다. 그러나 다양한 코너를 통해 생생한 뉴스와 이슈들, 사건사고의 현장 등을 발 빠르게 담아주어 생각보다 훨씬 재미있고 유익하다. 계속해서 시청자들을 위해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10월 14일 보고서>

○ 2TV 「랜선장터- 보는 날이 장날」

- 이날은 출연자들이 충남 금산의 특산물인 인삼과 껌잎을 판매했다. 시청자들은 방송을 통해 품질 좋은 특산물을 구매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경제는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KBS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해주어 감사하다. 장수 프로그램으로 남아 농민들에게는 농산물 판로 확보를, 시청자들에게는 품질 좋은 농산물을 제공해주기 바란다. <10월 19일 보고서>

○ 2TV 「7주년 특집 슈퍼맨이 돌아왔다」

- 7주년을 맞이해서 7명의 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그뿐 아니라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졸업한 고승재와 이시안까지 오랜만에 출연해 굉장히 반가웠다. 엄마가 없는 48시간 동안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좌충우돌 성장 스토리가 감동적이며, 계속해서 다양한 가족들의 따스한 이야기를 전해주기 바란다. <11월 10일 보고서>

○ 2TV 「트롯 전국체전」

- '글로벌 K-트로트'의 주역이 될 새 얼굴을 찾기 위한 KBS의 대형 프로젝트 프로그램이 이날 첫 선을 보였다. 여타 오디션 프로그램과 달리 역대급 스케일을 자랑해서 잠시도 눈을 땔 수 없었다. 물론 참가자들의 실력 또한 출중했고, 각자가 지닌 매력이 가득하여 너무 재미있게 시청했다. 계속해서 감동적인 무대와 풍성한 볼거리로 가득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2월 7일 보고서>

○ 2TV 「전국노래자랑 연말특집 전국가수노래자랑」

- 지난주에 이어 연말특집으로 '전국가수노래자랑' 2부가 방송됐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설 무대를 잃어버린 가수들에게 무대를 제공하고, 더불어 즐거움을 잃은 시청자들을 위로하고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어 감사한 마음으로 시청했다. 무엇보다 가수들이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색다른 모습도 보여주고, 다양한 사연도 들려주어 신선했다. '전국가수노래자랑'이 다음 주까지 이어진다고 하니 기대를 품고 시청하겠다. <12월 21일 보고서>

○ 2TV 「1박 2일」1주년 특집 프로젝트 '필 더 리듬 오브 코리아' 스페셜 편 제작기(3)

- '1주년 프로젝트 특집'의 세 번째 이야기가 그려졌다. 대한민국 홍보 영상 'Feel the Rhythm of Korea'를 위해 여섯 멤버들이 지역 선정부터 답사 진행과 프레젠테이션 준비까지 직접 참여하며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했다. 특히 김종민 씨의 활약과 예능감이 방송에 재미를 더한다. 출연진과 제작진이 힘을 합쳐 매주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12월 29일 보고서>

○ 1R 「오태훈의 시사본부」

- 오전에 있었던 주요 시사이슈들을 청취자의 눈높이에 맞춰 심층적으로 분석해주어 매일 청취한다. 딱딱한 시사나 경직된 인터뷰 대신, 전문성을 가진 각계각층의 재담가들이 출연해서 유쾌한 토크로 풀어주어 쉽고 재미있다. 청취자들이 오늘을 살피고 내일을 예측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월 7일 보고서>

○ 1R 「정용실의 뉴스브런치」

- 평일 오전마다 열심히 청취하고 있다. 여성의 시각에서 뉴스를 바라보는 몇 안 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 배울 점이 많은 방송이다. 까다로운 이슈를 다룰 때는 해설을 곁들여주어 유익하다. 앞으로도 여성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약자들에게 관심 갖는 프로그램으로서의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1R 「와이파이 삼국지」

- '삼국지'를 현대적으로 해석해 들려주는 라디오 드라마로 너무 재미있게 청취하고 있다. 지루할 수도 있는 고전을 맛깔 나는 성우의 연기로 들을 수 있는 점이 몹시 마음에 든다. 고전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동시에 재미까지 느낄 수 있는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1월 17일 보고서>

○ 1R 「최경영의 경제쇼」

- 늘 어렵게 느껴지는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어 자주 청취한다. 요일 별로 각각 다른 경제전문가들이 출연해서 세무 상담도 받을 수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다. 앞으로도 청취자들이 궁금해 하는 경제와 관련된 모든 이슈들을 친절하고 쉽게 풀어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1R 「바른말 고운말」

- 2분가량의 짧은 시간이지만, 청취자들의 바른 말 사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속담이나 관용구, 다양한 사자성어까지 배울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청취자들의 언어 순화에 이바지하는 좋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2월 5일 보고서>

○ 1R 「강원국의 '말 같은 말」

- 지난 3일, 강원국 전 청와대 연설비서관이 진행하는 「강원국의 '말 같은 말」이 시작됐다. 요즘 극단적이고 자극적인 말들이 범람하고 있는데, 해당 방송에서 품격 있는 말과 대화의 의미를 모색한다고 하여 기대가 크다. 앞으로 청취자들에게 건강한 말의 쓰임, 대화의 방법 등을 전해주기 바란다. <2월 6일 보고서>

○ 1R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 최신 트렌드를 알기 쉽게 짚어 주는 생활 밀착형 정보 프로그램으로 늘 애청하고 있다. 사람들의 욕망과 행동패턴, 라이프 스타일, 문화현상, 소비트렌드 등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어 흥미진진하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유익한 방송 제작에 힘써주길 바란다. <2월 19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 꼭 필요한 경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주어 오전 출근길에 즐겨 청취한다. 화요일에 방송되는 '경제기사 다시보기' 코너가 참 유익한데, 이날은 '경제연구소 보고서를 통해 본 코로나19의 여파' 등을 다뤄주어 도움이 됐다. 앞으로도 경제와 법률, 재테크에 이르기까지 어려운 경제정보를 명쾌하게 전달해주시기 바란다. <2월 26일 보고서>

○ 1R 「백은하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 영화와 책을 소재로 해당 작품 안에서 다채로운 지식을 찾아내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번 주에는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소개하고 있는데, 작품의 핵심 부분을 쉽고 재밌게 다뤄주어 열심히 청취하고 있다. 앞으로도 아름답고 풍요로운 책과 영화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기 바란다. <3월 18일 보고서>

○ 1R 「희망충전 대한민국」

- 해당 방송은 도움이 필요한 어린이를 돕기 위한 기금 모금과 정기 후원 독려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은 373번째 이야기가 방영되었는데, 우리 주위에 이토록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많은 줄 미처 몰랐다. 난치병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절망 속에서도 다시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너무 감사하다. <4월 9일 보고서>

○ 1R 「58분 날씨」

- 58분마다 날씨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출근 전인 오전 6시대의「58분 날씨」를 특히 애청한다. 최근 며칠간 꽃샘추위가 절정에 달했는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추위에 잘 대비할 수 있었다. 매 시간 청취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유익한 방송을 부탁한다. <4월 23일 보고서>

○ 1R 「주말 생방송 정보쇼」

- 한 주간의 시사를 정리해볼 수 있어 주말 오후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한다. 그뿐 아니라 인문, 역사, 생활 정보 등도 두루 다루주는데,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해주어 방송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늘 유익한 주제로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는 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기 바란다. <5월 4일 보고서>

○ 1R 「빅데이터로 보는 세상」

- 최신 트렌드를 알기 쉽게 짚어 주는 생활 밀착형 정보 프로그램으로 늘 애청하고 있다. 사람들의 욕망과 행동패턴, 라이프 스타일, 문화현상, 소비트렌드 등을 빅데이터를 통해 분석하고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를 들려주어 흥미진진하다.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꼭 필요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유익한 방송 제작에 힘써주길 바란다. <5월 15일 보고서>

○ 1R 「성공예감 김방희입니다 별책부록」

- 이날은 구글 최초의 엔지니어링 디렉터이자 혁신 전문가인 알베르토 사보이아가 쓴 '아이디어 불패의 법칙'이라는 책을 소개했다. 본인 또한 사업에 대한 막연한 꿈이 있었는데, 해당 방송을 통해 내가 가진 아이템이 기껏해야 공상이나 망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충격을 받았다. 스타트업을 꿈꾸는 수많은 청취자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유익한 책을 소개해주어 감사하다. <6월 1일 보고서>

○ 1R 「라디오 전국일주」

- 각 지역에 관련된 간략한 뉴스 및 다양한 지역 소식들을 들을 수 있어 즐겨 청취한다. 특히 전국의 날씨와 교통 상황 등을 알 수 있는 점이 크게 도움 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감동적인 사연을 소개해주는 점도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각 지역의 소식을 전국으로 전달해서 지역 방송 활성화에 기여해주시기 바란다. <7월 2일 보고서>

○ 1R 「기상통보」

- 우리 일상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일기예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이다. 청취자들이 그날그날의 날씨에 적절히 대비할 수 있도록, 매일 아침 좋은 방송을 제공해주는 점에 항상 감사하고 있다. 계속해서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11월 10일 보고서>

○ 2R 「오늘 같은 오후엔 이세준입니다」

- 매일 오후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기분 좋은 음악들을 많이 선곡해주어 즐거운 마음으로 듣고 있다. 더불어 청취자들이 보내오는 사연들도 유쾌하다. 점심식사 후 졸린 시간인데, 나른한 오후를 보내는 청취자들을 위해 꾸준히 재미있는 방송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2월 10일 보고서>

○ 2R 「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

- 매일 아침 출근길에「매일 그대와 조규찬입니다」를 듣고 있다. 아침에 어울리는 선곡과 청취자들이 보낸 따뜻한 사연으로 지루할 틈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진행자 조규찬 씨의 감미로운 진행도 재미를 더한

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12일 보고서>

○ 2R 「**임백천의 골든 팝스**」

- 팝의 전성기인 7080년대의 명품 팝송들을 청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본인 연령대의 청취자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지 않은데, 중장년층 청취자들이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방송을 제작해 주어 너무 고맙다. 특히 이날은 선곡이 너무 좋아 무척 만족스러웠다. 앞으로도 좋은 곡을 많이 소개해주기 바란다. <4월 10일 보고서>

○ 2R 「**양파의 음악정원**」

- 소소한 이야기와 편안한 음악을 감상할 수 있어 매일 오후 청취한다. 정신없이 오전 시간을 보낸 후 이 방송을 들으며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참 좋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와 좋은 선곡으로 청취자들에게 즐거움을 전해주기 바란다. <8월 27일 보고서>

○ 2R 「**김혜영과 함께**」

- 매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그동안 가수 남진 씨, 설운도 씨, 인순이 씨, 진성 씨 등 내로라하는 게스트들이 출연해서 굉장히 재미있었다. 톡톡 튀면서도 따뜻하고 정감 있는 진행자 김혜영 씨의 목소리도 방송에 활력을 더한다. 앞으로 좋은 방송으로 청취자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해 주기 바란다. <9월 10일 보고서>

○ 2R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

- 심야 시간대 라디오 방송을 즐겨 청취한다. 「유지원의 밤을 잊은 그대에게」는 편안한 음악과 따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하루를 마무리하며 듣기에 제격이다. 또 다양한 코너가 마련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앞으로도 좋은 음악과 감동적인 사연을 많이 소개해주기 바란다. <9월 16일 보고서>

○ 2R 「**이각경의 해피타임 4시**」

- 청취자들이 좋아할만한 익숙한 가요들을 많이 접할 수 있어 매일 오후 해당 방송을 듣는다. 좋은 노래와 함께 생생한 사연도 들을 수 있어 덕분에 재미있고 즐거운 오후를 보내고 있다. 늘 유쾌한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오랜 친구 같은 방송으로 청취자들과 함께해주기 바란다. <12월 18일 보고서>

○ 3R 「**건강 365**」

-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이다. 각 분야의 전문의가 출연해서 최신 의학 정보를 알려주어 늘 도움 받고 있다. 특히 전문가 처방으로 함께 따라 해보는 운동요법 시간이 마련되어 있어 유익하다. 앞으로도 궁금한 건강 관리법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줄 수 있는 방송이 되어주길 바란다. <1월 2일 보고서>

○ 3R 「**라디오 여행기**」

- 마음의 양식이 되는 여행기를 선정하여 성우가 낭독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장애가 있어서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여행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행을 떠난 것처럼 기분전환이 된다. 청취자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해주는 방송에 늘 감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1월 20일 보고서>

○ 3R 「연속낭독」

- 책을 읽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환자, 노인들에게 장애인 성공수기 같은 인물 중심의 작품을 낭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잔잔한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책을 선별해주는 점에 늘 감사한다. 해당 방송을 통해 책을 읽는 즐거움을 알게 되어 기쁘다.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3월 5일 보고서>

○ 3R 「라디오 여행기」

- 마음의 양식이 되는 여행기를 선정하여 성우가 낭독하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장애가 있어서 쉽게 여행을 떠날 수 없기 때문에, 여행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여행을 떠난 것처럼 기분전환이 된다. 청취자들에게 탈출구를 제공해주는 방송에 늘 감사하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3월 6일 보고서>

○ 3R 「내일은 푸른하늘」

- 본인은 장애인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취자이다. 장애인 분들이 매일 오후 해당 방송을 청취하며 장애 극복의 의미를 찾고, 재활 의욕을 높인다. KBS에서 이런 방송을 통해 장애인 문제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해주어 늘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3월 20일 보고서>

○ 3R 「출발 멋진 인생, 이지연입니다」

- 부산에 거주 중인 청취자이다. 시니어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어 즐겨 청취한다. 좋은 노래도 많이 들려주고, 무엇보다 진행자 이지연 씨가 청취자들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든다. 앞으로도 시니어들의 자기개발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방송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4월 10일 보고서>

○ 1FM 「FM 풍류마을」

- '우리음악'이라고 하면 아직도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해당 방송에서 동서고금의 풍류 이야기와 함께 우리음악을 쉽게 설명해주어 조금씩 친근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불어 우리 근현대사와 우리말에 얽힌 사연까지 알려주어 유익하다. 계속해서 다양한 전통 음악을 소개해주시기 바란다. <1월 6일 보고서>

○ 1FM 「명연주 명음반」

- 좋은 음악을 선곡해주어 매일 두 시간씩 즐거운 마음으로 청취하고 있다. 곡에 얽힌 문화사적인 배경, 음반과 연주자에 얽힌 에피소드 등을 함께 들려주어 유익하다. 전문적이고 품위 있는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1월 8일 보고서>

○ 1FM 「FM 실황음악」

- 세계각지의 연주회 실황을 입수해서 최신 연주를 들려주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송이다. 음악회를 생생한 현장음 그대로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한 회도 빼놓지 않고 청취할 정도로 해당 방송의 애청자이다. 늘 좋은 방송 제작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깊고 풍부한 방송을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1월 21일 보고서>

○ **1FM 「당신의 밤과 음악」**

- 하루를 마감하며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한다. 심야 시간에 방영되는 프로그램답게, 편안하고 아름다운 음악 위주로 선곡해주는 점이 마음에 든다. 또한 요일 별로 다른 코너들이 마련되어 있어 지루할 틈이 없다. 청취자들의 평화로운 밤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방송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2월 4일 보고서>

○ **1FM 「JAZZ 수첩」**

- 재즈를 좋아해서 주말 밤마다 해당 프로그램을 청취한다. 재즈는 다소 어려운 음악이라는 선입견이 있었으나, 이 프로그램을 통해 편안하고 정감 어린 재즈를 많이 알게 되어 기쁘다.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고, 앞으로도 듣기에 편안하고 귀에 익숙한 재즈를 많이 소개해 주면 좋겠다. <3월 2일 보고서>

○ **1FM 「KBS 음악실」**

- 음악계의 다양한 소식과 정보를 전해주어 매일 오전 빠짐없이 청취하고 있다. 특히 일요일에 방영되는 '음악실 초대석' 코너를 좋아한다. 화제의 음악가를 초대해서 인터뷰와 라이브 연주를 들려주어 너무 재미있다. 앞으로도 우리 음악가들의 이야기와 연주를 충실하게 전해주시기 바란다. <3월 12일 보고서>

○ **1FM 「생생클래식」**

- 어렵고 딱딱한 음악이라고만 생각해왔던 클래식을 쉽고 유쾌하게 소개해주어 잘 듣고 있다. 해당 방송 덕분에 클래식이라는 장르가 조금씩 재미있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날따라 선곡이 좋아서 귀가 즐거운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좋은 명곡을 많이 소개해주시기 바란다. <4월 2일 보고서>

○ **1FM 「클래식FM 개국41주년 특집 불멸의 베토벤」**

- KBS 클래식FM 개국 41주년이자, 베토벤 탄생 250주년을 기념해서 오전 7시부터 자정까지 17시간동안 개국 특집 방송을 진행했다. 베토벤의 유명 작품부터 숨겨진 명곡, 변주곡, 편곡 작품 등을 끝없이 감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더불어 아나운서, 음악칼럼니스트들의 풍부한 해설 또한 재미를 더했다. 청취자들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시간을 선사해주어 감사하다. <4월 3일 보고서>

○ **1FM 「김미숙의 가정음악」**

- 편안하면서 서정적이고 아늑한 음악들을 선곡해주어 오전 시간에 늘 듣는다. 특히 일주일에 1인의 인물을 선정해서 그들의 생애와 심리를 다섯 개의 키워드로 돌아보는 '마음을 읽다' 코너를 가장 좋아한다. 해당 방송을 통해 음악을 듣고 즐기는 법을 서서히 배워가고 있다. 앞으로도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시기 바란다. <5월 7일 보고서>

○ **1FM 「실황특집 2020 교향악 축제(5)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아시아 최대 규모의 클래식 축제인 '2020 교향악 축제'가 지난 7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 직접 공연을 볼 수 없어 아쉬웠는데, 마침 KBS 클래식 FM에서 실황으로 들려주어 즐겁게 감상할 수 있었다.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에 있는 청취자들에게 생생한 현장의 소리로 연주회의 감동을 전해주시어 감사하다. <8월 3일 보고서>

○ **2FM 「설레는 밤, 이해성입니다」**

- 심야에 이해성 아나운서가 편안하고 차분한 진행으로 청취자들의 사연과 신청곡을 들려주어 즐겨 청취한다. 매일 코너와, 다양하게 구성된 요일 코너가 있어 두 시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지루할 틈이

없다. 매일 밤 따뜻한 방송으로 청취자들과 함께해주어 감사하다. <1월 14일 보고서>

○ **2FM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 윤정수 씨와 남창희 씨의 재치 있는 입담에 끌려 애청 중인 청취자이다. 두 진행자의 장난스럽고 편안한 진행이 매력적이다. 선곡도 좋고 청취자들의 사연도 유쾌해서 매일 재미있게 청취한다. 앞으로도 청취자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랫동안 함께해주길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2FM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 좋은 노래와 감동적인 사연을 듣고 싶어서 매일 오후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소소하지만 따뜻한 삶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어 즐거운 두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늘 변치 않고 좋은 방송을 제작해 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청취하도록 하겠다. <3월 6일 보고서>

○ **2FM 「황정민의 뮤직쇼」**

- 갓 발매된 신곡 소개는 물론 청취자들의 일상 속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콩트까지, 모든 코너들이 독특하고 흥미로워서 매일 즐겁게 청취하고 있다. 아주 간단한 미션에만 성공하면 선물을 주는 코너도 있어 때때로 방송에 참여하기도 한다. 매일 청취자들에게 좋은 시간을 선물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재미있는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4월 14일 보고서>

○ **2FM 「강한나의 볼륨을 높여요」**

- KBS 라디오의 간판 프로그램인 「볼륨을 높여요」의 애청자이다. 매일 다른 코너와 좋은 선곡, 청취자들의 다양한 사연까지 지루할 틈이 없다. 진행자 강한나 씨의 편안하고 매끄러운 진행도 재미를 더한다. 앞으로도 편안하고 유쾌한 방송을 만들어주기 바란다. <7월 10일 보고서>

○ **2FM 「정은지의 가요광장」**

- 다양한 장르의 가요부터 최신곡까지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매일 점심시간에 청취하고 있다. 진행자 정은지 씨 특유의 발랄함과 친근한 매력이 방송에 재미를 더한다. 젊은 층이 선호하는 음악 위주의 선곡도 마음에 든다. 계속해서 유쾌한 방송으로 청취자들의 점심시간을 즐겁게 만들어주기 바란다. <7월 30일 보고서>

○ **한민족R 「시대음감」**

- 음악 평론가 김태훈 씨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주말마다 재미있게 듣고 있다. 음악을 통해 시대를 읽는다는 설정이 좋고, 더불어 한 주간 화제가 된 이야기 등도 들을 수 있어 유익한 부분도 많다. 앞으로도 더 깊고 풍부한 주제로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4일 보고서>

○ **한민족R 「경제로 통일로」**

- 북한 동포 및 북방 동포에게 시장경제 체제의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해당 방송의 내용이나 설명이 너무 좋아서 빠짐없이 청취하고 있다. 한국 경제 현실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청취자들이 통일 경제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25일 보고서>

○ **한민족R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 우리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방송처럼 자세히, 꾸준히 우리 역사를 다뤄주는

방송이 잘 없기 때문에 주말마다 열심히 청취하고 있다. 청취자들에게 역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선사해주어 감사하고, 계속해서 유익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6월 22일 보고서>

○ **한민족R 「라디오 극장」**

- 시각장애인 청취자이다. 해당 방송은 국내에서 출간된 장편소설 중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작품을 선정해 라디오 드라마로 극화해서 방송하는 프로그램으로, 본인처럼 시각장애로 인해 TV 드라마를 시청하지 못하는 청취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준다. 소외계층을 위해 늘 좋은 방송을 제작해주어 감사하다. <9월 8일 보고서>

| 8. 표현(소재) |

○ **1TV 「제야음악회 2020 새날마중」**

- 새로운 한 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 「제야음악회 2020 새날마중」을 시청했다. 품격 있는 국악과 클래식 등을 감상할 수 있어 즐거운 시간이었다. 그런데 마음 졸이며 기다렸던 보신각 타종행사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아 무척 서운했다. 서른세 번의 종이 모두 울리는 것까진 보여주지 않더라도, 종소리를 들으며 가족끼리 덕담 나눌 시간 정도는 줬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1월 2일 보고서>

○ **1TV 「더 라이브」**

- 시사 이슈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어서, 시사 프로그램은 어렵고 딱딱하다는 편견을 버리게 해준 프로그램이다. 매일 저녁 재미있게 시청 중이다. 다만 방송 하단의 실시간 댓글이 방송 내용과 무관한 경우가 많아 방송에 대한 집중을 저해한다. 현재 진행되는 방송 내용과 관련 있는 댓글만 화면에 노출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다. <1월 3일 보고서>

○ **1TV 「KBS 뉴스광장」**

- 하루의 시작을「KBS 뉴스광장」과 함께 한다. 본인은 특히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챙겨본다. 그런데 이날 일몰 시간이 17시 22분으로 보도되었는데, 본인이 알아본 일몰 시간과 20분 가까이 차이가 나서 당황스러웠다. 일출·일몰 시간에 민감한 직업에 종사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정확하게 보도해주기 바란다. <1월 23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

- 이날 리포터가 충북 청주시 상당구에 위치한 육거리 종합시장을 방문했다. 그런데 먹거리를 파는 상인들이나 리포터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음식 앞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비위생적으로 느껴졌다. 굳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아니더라도, 음식을 다루는 사람들은 위생을 위해 마스크를 착용해 주기 바란다. <2월 5일 보고서>

○ **1TV 「다큐 인사이드」'시대유감, 삼풍'**

- 1995년 6월 29일에 일어났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을 다뤘다. 502명이 죽고 937명이 부상을 입어 6.25 이후 최대의 참사로 기록되고 있다. 그런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나라 안팎이 어수선한데, 굳이 25년 전에 일어났던 참사를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보여줄 필요가 있는지 의아하다. <2월 10일 보고서>

○ 1TV 「특집 생방송 심야토론」'기생충 쾌거! 한국영화 100년의 저력과 과제'

- 정통 토론 프로그램으로 토요일마다 빠짐없이 시청한다. 이날은 한국 영화사에 새 역사를 쓰고 있는 영화 '기생충'이 이룩한 쾌거를 짚어보았다. 그런데 '토론'이란 찬성과 반대의 입장으로 나뉘는 주제에 대하여 자기의 주장을 펼친다는 뜻인데, '기생충 쾌거'는 토론이라는 형식에는 적합하지 않은 주제인 것 같아 아쉬웠다. <2월 10일 보고서>

○ 1TV 「긴급진단 코로나19 새 국면 지역사회 감염 비상」

- 코로나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그래서 이날 KBS에서 전병을 차의과대학 교수, 최원석 고려대 교수, 이충헌 KBS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대응방법을 모색했다. 그런데 출연자들이 '신천지교회'를 '교회'로 지칭해서 불편했다. 한국의 기독교 교단들은 신천지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교회'보다는 '신천지교회'로 정확하게 표현해주기 바란다. <2월 21일 보고서>

○ 1TV 「특집 사사건건」'코로나19' 유행 사태'

-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했다. 그에 따라 이날은 전문가 패널들과 코로나19 유행 사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그러나 중국인 입국 금지를 하지 않는 정부의 미온적 대처 등을 질타하지 않는 점,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최영일 시사평론가를 섭외한 점 등으로 토론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아 아쉬웠다. 보다 핵심을 짚는 영양가 있는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2월 26일 보고서>

○ 1TV 「특별생방송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이슈토크'

- 지난달 24일부터 매일 오후 7시 40분에 코로나19 관련 정보를 제공해주는 특별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다. 이날은 낯선 질병에 대한 불안감으로 시작된 타인을 향한 혐오를 다루면서, 인터넷 상에 떠도는 태극기와 바이러스 합성 사진을 보여주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가슴 아팠다. 태극기 합성은 국기에 대한 모독이므로 자료화면으로도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 <3월 4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코로나19, 강릉은 지금'

- 강원도 강릉 지역의 코로나19 소식을 전했다. 가슴 아픈 소식도 있었지만, 자원봉사자들이 감염에 취약한 노약자와 어린이들을 위해 마스크를 제작하는 훈훈한 소식도 있었다. 그런데 해당 소식을 전한 리포터가 새로 제작된 마스크를 자신이 착용하고 있는 마스크 위해 대어본 후 다시 내려놓는 장면이 방영됐다. 비위생적인 행동이니, 앞으로는 주의해주기 바란다. <3월 13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은혜의 강 교회 집단 감염..지역전파?'

- 정부가 집단 감염을 우려해 종교집회 자제를 요청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예배를 강행했던 경기도 성남시 은혜의 강 교회 신도들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이날 방송에서 해당 소식을 다루던 중 여의도순복음교회 내부 사진을 보여주었다. 본인은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인으로 많이 불쾌했다. 특정 교회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으니 주의해주기 바란다. <3월 18일 보고서>

○ 1TV 「KBS 중계석 스페셜」'힐링의 노래'

- 문화예술 전 부문에 걸쳐 공연 및 이벤트를 방송해주어 늘 감사하게 보고 있다. 해설과 연주자들의 인터뷰 등도 함께 보여주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런데 작곡가와 곡명 등을 소개하는 자막 글씨가 너무 작아서 나이 많은 시청자들은 제대로 읽기 어렵다. 시청자가 알아보기 쉬운 방향으로 자막 크기를 조정해 주면 좋겠다. <3월 20일 보고서>

○ 1TV 「아침마당」'생생토크 만약나라면'

- 이날은 '미혼 우리 새끼 어떡해'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눴다. 그런데 패널로 출연한 개그맨 최병서 씨, 가수 김수찬 씨, 방송인 팽현숙 씨 등이 "싱글도 괜찮다", "혼자 있을 때 행복하다", "요즘은 결혼을 50대에 하는 게 유행이다"와 같은 결혼에 회의적인 발언을 해서 우려스러웠다. 요즘 저출산, 고령화, 비혼 문제가 심각하니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3월 23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김일성, 평양 군중 앞에 서다'

- 이날 방송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김일성'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사이에는 얼마큼의 거리가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우리에게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인물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의아했다. 그리고 방송이 전반적으로 김일성의 행적을 옹호하고 미화하는 듯해서 보기 불편했다. 방송의 주제를 선정함에 있어 국민감정을 고려해주기 바란다. <3월 26일 보고서>

○ 1TV 「남북의 창」[요즘북한은] 코로나19 속 "우리 보건제도 최고"

- '요즘 북한은' 코너에서 북한의 코로나19 현황을 소개했다. 북한은 현재까지 확진자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 매체가 사회주의 보건제도가 최고라고 선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와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북한이 사회주의 보건제도를 자찬하는 내용이 보기 불편했다. 북한과 관련된 다양한 소식들을 전달하는 것을 조금 자제해주기 바란다. <4월 8일 보고서>

○ 1TV 「KBS 네트워크 특선 고고씽 [창원총국]」

- 이날 방송은 트로트 가수 박상철 씨의 신곡 '버스 한 대'로 시작됐다. 그런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객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붙어 앉아 함께 즐기는 모습에 위화감을 느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녹화되었다고 해도, 현재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으니 이러한 내용은 편성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4월 10일 보고서>

○ 1TV 「제21대 총선 후보자 경력방송」

- 해당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공화당 후보자를 소개할 때 보라색을 사용했다. 우리공화당은 새마을운동 색깔인 녹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청자 입장에서 무척 의아했다. 당 고유 색깔로 수정해주기 바란다. <4월 10일 보고서>

○ 1TV 「제21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연설」'국가혁명배당금당'

-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후보의 연설을 보여주었다. 허경영 후보는 18세가 되면 죽을 때까지 매월 150만원씩을 지급하고, 결혼식 1억 원에 주택마련비용 2억 원을 더해 3억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워 보기 불편했다. 과거 허위사실 유포로 수감된 적도 있는 등 여러 기행을 선보이는 인물의 연설까지 편성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든다. <4월 13일 보고서>

○ 1TV 「제21대 총선 특집」

- 18대부터 20대 총선 공약 이행률을 들여다보고, 지난 12년 동안 공약을 지키기 위한 각 당의 노력을 추적한 방송이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나, 민식이법 처리 무산 등을 다루며 보수 정당을 비난해서 편파적으로 여겨졌다.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내용이 표심을 좌우할 수 있으니,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4월 13일 보고서>

○ 1TV 「2020 총선 특집 KBS 뉴스」

- 코로나19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유권자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입구에서 발열체크, 손소독제로 소독 후 일회용 비닐장갑 착용 후 투표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날 선거 관련 보도 중 일회용 비닐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유권자가 투표하는 모습이 방송됐다. 시민들이 해당 영상을 보고 따라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기 바란다. <4월 16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이태원 클럽 확진자 잇따라 발생..수도권 집단감염 비상!'

-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20대 남성 확진자가 이태원의 클럽 여러 곳을 방문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해당 보도에서 '성 소수자 클럽'이라고 정확히 밝히지 않고, 그냥 '클럽' 또는 '유흥업소'라고만 보도한 점이 우려된다. 언제든지 집단감염 발생이 가능한 위험한 상황이므로, 시청자들에게 해당 클럽에 대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공해주기 바란다. <5월 11일 보고서>

○ 1TV 「KBS 특별기획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제2편 봉쇄 그 후'

- 코로나19 이후, 인류가 맞이할 새로운 시대를 전망했다. 김연희 보스턴컨설팅 그룹 아시아 태평양 유통 부문 대표가 글로벌 경제의 전망과 변화될 소비 심리 등을 설명해주어 유익했다. 그런데 방청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우려스러웠고, 시간이 흐를수록 일부 방청객이 다른 곳을 바라보는 등 집중력이 저하된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방청객 없이 방송을 진행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5월 14일 보고서>

○ 1TV 「6시 내고향」'내고향 상생장터'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만든 코너인 '상생장터'에서 이날은 '영광 굴비'를 판매했다. 맛있는 굴비도 먹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좋은 마음으로 주문하려했으나, 전화 연결과 홈페이지 접속 모두 어려워 며칠이 지나도록 주문을 할 수가 없다. 앞으로는 원활한 주문이 이뤄지도록 접수 시스템을 개선해주기 바란다. <5월 21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일본군 위안부 피해 이용수 할머니 "이용 당했다"'

-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대구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을 가졌다. 그런데 9시 뉴스에서 해당 기자회견을 메인뉴스로 다루지 않고, 방송이 시작된 지 20분이 지나야야 다룬 점이 의아하다.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사안이므로 소홀히 다루지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5월 27일 보고서>

○ 1TV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 특집 개성공단」

- 2000년 6월 15일, 반세기 만에 남과 북의 두 정상은 만났다. 그래서 이날은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개성공단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매일같이 군사 도발 위협을 펼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운운하는 점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고, 북한을 미화하는 것 같아 보기 불편했다. <6월 17일 보고서>

○ 1TV 「중계방송 6.25 전쟁 제70주년 행사」

- 지난 25일, 6.25 전쟁 70주년 행사가 열렸다. 그런데 애국가 제창 때 편곡한 전주가 흘렀는데, 그 전주가 북한 애국가의 전주와 음정과 리듬이 거의 흡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당 편곡은 KBS 교향악단이 맡았다는 기사를 보았다. 다른 행사도 아닌 6.25 추념식에서 이런 논란이 일어나 안타깝다. <7월 1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오늘의 시황'

- 방송 말미에 이날의 주식 시황을 알아보는 순서가 있다. 캐스터가 이 시각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297원 60전에 거래되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그런데 하나은행이나 신한은행 기준 현재 원화 환율은 1,196원이고, 연합뉴스에서 제공한 환율은 1,198원이다. 환율은 경제와 시청자들의 개인 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니 주의해주기 바란다. <7월 7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지난 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숨진 채 발견되어 국민들이 충격에 빠졌다. KBS 뉴스에서 박 시장을 추모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보도가 많은데, 이는 자칫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면죄부를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 또한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치르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에 대해서도 보도해주기 바란다. <7월 13일 보고서>

○ 1TV 「6.25 전쟁 70주년 기획 다큐 인사이트」'미·중전쟁 2편 충돌'

- 6.25 전쟁은 당시 대한민국과 북한 뿐 아니라 이들을 둘러싸고 있던 강대국 간의 싸움이었다. 그래서 이날 방송에서 6.25 전쟁 당시 중국과 미국 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미·중 전쟁'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그러나 미국은 유엔군의 일원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것이므로 '미·중 전쟁'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게 여겨진다. <7월 20일 보고서>

○ 1TV 「KBS 특별생방송 수해 극복, 우리 함께」

- 올해 장마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크다. 그래서 이날 KBS에서 수재민을 돕는 성금 모금 특별생방송을 제작했다. 전화를 통하거나 계좌이체로 기부가 가능했는데, 성금 모금 연락처는 너무 작게 적혀 있어 읽기 어려웠고 계좌번호 또한 빨리 지나가서 받아 적기 힘들었다. 좋은 취지의 방송인만큼 자막을 크게, 그리고 장시간 노출시켰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8월 13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본인은 교회를 다니는 시청자이다.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를 제외한 대부분의 교회들은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도되는 점이 불편하다.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8월 21일 보고서>

○ 1TV 「KBS 뉴스특보」

- 제8호 태풍 '바비'가 한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고, 제주에 어제부터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섰다. 그래서 제주 취재기자를 연결해 현장 상황을 알아보았다. 그런데 비바람이 몰아치고 파도가 높게 일고 있는 현장 상황이 너무 위험해보였고, 여기자가 바람에 휘청거리는 모습도 위태로워보였다. 위험한 현장에서 벗어나 안전한 곳에서 보도해주길 당부한다. <8월 27일 보고서>

○ 1TV 「KBS 시청자 주간 다큐 인사이트」'모던코리아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 공영방송 KBS의 30년 역사를 되돌아본 방송이었다. 오락성과 국민계몽, 정권과 시민사회의 다양한 요구 사이를 마치 줄타기를 하듯 아슬아슬하게 거쳐 온 KBS의 역사가 감격스러웠다. 그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모습을 너무 많이 보여줘서 불편했다. 아무리 지나간 역사를 다룬다고 해도,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든다. <9월 7일 보고서>

- **1TV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코로나19로 인한 또 다른 비극..멕시코 페미사이드'**
 - '여성(Female)'과 '살해(Homicide)'가 합쳐진 단어로, 최근 멕시코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페미사이드' 범죄를 다뤘다. 이어 멕시코에서 세 명의 용의자들이 십 대 소녀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보여줬는데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실제 살해 장면을 어떠한 모자이크 처리도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9월 21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신규 확진 61명..깜깜이 환자 비율 늘어'**
 - 2시 뉴스에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61명 늘었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1명·해외유입 사례는 10명으로 확인됐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런데 자막에 '깜깜이'라는 용어가 사용됐다. 해당 용어는 시각장애인들이 차별적 발언이라고 해서 사용하지 말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다. 앞으로는 '깜깜이'라는 표현 대신 '감염경로 불명' 등 다른 표현을 사용해주기 바란다. <9월 24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독신·동성 女커플도 인공생식"...출산권·가족 확대'**
 -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정자은행을 통해 임신을 하고 일본에서 아이를 낳았다. 이날 사유리 씨 소식을 전하며, 비혼출산을 사회적으로 받아들이고 법적으로 허용하는 유럽의 사례들을 소개했다. 그러나 대리모 출산, 전통적 가족 해체 등의 부정적인 측면이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안타까웠고, 비혼·동성혼을 옹호하는 것 같아 불편했다. <11월 18일 보고서>

- **1TV 「재난탈출 생존왕」'캡틴초이의 알아야 산다'**
 - 교통사고 발생 시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 차량으로부터의 탈출이다. 그래서 이날 최영재 예비역 대위가 교통사고 유형별로 차량 탈출 방법을 가르쳐주었다. 그러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기 때문에, 최 대위처럼 침착하게 도구를 사용해 탈출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 방송 내용이 다소 현실성이 떨어져 아쉬웠다. <11월 23일 보고서>

- **2TV 「제보자들」'출산 9시간 만에 사망한 아내, 그날의 진실은?'**
 - 30대 여성이 출산 9시간 만에 숨진 사고를 다뤘다. 유가족은 분만을 진행했던 산부인과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 산모가 사망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병원에선 발뺌하고 있다. 피해자가 너무 안타까워 끝까지 시청했는데, 아무런 결론 없이 방송이 마무리되어 실망스러웠다. 앞으로는 실상을 전달하는 것에서 그치지 말고, 사건 당사자들이 처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1월 13일 보고서>

- **2TV 「옥탑방의 문제아들」**
 - 이날 방송에는 배우 서현철이 게스트로 출연해서 재치 있는 입담으로 재미를 선사했다. 출제된 퀴즈들도 재미있고 유익했다. 그런데 방송 중 'TMI 대잔치'라는 자막이 표기되었는데,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 난처했다. KBS는 공영방송이고, 어르신들도 많이 시청하므로 지나친 인터넷 용어나 신조어 등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월 22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21일, 「뮤직뱅크」를 통해 컴백하는 걸 그룹 아이즈원의 리허설 무대가 SNS를 통해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무대 이미지와 의상 등이 공개됐고, 오랜 시간 컴백 무대를 준비한 멤버들과 그들을 기다려온 팬들의 실망감이 컸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2월 24일 보고서>

○ 2TV 「KBS 아침 뉴스타임」'마스크 구하는 긴 줄...오늘 11시 우체국서 65만 장 판매'

- 해당 방송을 통해 우체국에서 65만 장의 마스크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접한 후,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 우체국을 찾아갔다. 그러나 대구와 청도 지역 및 공급여건이 취약한 읍면소재 우체국에서만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본인처럼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한 채 빈 손으로 돌아간 시민들이 많다. 정확한 내용만 보도해주기 바란다. <3월 4일 보고서>

○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 이날 방송에서 결정된 6대 편스토랑 출시메뉴는 이정현 씨의 '수란덮밥'이었다. 해당 방송에서 이정현 씨의 음식솜씨를 익히 보았던 터라 무척 기대를 품고 구입했다. 그런데 음식이 짜고, 수란의 비린 맛이 강해 먹기 불편했다. 또한 4,200원이라는 가격도 편의점 음식치고는 합리적이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보다 합리적인 가격대와,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 음식 위주로 출시해주기 바란다. <3월 17일 보고서>

○ 2TV 「개그 콘서트」

- 토요일 저녁마다 온 가족이 함께 「개그 콘서트」를 시청한다. 예전에는 매주 새로운 개그를 통해 웃음을 선사해 주어 무척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소재가 떨어진 듯 새로운 개그 없이, 비슷비슷한 포맷의 코너 뿐이라 전반적으로 지루해진 느낌이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시청자들에게 새롭고 신선한 웃음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3월 23일 보고서>

○ 2TV 「1박 2일」'두루가볼 전국일주'

- '두루가볼 전국일주' 특집의 두 번째 이야기가 펼쳐졌다. 여덟 번째 여행지인 제주도에서 '거북이 타고 깃발 뽑기'라는 게임을 펼쳤다. 그런데 멤버들이 승리를 위해 서로를 내리치는 등, 정정당당하게 겨루지 않고 반칙을 쓰는 모습이 자주 그려졌다. 「1박 2일」은 대표적인 국민 예능프로그램으로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많이 시청하고 있으니, 재미도 중요하지만 승리를 위해 반칙이나 편법을 쓰는 장면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4월 7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이것만이 내 세상, 나나랜드 - 만능 재주꾼의 숲속 작은 집'

- '나나랜드' 코너에서 아주 깊은 산속에서 독특한 집을 짓고 15년째 살고 있는 채창석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런데 산에서 장작으로 불을 피워 건강 약초 백숙을 해먹는 장면이 방영됐다.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는 산불 조심 기간인데, 해당 장면이 방영되어 보기 안 좋았다. 봄철은 산불 비상시기인 만큼 각별히 주의 해주기 바란다. <4월 9일 보고서>

○ 2TV 「개는 훌륭하다」'센 犬 더 센 犬 위험한 犬'

- 진돗개, 카네코르소, 래브라도 레트리버까지, 세 종류의 개를 키우는 반려인이 출연했다. 그런데 개들이 서로 얼굴만 봐도 죽일 듯이 달려들고, 훈련 도중 목줄을 끊고 입마개도 부숴버릴 정도로 공격성이 강해 보기 안 좋았다. 특히 주인과 강형욱 훈련사는 물론, 제작진까지 위험하게 보여 우려스러웠다. 앞으로 출연진과 제작진의 안전을 위해 사나운 개와 견주는 섭외를 자제해주기 바란다. <4월 29일 보고서>

○ 2TV 「생방송 아침이 좋다」'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가족 - 미등록 이주민 가족'

- 국내에 체류 중인 '미등록 이주민'들이 받는 차별을 다루고, 그 해결 방법을 모색했다. 그런데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들은 각자의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기한을 부여받는다. 미등록 이주민은 이를 위반하고

시간을 넘겨서 체류하는 사람들이다. 방송에서 미등록 이주민에 대해 무조건 사회적 약자로 접근하는 것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5월 8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황금매뉴얼 - 나도 할 수 있다! 돈 버는 취미'

- 약간의 노하우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는 취미생활을 소개했다. 그 중 하나가 '다육식물 키우기'로, 취미로 키우는 다육식물을 팔아 돈을 버는 최연옥 씨가 출연했다. 그런데 아무리 정성껏 기른 다육이라 해도, 일반 식물매장에 비해 고가로 책정된 가격이 의아했다. 저렴하게 구입한 식물을 잘 키워서 많은 이익을 창출하라고 부추기는 것 같아 보기 안 좋았다. <5월 14일 보고서>

○ 2TV 「자동공부책상 위키 2」'국기 따라 세계탐험 일본'

- 다양한 캐릭터와 노래로 아이들이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다. 이날은 일본에 대해 배웠는데, 유네스코가 선정한 일본의 세계문화유산인 '히메지 성'부터 스시의 유래와 일본 국기 등을 다뤘다. 그런데 현재 한일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일본 국기가 화면에 계속 등장하니 보기 안 좋았다. <6월 1일 보고서>

○ 2TV 「뮤직뱅크」

- 그룹 WayV(웨이비)가 신곡 'Turn Back Time'의 무대를 보여줬다. 강렬한 비트가 인상적이긴 했지만,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중국어여서 가사를 알아들을 수 없어 답답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반중 정서를 고려해서 중국어 가사의 노래를 방영하는 것은 조금 자제해주기 바란다. <6월 15일 보고서>

○ 2TV 「영상앨범 산」'일본 2부작'

- 국내외의 명산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으로 즐겨 시청한다. 지난 6월 28일 방송부터 이날까지 '일본 2부작'으로 일본의 갓산과 아사히산을 소개했다. 그런데 1년 넘게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이다. 방송에서 푸른 신록과 하얀 눈길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진 일본의 명산을 소개하는 것이, 자칫 일본 관광을 부추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 <7월 6일 보고서>

○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트롯소년단 총집합'

- 연예인 2세들이 트로트 멘토로부터 트로트를 배우는 '트롯소년단'이 방영됐다. 그런데 '엄마가 없는 48시간 동안 아빠들이 육아에 도전한다'라는 기획의도와 전혀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라서 당황스러웠다. 아이들이 가사의 뜻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트로트를 부르는 모습도 보기 안 좋았다. 원래 기획의도대로 아빠와 아이들의 48시간을 보여주기 바란다. <7월 28일 보고서>

○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 스타들이 공개한 메뉴 중, 승리한 메뉴가 다음 날 실제로 편의점에서 출시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초반의 기획의도와 달리 오윤아 씨의 개인사를 너무 많이 다루는 점이 보기 불편하다. 또한 한지혜 씨가 맛있는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 제주도에서 일일 해녀에 도전하는 것도 가성비를 고려하지 않는 설정 같아 보기 안 좋았다. <8월 10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 이날은 '김종국×터보' 2부로 꾸며졌다. 흑시 김호중 씨의 무대가 방송될까 기대하며 시청했는데, 전 여자친구 폭행 의혹과 불법 도박 혐의 등의 논란 때문에 결국 편집이 됐다. 지난 주 방송에서도 단체샷에

서만 살짝 등장했었는데, 이날도 기대했던 무대가 편집돼 김호중 씨의 팬 입장에서는 몹시 서운하고 안타까웠다. <8월 31일 보고서>

○ 2TV 「KBS 시청자 주간 2TV 생생정보」‘SNS 화제 맛집’

-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많은 국민들이 외출이나 외식 등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SNS 화제 맛집’, ‘장사의 신’ 코너에서 다양한 음식을 소개했고, 해당 방송을 시청한 아이들이 외식을 하자고 떼를 써 난감했다. 엄중한 시기인 만큼 외부 활동을 부추기는 장면을 자제해주기 바란다. <9월 4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미니 인생극장 마이웨이 - 자연을 품은 실내 나무 인테리어’

- 실내 나무 인테리어를 위해, 진짜 나무로 가짜 나무를 만드는 곳이 소개됐다. 진짜 같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 전국각지의 산을 돌아다니며 질 좋은 나무들을 벌목하는 장면이 방영됐는데, 가짜 나무를 만들려고 살아있는 나무를 베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올해 장마와 태풍으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위험이 커졌는데,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방송을 제작해주기 바란다. <9월 18일 보고서>

○ 2TV 「연중 라이브」‘연예계 부동산&땅부자 스타’

- 이날 새로운 코너 ‘차트를 달리는 여자’에서는 첫 번째 주제로 ‘연예계 부동산&땅부자 스타’에 대해 알아봤다. 그야말로 억 소리 나는 어마어마한 부동산 자산과 현재 시세 등을 공개했는데, 해당 내용을 시청하는 동안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코로나19로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청자들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으로 방송을 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10월 26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해당 방송에서 전국 곳곳의 맛집 소개를 많이 해준다. 그런데 연매출을 산정할 때 하루 매출 곱하기 30 일에 다시 곱하기 12개월을 하는 식이다. 날마다 매출이 일정하진 않을 텐데 다소 일차원적인 계산법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런 식으로 산정해서 연매출 수십억이라는 수치가 나오면 많은 자영업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된다. 시청자들에게 과장된 방송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굳이 정확하지 않은 월매출 혹은 연매출을 공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12월 9일 보고서>

○ 1R 「KBS 열린토론」

- 날이 더워지면서 여름휴가를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날은 코로나 시대의 여름휴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았다. 그런데 최근 선별 진료소에 파견된 보건소 직원들이 검사 업무 도중 실신하는 등, 의료진들의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것이 아니므로, 공영방송에서 휴가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주기 바란다. <6월 15일 보고서>

○ 1R 「오늘 아침 1라디오」

- 해당 방송은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이른바 ‘세농퀴’ 코너로 시작된다. 퀴즈의 정답을 알 경우 문자를 통해 맞힐 수 있다. 본인도 매번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주관식으로 출제되어 보기문항이 없으니 너무 어렵고, 문자를 쓸 때 복잡한 면도 있다. 문제를 객관식으로 출제해서 청취자들에게 정답을 맞히는 즐거움을 선사해주기 바란다. <8월 28일 보고서>

○ 1R 「통일사용설명서」

- 유럽 맥주 맛을 닮았다는 북한의 맥주에 대해 알아보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하고 돌아

와서 평양에 지으라고 지시한 최첨단 맥주공장과, 그 결과로 만들어진 대동강 맥주 등에 대해 이야기였다. 그런데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으로 북한에 대한 국민감정이 좋지 않은데, 북한 맥주 맛을 칭찬하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점이 듣기 안 좋았다. <11월 16일 보고서>

○ 3R 「건강 365」

- 하루도 빠짐없이 해당 방송을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각 분야의 전문의가 출연해 의학 정보를 제공해주는 점에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전립선암이나 뇌졸중과 같은 특정 주제가 너무 반복적으로 다뤄지는 것 같아 아쉽다. 물론 한국인들에게 많이 발병하는 병 위주로 다뤄진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희귀병 등 보다 다양한 주제를 다뤄주기 바란다. <4월 28일 보고서>

○ 3R 「건강 365」

- 각 분야의 전문의가 출연해 유익한 의학 정보들을 제공해주는 덕분에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청취자이다. 해당 방송은 아무래도 노년층 청취자가 많을 것 같은데, 젊은 청취자들이 좋아할만한 음악 위주의 선곡이 많다. 그래서 고령의 청취자가 들었을 때 생소한 음악이 자주 나오는데, 앞으로는 다양한 세대가 만족할 수 있도록 선곡의 스펙트럼을 조금 더 넓혀주기 바란다. <11월 12일 보고서>

○ 기타 「KBS 24」

- KBS에서 라이브로 방송하는 유튜브 채널의 채팅창에 성인광고 등 청소년 유해광고가 노출되어 무척 당황스러웠다. 남녀노소 전 연령층이 시청하는 방송인만큼, KBS 유튜브 공식채널 관리자들과의 키워드와 광고, 스팸 등에 대한 주의 깊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1월 29일 보고서>

○ 기타 「스크롤 자막」

-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어섰다. 이에 따라 국내 마스크 품귀 현상이 심각하고, 일상생활에도 많은 지장이 있어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이고 있다. KBS에서는 방송 하단의 스크롤 자막을 통해 예방수칙 등을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안내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원망이 커지며 중국어도 보기 불편하다. 세계 공통어로 사용되는 영어로 안내하면 충분할 것 같다. <3월 9일 보고서>

| 9. 간접광고 |

○ 1TV 「1박 2일」 '유토피아 아니고 방토피아 특집'

- 국민 예능이라 불리는 「1박 2일」을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이날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공간을 찾아간 여섯 남자의 하루가 그려졌다. 재미있게 시청하던 중, 딴뎀 씨가 계곡 탐색을 하는 장면에서 착용한 '르꼬끄 스포르티프' 브랜드의 로고가 계속 노출되어 보기 안 좋았다. 최대한 브랜드 로고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10월 13일 보고서>

| 10. 언어 |

○ 1TV 「더 라이브」 '박지원×이재오 나 때는 말이야'

- 원로들의 시각으로 바라본 정치 현안 등을 전하는 '나 때는 말이야'라는 코너가 있다. 그런데 매번 표기

되는 'Latte is a horse'라는 자막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어 난처하다. KBS는 공영방송이고, 어르신들도 많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지나친 인터넷 용어나 신조어 등은 자제해주시기 바란다. <1월 16일 보고서>

○ **1TV 「이슈 픽 쌤과 함께」**

-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나 시대의 이슈가 되는 사람을 '쌤'으로 불러내 지혜를 얻는 강연 프로그램이다. '쌤'은 선생님의 줄임말로 선생님에 대한 친근감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지만, 선생님을 낮추어 부르는 듯한 느낌을 주기도 한다. 굳이 공영방송의 프로그램 제목에 '선생님'이라는 좋은 단어를 두고 '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이 아쉽다. <11월 27일 보고서>

○ **1FM 「생생클래식」**

- 클래식을 쉽고 유쾌하게 소개해주어 잘 듣고 있다. 그런데 진행자가 줄임말을 자주 사용하는 점은 고쳐주었으면 한다. 예를 들면 제목을 줄여서 '생클'이라고 하는데, 고령의 청취자인 본인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난처할 때가 많았다. 앞으로는 줄임말 사용을 지양하고 표준어 사용에 앞장서주시기 바란다. <2월 6일 보고서>

| 11. 재난방송 |

○ **1TV 「KBS 뉴스특보」**

- 지난 23일 폭우로 인해 부산 일대에서 큰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나 그 시각,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인 KBS에선 기존 프로그램을 예정대로 방영해 실망스러웠다. 특히 자정을 넘어 폭우 피해가 심각해졌는데도 음악 프로그램이 방영돼 보기 불편했고, 뒤늦게 특보가 편성된 점도 아쉽다.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주시기 바란다. <7월 27일 보고서>

| 12. 방송품질 |

○ **1TV 「신년기획 일요진단 라이브」 '제3편 정치개혁의 길'**

-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이 끝났다. 그래서 이날은 패널들과 함께 20대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총평과, 오는 4월 15일에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의미 등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흰 바탕 안에 붉은 모형이 들어간 테이블이 일장기를 연상시켜 보기 불편했다. 물론 일장기를 형상화한 것은 아니겠지만, 시청자들이 보기에 불편하므로 붉은 모형을 다른 색으로 바꾸는 편이 좋을 것 같다. <1월 20일 보고서>

○ **1TV 「일요진단 라이브」**

- 4.15 총선을 앞두고 이근형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박형준 미래통합당 공동선대위원장이 출연해서 각당이 바라보고 있는 현재 판세와 핵심선거전략 등을 직접 들려주었다. 그런데 연두색과 하늘색, 파란색 등으로 꾸며진 세트장이 특정 정당의 색상과 비슷하여 보기 안 좋았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이므로 주의해주시기 바란다. <4월 6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 주요 이슈를 심층적으로 전달해주는 9시 뉴스를 매일 저녁 시청한다. 최근 스튜디오에 패널이 출연할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밀차단용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TV가 화질이 좋아서 가림막에 묻은 지문이 잘 보인다. 그로 인해 앵커나 기자의 발언에 집중이 잘 안 된다. 스튜디오 투명 가림막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주기 바란다. <9월 29일 보고서>

○ 1TV 「TV 송출 중단 사고」

- 광주 지역의 시청자이다. 이날 오후 KBS 1TV를 시청하고 있던 중, 갑자기 송출이 중단되며 약 50분간 방송이 나오지 않아 당황스러웠다. 시청자들이 이러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앞으로는 방송 송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조심해주기 바란다. <10월 16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사건건」

- 데일리 시사 토크 프로그램으로 매일 오후 챙겨본다. 꾸준히 시청하다보니 유익한 시사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됐다. 최근 무대 배경이 새롭게 바뀌었는데, 노란 불빛이 계속 반짝이고 있어 집중을 저해한다. 그 뿐 아니라 촛불집회를 연상케 해서 공정하지 않은 면도 있다. 눈이 어지럽지 않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편안한 배경으로 바뀌주기 바란다. <10월 29일 보고서>

○ 2TV 「100회 특집 옥탑방의 문제아들」

- 매회 재미있게 시청한다. 방송을 시청하는 동안 상식이 늘어나는 기쁨도 맛보고 있다. 이날은 김한길-최명길 부부가 출연해서 기존 멤버까지 총 일곱 명이 방송을 진행했는데, 비밀차단용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걱정스러웠다. 방송 진행상 출연자들이 마스크를 착용할 수는 없으니 가림막이라도 설치한다면 안심이 될 것 같다. <10월 22일 보고서>

○ 2TV 「광고 송출 사고」

- 이날 「1주년 특집 신상 출시 팬스토랑」을 시청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방송 시작 전 광고 시간에 약 5분가량 화면이 하얗게 보이며 소리만 방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처음에 본인은 텔레비전이 고장 난 줄 알았다가, 다른 채널로 돌려본 후 방송사고임을 알았다. 앞으로는 이러한 방송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해주기 바란다. <10월 26일 보고서>

| 13. 시청자 참여 |

○ 1TV 「시사기획 창」

- 단순 고발을 넘어 진실을 찾고,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끝까지 파헤치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로부터 제보도 받고 있지만, 오직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이뤄져서 너무 안타깝다. 본인처럼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고령의 시청자들을 위해 전화 제보도 받아주길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1TV 「2020 특별생방송 정치개혁 국민에게 길을 묻다」

-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이 생각하는 우리 정치의 문제와 해법은 무엇인지, 국민과 함께 정치 개혁의 큰 길을 찾아 나섰다. 방송을 시청하며 본인도 우리 정치에 대해 평가를 했고, 주문하고 싶은 점이 있어 문자 참여를 했지만 화면에 노출되지 않아 아쉬웠다. 문자 이외에도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

을 수렴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1월 13일 보고서>

○ 1TV 「사랑의 가족」

- 지상파 유일의 장애인 전문 프로그램으로, 장애인들이 당당히 자신의 삶을 일구고 사회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며 깊은 감명을 받고 있다. 본인도 해당 방송에 출연하고 싶지만,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 방송 참여 신청이 어렵다. 본인처럼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방송 참여 신청을 받아주기 바란다. <4월 24일 보고서>

○ 1TV 「우리말 겨루기」

- 본인은 고령의 시청자로, 매주 월요일마다 해당 방송을 시청하며 퀴즈를 풀어보곤 한다. 그런데 '시청자 문제 응모' 코너에서 정답을 아는 경우가 많은데,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응모가 가능해서 너무 안타깝다. 본인처럼 컴퓨터를 다루지 못하는 고령의 시청자를 위해 문자 참여 등 다른 경로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4월 29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 '국회 반쪽 개원, 법대로인가? 독주인가?'

- 여야 의원들이 출연해서 원만한 21대 국회 운영을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토론했다. 본인도 의견을 보태기 위해 여러 번 문자를 보냈지만 소개되지 않아 아쉬웠다. 더욱이 하단의 실시간 문자의견란에 동일한 문자가 반복적으로 소개되어 안타까움이 컸다. 보다 다양한 시청자 의견이 소개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란다. <6월 8일 보고서>

○ 1TV 「KBS 특별기획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

- 여전히 코로나19가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날 서울대학교 의료관리학과 김윤 교수가 출연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방역시스템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방청객들이 아무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로 방청에 참가하고 있어 몹시 우려스러웠다. 재난주관방송으로서 시청자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 <7월 14일 보고서>

○ 1TV 「노래가 좋아」

- 온 가족이 재미있게 시청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다양한 상품 중 하나가 '여행상품권'이었고, 왕중왕전 우승팀에게도 300만 원 상당의 가족 여행 지원금이 주어졌다. 코로나19 펜데믹 영향으로 해외여행은 거의 불가능하고, 신규 확진자 급증으로 사실상 국내여행도 어려운 시기다. 추후에는 상품을 변경해주기 바란다. <8월 20일 보고서>

○ 1TV 「생방송 심야토론」

- 전문가 패널들이 출연해서 코로나19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 2차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최선의 대응책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인도 의견을 보태고 싶어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지만, 소개되지 않아 아쉬웠다. 시청자 의견 중 합리적이고 좋은 의견이 많을 것 같은데, 실시간 문자 참여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다. 진행자 및 패널이 즉각적으로 시청자의 의견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 <8월 24일 보고서>

○ 2TV 「제보자들」

-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직접 나서 일상의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프로그램이다. 시청자들로부터 제보도 받고 있지만,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로 이뤄져서 안타깝다. 본인처럼 홈페이지나 문자메시지를 다루지 못하는 고령의 시청자들을 위해 전화 제보도 받아주길 바란다. <7월 24일 보고서>

○ 2TV 「불후의 명곡」

- 실력 있는 가수들이 가요계 전설의 노래를 각자 자신에게 맞는 곡으로 재탄생시켜, 전설과 판정단 앞에서 대결을 펼치는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로 일반인 방청객 대신 연예인들이 판정단으로 활동 중인데, 아무래도 수가 적다보니 정확한 판정이 이뤄질까 우려스럽다. 「아침마당」의 '도전 꿈의 무대'처럼 시청자 투표가 이뤄진다면 더욱 공정하고 정확한 판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 같다. <10월 12일 보고서>

○ 2TV 「펫 비타민」'펫불런스 제보하기'

- 사람과 반려동물 모두의 건강과 공존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드는 프로그램으로, 해당 방송을 통해 재미와 감동, 유익함을 고루 얻고 있다. 주변에 수술이 필요해 보이지만 방치된 유기동물이 있어 '펫불런스'에 제보하고 싶지만, 본인은 나이가 많아 인터넷 사용을 할 수 없어 난처하다. 본인처럼 인터넷 제보가 어려운 시청자들을 위해 전화 제보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 <11월 16일 보고서>

○ 2R 「주현미의 러브레터」

- 시각장애인 청취자이다. 매일 아침 9시부터 두 시간동안 해당 방송을 청취한다. 주현미 씨만의 따뜻한 감성과 감미로운 음악, 다양한 사연을 들을 수 있어 즐겁다. 본인도 때때로 사연을 보내고 싶지만 시각장애를 지니고 있어 문자를 전송하기 어렵다. 본인 같은 청취자들을 위해 전화와 손편지 등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 <9월 24일 보고서>

| 14. 홈페이지 |

○ 1TV 「가요무대」

- 이날 방송은「가요무대」를 통해 열심히 활동했던 신인 가수들의 무대로 꾸며졌다. 너무 재미있게 시청한 터라 한 번 더 보기 위해 홈페이지 'TV클립'에 접속했다. 그런데 방송 다음 날인 2일 오전까지도 장민호 씨의 영상만 업로드 되지 않아 안타까웠다. 현재는 장민호 씨 부분이 업로드 된 상황이지만, 앞으로는 'TV클립'에 누락되는 영상이 없도록 주의해주기 바란다. <6월 3일 보고서>

○ 1TV 「시사기획 창」

- 단순 고발을 넘어 진실을 찾고, 사회의 불의와 부조리를 파헤치는 탐사 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시청자들의 제보도 받고 있다. 그런데 제보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되어 우려스럽다.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작성자와 제작진 외의 사람들에게는 작성자의 이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주기 바란다. <8월 25일 보고서>

○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 해당 프로그램을 무척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방송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 KBS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예능 카테고리에서 해당 방송을 찾을 수 없어 당황스러웠다. 추후에 시사/교양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해당 방송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점이 의아했다. <8월 13일 보고서>

○ 기타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

- 본인은 보고 싶은 방송을 놓쳤을 경우, KBS 홈페이지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청자이다. 이날도 놓친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려 했으나, 홈페이지 오류로 다시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어 난감

했다. 현재 홈페이지 오류로 복구 과정에 있다고 하니, 빠른 시일 내에 오류를 복구해주기 바란다. <2월 3일 보고서>

| 15. 프로그램 구매 |

○ 1TV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시청자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건강 분야와 음식은 물론, 생활 과학에서 경제까지 꼭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전달해주어 일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유익한 정보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방송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서를 발간해주기 바란다. <1월 9일 보고서>

○ 1TV 「역사저널 그날」

- 역사적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재구성하여, 아이들과 함께 보기에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더욱이 교과서나 책을 통해서 알 수 없었던 역사의 비화를 들을 수 있는 점이 이 프로그램의 매력이다. 역사 공부를 할 때 두고두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까지 방송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서를 발간해준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 <2월 21일 보고서>

○ 1TV 「생로병사의 비밀」

-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알아야 할 모든 정보를 시청자의 눈높이로 쉽게 전달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건강한 삶의 방식을 제시해주는 제작진에게 늘 감사하다. 이제까지 다루었던 건강 정보를 책으로 발간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도서를 발간해주기 바란다. <2월 27일 보고서>

○ 1TV 「한국인의 밥상」

- 우리나라 곳곳의 비경과 지역 별미를 소개해주어 즐겨 시청한다. 지금까지 방송된 내용을 책으로 간직하고 싶어 찾아보니 2011년대 후반에 발간된 도서 정보만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몇 년간 방송됐던 여행지에 대한 정보를 책으로 발간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 도서를 발간해주기 바란다. <9월 25일 보고서>

○ 2TV 「2TV 생생정보」

- 평소 궁금한 정보들을 제공해주어, 매일 저녁 방송을 시청하며 유익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맛있는 식당이나 저렴한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을 알려주면 메모해두곤 한다. 해당 방송에서 소개했던 살림법을 모은 책은 발간된 적이 있지만, 기타 다른 방송정보들을 모두 담은 책은 아직 발간되지 않았다. 이제까지 방송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도서를 발간해준다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다. <11월 16일 보고서>

| 16. 방송경영(정책) |

○ 기타 「수신료 담당부서 연결불가」

- 본인은 장애인인데 보건복지부로부터 TV 수신료를 감면 받을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다. 장애인 감면

혜택에 대해 문의하기 위해 수신료 담당부서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 담당부서와 연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10월 19일 보고서>

○ 기타 「수신료 담당부서 연결불가」

- 보건복지부로부터 방송법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와 시각·청각 장애인은 TV수신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안내 문자를 받았다. 이후 수신료 감면 신청을 하고자 KBS 수신료 콜센터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답답하다. 본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통화연결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다. 담당부서와 연락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10월 21일 보고서>

| 17. 보도 제언 |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미성년 성착취 영상 유포 '박사방' 일당 검거...경찰 "신상 공개 검토"

-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텔레그램을 통해 성 착취 영상을 유포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대중이 공분을 표하고 있다. 성 착취 영상을 제작 및 공유한 것도 충격인데, 해당 방에 참여한 이의 숫자가 2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KBS에서 해당 사건을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 안타깝다. 메인 뉴스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해주기 바란다. <3월 23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KBS 9시 뉴스를 시청했는데, 해당 사건이 비중 있게 다루지지 않아서 의아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심층 보도를 해주기 바란다. <3월 24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한마음으로 힘쓰고 있다. 특히 본연의 업무와 현장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의료진과 공무원,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 지역에서 고생 중인 의료진과 자원봉사들에 대한 언론의 조명이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 「뉴스광장」에서 그분들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 집중 조명해주기 바란다. <4월 1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중에서 해외 유입 사례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이토록 해외 유입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는 정부의 정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대처방식을 칭찬만 하지 말고, 잘못된 정책이 있다면 시청자들을 대신해 언론에서 비판해주기 바란다. <4월 3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전 정의연 이사장)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기부금 유용 의혹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공영방송인 KBS에서는 타 방송사에 비해 해당 보도가 적다. 정의연의 회계 관리와 기부금 운용 불투명, 윤 당선인 개인 계좌 및 아파트 매입 과정의 논란 등에 대

해 상세히 보도해주기 바란다. <5월 25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 지난달 29일 KBS 본사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었다는 보도를 접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사건의 전말을 알기 위해 KBS 뉴스를 시청했는데, 해당 사건이 다뤄지지 않아 의아했다. 화장실 불법 촬영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니, 9시 뉴스에서 해당 사건을 다뤄주기 바란다. <6월 3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 편의점을 운영하는 시청자이다. 최근 여러 뉴스에서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편의점에 풀렸다고 보도됐다. 그런데 편의점에는 극소량만 발주를 주거나, 아예 물량이 들어오지 않는 날이 많다. 그러나 해당 뉴스를 접한 시민들은 마스크 재고가 없다고 하면, 점주가 물량을 풀지 않는 게 아닐까 의심을 한다. 비말차단용 마스크가 오프라인에 풀리긴 했으나, 여전히 수요를 맞추기엔 역부족인 실태를 자세하게 보도해주기 바란다. <7월 10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 본인은 수도권외 법인택시 기사이다. 그런데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대상에 자영업자로 분류되는 개인택시 기사만 포함이 되고, 근로자로 분류되는 법인택시 기사는 빠졌다. 같은 업종인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된다는 소식에 허탈감이 느껴진다. 코로나19 이후 수입이 줄어든 것은 법인택시 기사도 마찬가지다.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대상의 허점을 보도해주기 바란다. <9월 15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7」

- 통계청으로부터 2020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 참여 안내문을 받았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형태로 진행된다고 한다. 그런데 본인은 인터넷과 휴대폰을 잘 다루는 편이 아니라서,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해 휴대폰으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응하는 방법을 7시 뉴스에서 다뤄주기 바란다. <10월 21일 보고서>

○ 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을 추가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이미 4,400만 명분은 확보가 됐다는 내용도 보도됐다.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가장 궁금한 부분인, 언제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 영국을 시작으로 캐나다와 미국 등의 나라가 접종을 시작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부터 접종이 가능할지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해주면 안심이 될 것 같다. <12월 11일 보고서>

5 정보공개 안내

KBS는 KBS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해 정보공개제도의 의의에 맞게 시청자가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최대한 공개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공영방송 KBS의 투명성과 시청자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정보공개제도는 방송법 제 90 조(방송사업자의 의무)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운영되고 있으며 KBS에서도 시대 흐름에 발맞추어 KBS 민원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KBS 정보공개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제정하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

【정보공개 제도 운영 법령 근거】

방송법 제90조(방송사업자의 의무)

- ①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제 88 조 제 1 항 제 1 호 및 제 2 호의 규정에 의한 시청자위원회의 의견제시 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 ⑤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청자가 요구하는 방송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KBS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목적은 정보공개청구 건에 대한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이의신청 및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것이다.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사장과 감사실장 등 위원 7명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부서장인 시청자센터장이다.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의 소집은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개최를 결정하며,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도록 되어 있다.

KBS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KBS 홈페이지 내 시청자상담실의 정보공개 청구사이트(<http://office.kbs.co.kr/info>)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2019년 KBS에서 처리한 정보공개 청구 건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 청구처리 실적 : 56건】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기타(청구·철회 등)	계
21	4	10	21	56

※ 2020 정보공개 청구 처리내역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 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	1월10일	이**	KBS 보수규정 비공개에 대한 이 의신청	기각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7 항 영업상 기밀에 해당
2	2월3일	김**	뮤직뱅크 순위산정위한 기준 공개 등	공개	
3	2월7일	김**	뮤직뱅크 K차트 집계방식	공개	
4	2월12일	권**	KBS영상자료 관리규정	공개	
5	2월10일	원주**	KBS원주국 관련회의록 및 폐쇄추 진 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6	2월17일	서**	KBS수신료 환불민원자료	공개	
7	2월24일	김**	시청자센터 의사결정 구조 및 수 신료 미납사례	공개	
8	2월24일	차**	뮤직뱅크 답변 관련 의사결정 구 조	비공개	시청자청원 답변으로 대체
9	2월18일	유**	일신정보통신이 KBS로 부터 수주 한 공사내역	공개	
10	2월25일	황**	KBS자체 민원처리 규정	공개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11	3월2일	임**	KBS 피디를 사칭한 인물의 재 직여부 등	공개	
12	3월12일	유**	일신정보통신이 KBS 공사 후 작성한 특성 측정표	부분공개	일부자료 부재로 보존 자료만 공개
13	3월17일	조**	KBS창원총국장 판공비, 전주국 운영비 일체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7항 영업상 기밀에 해당
14	3월25일	신**	방송모니터 합격자현황	부분공개	일부자료 부재로 보존 자료만 공개
15	3월31일	유**	일신정보통신이 KBS 공사 후 작성한 특성측정표	불문처리	같은 내용으로 지속청구 기 답변으로 불문처리
16	3월31일	유**	기록물 분류 기준표	비공개	자료부존재
17	4월1일	이**	KBS부지 리모델링 프로젝트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7항 영업상 기밀에 해당
18	4월20일	오**	스파이명월 전체 내용	불문처리	청구내용이 모호하고 내용을 알 수 없음
19	4월20일	오**	공부의신 전체 내용	불문처리	청구내용이 모호하고 내용을 알 수 없음
20	4월20일	오**	여름아 부탁해, 슈퍼맨이 돌아 왔다 전체 내용	불문처리	청구내용이 모호하고 내용을 알 수 없음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21	5월6일	중앙**	뮤직뱅크 청원관련 답변서 제출	이송	답변서 작성 후 법무실 이 전
22	5월1일	양**	KBS기본운영 계획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9조7 항 영업상 기밀에 해당
23	5월20일	조**	KBS전주총국 시청자위 운영집행 내역	공개	
24	5월28일	성**	5년간 인사고과 등 근평 결과	부분공개	일부자료 인사운영상 비공 개
25	6월4일	김**	지난 30년간 설,추석 등 명절 특선영화 리스트	공개	보존된 20년간 자료 공개
26	6월8일	김**	미방된 것으로 보이는 국악 관 련 방송 촉구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돼 청구 인에 이메일 안내
27	6월10일	이**	2000년 이후 부산지역 전국노래 자랑 수상자명단	비공개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6 항 개인정보에 해당
28	6월11일	양**	생생정보통 관련 영상자료	기타	본사 영상자료 규정에 따라 구매, 열람으로 안내
29	6월23일	성**	근평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30	6월25일	양**	KBS클래식 FM방송 녹음파일 공 개	기타	본사 영상자료 규정에 따라 구매, 열람으로 안내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31	6월30일	이**	4.15총선 20대-60대 정당지지율 등	공개	
32	6월30일	임**	2019년 촬영기자 채용에 대한 본인지원 여부	공개	
33	6월30일	이**	최근 10년간 직원징계 및 성희 롱 건수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9조 5항 인사관리에 관한사항
34	7월10일	이**	2020년 1월-6월 수신료환불 민원건수 등	공개	
35	7월20일	전북**	지역 종합뉴스7 시청율(상반기)	공개	
36	7월30일	장**	KBS 비상방송 지침 등	공개	
37	7월30일	최**	뮤직뱅크 K차트의 순위산정 방 법 등	공개	
38	8월3일	이**	KBS 노동조합 노사관계 자료 등	공개	
39	8월3일	황**	2006년 본인출연 프로그램 영상 제공	기타	본사 영상자료 규정에 따라 구매, 열람으로 안내
40	8월12일	최**	뮤직뱅크 K차트의 순위산정 방 법 재청구	기각	기답변 이상 공개자료 없음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41	8월10일	강**	부산구치소 폭행사건 관련 자료	기각	본사와 상관없는 청구로 기각
42	8월30일	윤**	KBS 개는 훌륭하다 계약 내용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9조 6,7항 개인정보, 영업상 기밀에 해당
43	9월14일	김*	공사 창립 후 방송지표, 조직도, 연차보고서 등	공개	
44	10월4일	백**	KBS 시청율 상위 프로의 출연자 별 실수령액	비공개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9조 6항 개인정보에 해당
45	10월6일	이**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제작비 규모 등	비공개	정보공개에 대한 법률 9조 7항 영업상 기밀에 해당
46	10월23일	최**	92-94 전국체전 육상영상	기타	본사 영상자료 규정에 따라 구매, 열람으로 안내
47	10월29일	김**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전문	공개	
48	11월3일	하**	KBS라디오 트랜스미터 위치와 보유현황	부분공개	보유현황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9조1항 5, 7호에 따라 비공개
49	11월22일	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	
50	11월16일	박**	KBS라디오 윤준호입니다 음원파일 등	기타	본사 영상자료 규정에 따라 구매, 열람으로 안내

접수 번호	청구일	청구인	청구내용	공개여부	
				결정구분	비공개(부분공개) 내용 및 사유
51	11월16일	송**	태권도가 전통무예에 뿌리를 뒀 다는 근거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돼 청구 인에 이메일 안내
52	11월25일	박**	역사스페셜 제작관련 모든 자료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돼 청구 인에 이메일 안내
53	11월25일	박*	역사스페셜 섭외관련 모든 자료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돼 청구 인에 이메일 안내
54	11월25일	박**	역사스페셜 동북공정 관련 모든 자료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돼 청구 인에 이메일 안내
55	12월22일	김**	공익광고 관련 영상요청	기타	비정보대상에 해당돼 청구 인에 이메일 안내
56	12월28일	김**	수신료환불 민원건수 등	공개	



시청자 권익보호

■ 시청자 권익보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한 국민의 권리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자율적 활동을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인권침해에 대한 의견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참여할 수 있고 방송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있다.

| 1 | 명예훼손

명예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인격적 가치에 대해 사회로부터 받은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며 개인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인 평가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한다. 언론보도에 지칭된 사람이 누구인지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인 사실이 적시되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 2 | 재산권 침해

재산권은 경제적 가치를 가진 권리, 즉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이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이나 회사 등의 매출감소와 같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재산권 침해가 된다.

| 3 | 초상권 침해

초상권은 사람이 자신의 초상에 대하여 갖는 인격적·재산적 이익이다. 즉, 사람이 자기의 얼굴이나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고 광고 등에 영리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할 권리이다. 언론보도에서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사진 등이 게재되거나 방송될 경우 초상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더라도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나 본인이 공표한 초상이라도 본인의 공표 의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가 성립된다.

| 4 | 사생활 침해

흔히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란, 자신의 사생활 내지는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생활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함부로 공개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 5 | 음성권 침해

음성권이란 자신의 목소리에 대한 권리이다. 제 3자가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음성을 비밀로 녹음하거나 이를 언론 매체에 공개하는 행위 등은 모두 음성권 침해로 볼 수 있다.

| 6 | 성명권 침해

언론보도에서 익명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을 실명으로 보도하는 경우, 성명권이 침해될 수 있다. 공인이 아닌 한 개인의 성명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자료원 : 언론중재위원회 교육교재)

■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권리소위)

1. 구성

- 시청자위원(3명) 및 KBS고충처리인으로 구성

2.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 직무 및 권한

- KBS고충처리인의 고충처리 실적 검토
- 고충처리 미해결 안건에 관한 시정조치 요구
- 방송으로 발생된 초상권 침해, 저작권 침해, 명예손상, 재산상의 피해 등 시청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 기타 시청자의 피해 및 불만이 많은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제시 및 시정 요구

3. 소위원회 운영

- 정기회의 : 월 1회
- 조치
 - 시청자권리보호소위 회의에서 검토, 결정된 의견은 시청자위원회 본회의에 상정, 보고

■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과 통신에 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고 방송과 통신의 균형 발전 및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지상파방송 및 종편·보도 PP 정책, 방송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위반 시 조사·제재,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정책 수립·시행 및 불법 유해정보 유통방지, 방송광고, 편성 및 평가정책 수립·시행, 미디어다양성 정책 등에 관한 사항이 있다.
 - 홈페이지 : <http://www.kcc.go.kr>
 - 대표전화 : 02-500-9000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 조에 따라 방송 프로그램 및 인터넷, 모바일 등의 불법·유해정보 콘텐츠를 심의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의 공정성·선정성·폭력성에 대한 내용이나 음란·불법 등에 대한 정보통신 정보에 대하여 처리한다.
 - 홈페이지 : <http://www.kocsc.or.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377
-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매체의 사실적 주장으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반론보도, 정정보도,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사건을 접수하여 조정·중재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한 기구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pac.or.kr>
 - 대표전화 : 02-397-3114
-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증진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을 위한 인권전담 독립 국가기관입니다.
 - 홈페이지 : <http://www.humanrights.go.kr>
 - 대표전화 : 02-2125-9700
- **국민권익위원회**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 왔던 기능들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은 크게 다음 세 가지이다.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관이다.
 - 홈페이지 : <http://www.acrc.go.kr>
 - 대표전화 : 국번없이 110

6

KBS고충처리인 활동

KBS고충처리인은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제4조(자격)에 따라 KBS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 서비스 업무를 주관하는 시청자센터장이 3인 이내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고충처리인으로 지정되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고충처리인과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 간사의 지위를 갖고 활동한다.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

■ KBS고충처리인 설치 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고충처리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에 언론 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 권한과 직무

-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 권고
- 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 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 자율성 보장

- KBS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일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2020년 한 해, KBS 고충처리인이 처리한 민원은 총 96건이고, 이를 월별, 부문별 그리고 내용별로 분류한 처리실적은 다음과 같다.

[접수 및 처리현황 : 96건]

월	구분	고충처리 홈페이지	우편·전화·팩스	외부기관 (방통위, 인권위 등)	계
1		6			6
2		2			2
3		1		4	5
4		3			3
5		1			1
6		5		5	10
7		5		5	10
8		3		10	13
9		4		9	13
10		5		11	16
11		3		9	12
12		2		3	5
계		40		56	96

[부문별 처리현황]

구분	제작부문(35건)			비제작부문(20건)			총계
	편성	보도	프로그램 (TV, Raido)	경영 (수신료, 시설)	수신기술 (난시청, IT)	기타	
건수	3	14	35	8	12	24	96

[민원 내용별 처리현황]

구분	건	비율(%)
편성 제안	3	3.1%
보도 취재요청	1	1.0%
공정성, 사실성, 객관성	1	1.0%
진행(아나운서 언어 등)	5	5.2%
정정요청(보도, 프로그램)	8	8.3%
권리침해(초상권, 명예정보 등)	16	16.7%
시청자만족(프로그램, 공개방송, 홈페이지)	37	38.5%
난시청, 난청	12	12.5%
경영(직원, 시설)	13	13.5%
수신료	0	0.0%
계	96	100.0%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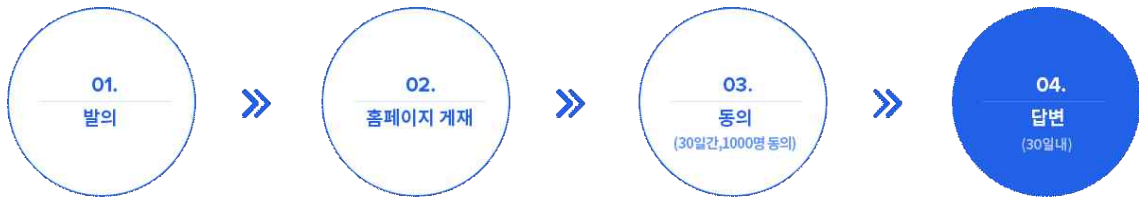
시청자청원

■ 시청자청원이란

KBS의 주인은 시청자 여러분입니다. KBS는 시청자가 요구하면 친절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발의할 수 있습니다. 30일(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부서의 책임자가 직접 답변을 드립니다.

■ 시청자청원 절차

청원 발의를 위해서는 KBS 홈페이지 가입이 필요합니다. 발의된 청원에 대한 동의, 추천은 주요 SNS (Facebook, Twitter, Naver)계정으로 가능합니다. (참고. 카카오의 경우 중복 아이디 차단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지금은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는 30일안에 시청자 프로그램, 동영상, 이메일 등을 통해 답변을 드립니다.



■ 시청자청원 운영세칙

한국방송공사 시청자청원 홈페이지 운영세칙

1. 욕설 및 비속어는 삼가 주세요.
2. 폭력적, 선정적인 내용, 청소년에게 해로운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주세요.
3.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생각해 주세요.
4.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율정책기구의 [정책규정] 등을 기반으로 문제 게시물은 [숨김처리] 또는 [삭제]될 수 있습니다.
5. 청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글을 반복해 게재할 경우 사이트 접속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청원 작성을 위해서는 [KBS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답변 및 회신 등을 위한 것입니다. 단, 청원 동의는 SNS회원도 가능합니다.
7. 청원 작성 전 비슷한 청원이 있는지 검색을 통해 확인해 주세요.
8. 같은 내용으로 중복 게시한 청원은 최초 1개 청원만 남기고 삭제됩니다.
9. 작성된 청원은 수정 및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신중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초 청원 취지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여 청원 참여자 의견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접수 현황]

월	구분	접수	비고
1		54	
2		209	
3		243	
4		114	
5		105	
6		110	
7		152	
8		6,823	
9		194	
10		127	
11		111	
12		113	
계		8,355	

※ 청원: 2018.09.04. 오픈

8

제작진 답변과 시청자 권익보호

1 제작진 답변

'KBS 제작진 답변'은 시청자상담실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을 통해 접수, 이첩된 시청자 의견에 대하여 제작진과 각 담당 부서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받은 답변이다. 이는 시청자 의견 접수부서인 시청자센터에서 각 부서에 시청자 의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결과를 민원사무처리규정상의 민원 사무처리 기간에 따라²⁾ 문서로 요청하여 담당 부서로부터 회신을 받은 것이다.

제작진의 답변은 '시청자상담실' 홈페이지 게시판³⁾의 '제작진의 답변'으로 게시되고 시청자는 자신이 낸 의견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확인 할 수 있다.

시청자센터에서는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제작진 답변'을 보다 내실 있게 하고자, 시청자상담 일일보고서에 게재된 시청자의 의견에 대한 객관적인 선정기준⁴⁾을 만들어 제작진의 답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 민원처리규정 제9조(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일, 방송에 대한 거의, 이의신청 10일, 방송에 대한 진정 14일,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문의 또는 진정 10일, 견학 신청 3일,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일이다.

3) 홈페이지 주소는 <http://iaudience.kbs.co.kr/>

4) 선정기준은 2011년 1월 27일자로 확정, 시행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중이다.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 _다수의 민원인이 제기한 의견. (10인 이상)
- _금전적 피해, 신체상의 피해 등의 발생으로 이에 대하여 보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 _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는 보도, 방송에 대한 의견.
- _출연자들의 음전운전, 폭행, 도박 등 관련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 시청자의 항의가 있는 의견.
- _타 방송, 신문 등 보도에서 논란이 있는 방송내용에 대한 의견.
- _업무와 관련, 실명이 거론되는 공사 직원에 대한 불만 의견.
- _경미한 사안으로 판단되나,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견.
- _기타 제작부서 등 관련부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견.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보 도	<p><input type="checkbox"/> 1TV [KBS 뉴스광장] 보도 제언</p> <p>- 하루의 시작을「KBS 뉴스광장」과 함께 한다. 본인은 특히 일기예보를 주의 깊게 챙겨본다. 그런데 이날 일몰 시간이 17시 22분으로 보도되었는데, 본인이 알아본 일몰 시간과 20분 가까이 차이가 나서 당황스러웠다. 일출·일몰 시간에 민감한 직업에 종사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정확하게 보도해주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재난방송센터</p> <p>- 자막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1TV [코로나 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보도 제언</p> <p>-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 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건의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KBS 9시 뉴스를 시청했는데, 해당 사건이 비중 있게 다뤄지지 않아서 의아했다.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심층 보도를 해주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사회부</p> <p>- 시청자들의 의견과 관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심층 취재 후 추가 보도 예정입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 1TV [6시 내고향] 방송 제언</p> <p>- 코로나 19 여파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가 및 소상공인들에게 소비자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판로를 마련한 코너다. 본인도 해당 방송을 통해 영광 굴비와 천일염을 주문했다. 그러나 천일염은 아직까지 받지 못했고, 영광 굴비는 사이즈가 작고 상태가 좋지 않아 실망스러웠다. KBS 를 믿고 구매한 시청자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주기 바라며, 원활한 주문이 이뤄지도록 접수 시스템도 개선해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시사교양 1 국_시사교양 2</p> <p>- '내고향 상생 장터'를 이용해주시는 시청자분들의 불편에 대해 해당 업체 및 제작진 모두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업체 측에서 홈페이지 시청자게시판에 댓글 형식으로 답변할 예정이며, 환불 및 교환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KBS 를 믿고 구매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며 배송과 환불, 교환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p>
	<p>□ 1TV [더 라이브] 자막 표기 제언</p> <p>- '직장 갑질 금지법'이 시행 1년을 맞았다. 그래서 이날 박정규 직장갑질 119 운영위원이 출연해, 해당 법 시행 후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그런데 최근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는 갑질 사례를 설명하던 중 '코로나 19 고용안정지원금으로 휴직급여 90%를 국가 지원받아도 무급휴직 강요'라는 자막이 표기됐다. '고용안정지원금' 혹은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다.</p>	<p>□ 담당부서 : 시사교양 2 국_시사교양 1</p> <p>- 확인해보니, 해당 제도의 정확한 명칭은 '고용유지지원금'이 맞습니다. 자막 오류가 발생해 시청자 분께 사과 말씀을 전하며, 유튜브 등에서 자막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시 사 교 양	<p>□ 1TV [TV쇼 진품명품] 진행자 발언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날 방송에는 개성파 원로배우 양택조 씨가 쇼감정단으로 참여했다. 그런데 진행자가 계속해서 “양택조 씨”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듣기 불편했다. ‘~씨’라는 표현은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말이다. 앞으로 진행자는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출연자에게 ‘~씨’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길 바란다. 	<p>□ 담당부서 : 한국어연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를 대상으로 한 진행이기 때문에 상대를 올리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고 ‘~씨’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p>□ 1TV [더 라이브] 출연자 의상 제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하루를 마무리하며 해당 방송을 시청한다. 그런데 핫한 이슈를 5분 내로 정리해주는 ‘이슈 5분 대기조’ 코너의 출연자가 군복 차림으로 출연한다. 군인이 아닌 사람이 유사군복을 입으면 여러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하는 동안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될 수 있으면 군복이나 경찰 제복 등 유사제복을 착용하는 것은 자제해 주었으면 좋겠다. 	<p>□ 담당부서 : 시사교양1국_시사교양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 주신 부분은 재미있게 시사 정보를 전달하려는 콘셉트로, 실제 군인과 혼동할 만큼의 유사한 착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청자 분께서 주신 지적은, 방송의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혹시라도 일반인이 군복을 자유롭게 착용해도 된다는 오해를 일으킬 수 있으니 출연자의 군복 착용에 대해 재고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제작진에서 대안을 논의해서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연 예 오 락	<p>□ 1TV [전국노래자랑] 방송 제작 제언</p> <p>- 일반인 출연자가 노래 실력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무대로, 일요일 낮에 온 가족이 시청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런데 매주 방청객들이 응원에 사용하는 비닐 막대 풍선이 비닐 줄이기 캠페인에 부합하지 않아 아쉽다. 세계 곳곳에서 일회용 비닐 사용 금지를 촉구하고 있으니, KBS 에서도 다른 응원 도구를 마련해주기 바란다.</p>	<p>□ 담당부서 : 예능 4</p> <p>- 응원도구는 각 지자체에서 준비하는 것이긴 하나, 환경오염에 대한 대체안을 검토해보겠습니다.</p>
	<p>□ 2TV [슈퍼맨이 돌아왔다] 방송 제언</p> <p>- 이날 도경완 아나운서가 도연우·도하영 남매와 함께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던 카라반 캠핑을 떠났다. 이를 위해 도경완 아나운서는 카라반을 직접 끌고 갈 수 있도록 특수 소형 견인 면허를 땀다. 그런데 면허 취득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 방영됐다.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도 면허 취득이 가능한지 의아했다.</p>	<p>□ 담당부서 : 예능 6</p> <p>- 도경완 아나운서가 특수 소형 견인 면허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부분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더불어 경찰청에 확인한 결과, 특수 견인 면허는 이미 안전벨트 교육을 이수한 1,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기능시험을 추가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벨트 착용 여부가 합격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엄중한 지적을 발판 삼아 앞으로 방송제작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연 예 오 락	<p>□ 2TV [신상 출시 편스토랑] 출연자 제언</p> <p>- 이날은 안주를 주제로 한 메뉴 대결이 펼쳐졌다. 이에 한지혜 씨는 재료를 구하기 위해 제주 해녀에 도전했다. 그런데 바다에 들어가기 전 납벨트를 착용하는 장면이 방영됐는데,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납벨트를 착용하는 것은 수산자원관리법상 불법에 해당한다. 법을 준수하지 않는 모습이 보기 불편했다.</p> <p>□ 2TV [박원숙의 같이 삽시다] 홈페이지 제언</p> <p>- 해당 프로그램을 무척 좋아하는 시청자이다. 방송에 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 KBS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예능 카테고리에서 해당 방송을 찾을 수 없어 당황스러웠다. 추후에 시사/교양 카테고리에서 찾을 수 있었는데, 해당 방송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된 점이 의아했다.</p>	<p>□ 담당부서 : 예능 6</p> <p>- 한지혜 씨의 해녀 체험은 지역 어촌계에 공식 허가를 받은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지역 어촌계에서 어업권을 가지고 정해진 구역에서 공식 허가를 받고 진행했습니다. 혹여라도 저희 방송을 보고 업체를 거치지 않고 '저렇게 해루질을 해도 되는구나'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면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고 방송을 낸 점 깊이 사과드리며, 향후에는 이와 같은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이며 해당 클립 및 VOD에 대해서는 <개인이 허가를 받지 않은 지역에서 무허가 어구를 사용해 무단으로 해산물 채취하는 것은 불법> 이라는 내용의 자막을 재표기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작에 더욱 주의하겠습니다.</p> <p>□ 담당부서 : 디지털미디어국</p> <p>- 해당 프로그램의 시즌 1이 시사/교양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후 시즌 2가 시작되며 예능 프로그램으로 변경되었고, 차후 홈페이지 카테고리를 수정하겠습니다.</p>

구분	시청자 의견	제작진 답변
라 디 오	<p><input type="checkbox"/> 2FM [정은지의 가요광장] 청취자 보호 제언</p> <p>- 본인의 청소년 자녀가 「정은지의 가요광장」을 애청한다. 아이들이 초대 손님으로 출연할 경우에는 KBS 라디오 부스를 방문하기도 한다. 그런데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라디오 부스 앞에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점이 무척 걱정스럽다. KBS 측에서 보이는 라디오를 통제하고, 청취자들의 부스 방문을 막아주기 바란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2FM 부</p> <p>- 오픈 스튜디오 폐쇄는 불가합니다. 금일부터 벤치 밖 폴리스라인을 설치하여 최대한 넓은 간격으로 방청할 수 있게끔 조치하고, 방송에서 다시 한 번 방문 자제를 권고하겠습니다.</p>
기 타	<p><input type="checkbox"/> [스크롤 자막] 자막 표기 제언</p> <p>-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5 번째 확진자가 발생하며 불안이 커지고 있다. KBS 에서 방송 하단의 스크롤 자막을 통해 예방수칙 등을 안내하는데 한국어, 영어, 중국어 순으로 나온다. 그런데 중국에 대한 원망이 커짐에 따라, 방송에서 중국어를 보기 불편하다. 보편적으로 세계 공통어로 사용되는 영어로 안내하면 충분할 것 같다.</p>	<p><input type="checkbox"/> 담당부서 : 재난방송센터</p> <p>-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중국에서 확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영어 자막은 의무사항이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국어 자막을 내보내게 되었습니다.</p>

9

부록(강령, 규정, 기준, 지침)

1 KBS 방송강령

[전문]

우리는 이 땅의 방송을 대표하는 KBS 인이다.

우리는 공영방송의 기능을 다해 국가발전과 국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추구하는 높은 이상을 실현한다.

우리는 자유언론의 실천자로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진실과 정직 그리고 균형을 바탕으로 한 공정방송을 성실히 수행한다.

우리는 전문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준수하며 지혜와 용기를 다하여 품위 있고, 책임 있는 방송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 한국방송공사 전체 사원의 뜻을 모아 -
1990년 1월 1일

[총 강]

I. 자 유

우리는 헌법과 방송법이 보장하는 바에 따라 방송을 통한 편성과 보도·제작의 자유를 갖는다.
<개정 2002.11.18.> 우리는 이 자유를 오직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서만 책임 있게 행사하며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자유를 지킨다.

II. 책 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와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적 합의의 창출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진실추구의 바탕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방송의 공적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건전한 민주여론 형성에 기여한다.

III. 독 립

방송은 완전한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내부와 외부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을 배제하며 국민의 방송으로서 전통과 권위를 수호한다.

IV. 방송의 공정성

우리는 공정성, 정확성, 객관성을 바탕으로 진실만을 전달한다.

방송은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우리사회 모든 계층의 다양한 의견이나 주장, 요구 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는 민주여론의 장이 되도록 한다.

V. 인권의 존중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국민의 기본권을 존중하며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지 않는다. 또한 방송이 국민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미풍양속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한다.

VI. 정 정

우리는 정확성과 성실성만이 방송이 갖는 공신력의 근원임을 인식하여 방송내용의 명백한 잘못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이를 정정한다. 특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등 정당한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에게는 반론의 기회를 준다.

VII. 품 위

우리는 방송인으로서의 직업윤리에 충실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우리의 의지를 한데 모아 "방송강령"을 만들고 이를 실천덕목으로 삼는다.

[방송 강령]

- 제 1 항** 방송은 국가의 존엄성과 민족의 자주성을 존중하며 국기 및 애국가를 모독하는 표현은 하지 않는다. 이 정신은 다른 나라를 다루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준용한다.
- 제 2 항** 방송편성권의 자율성은 보장되어야 한다. 진실을 바탕으로 한 보도나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함에 있어 외부의 압력은 물론 내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한다.
- 제 3 항** 방송은 민족 고유의 전통예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노력하며 이를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묘사나 표현은 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내용은 다루지 않는다.
- 제 4 항** 방송은 표준어 및 표준발음법에 따른 언어와 품위 있고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해 국어문화 확산에 이바지한다.
- 제 5 항** 방송은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최대한 존중 보호해야 한다. 공공의 이익과 관계없거나 또는 호기심 등으로 개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 제 6 항** 개인의 초상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거나 취재과정에서 완벽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이나 영상은 가급적 방송하지 않는다.
- 제 7 항**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 보도하는데 있어서는 그 말이 사실인지와 제 3 자의 명예를 훼손하는지를 확인하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인다.
- 제 8 항** 공공의 문제에 관한 논평이나 해설은 정확한 분석, 평가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의견이 찬반으로 갈라져 있는 쟁점에 관해서는 쌍방의 의견을 대표하는 논평이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 제 9 항** 정부나 공공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이 제공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진실 여부를 가리도록 노력하며 그러한 기관의 일방적인 선전에 이용되지 않는다.
- 제 10 항** 방송내용과 관계가 없거나 무의미하다고 판단될 경우 방송대상 인물의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 사상, 종교, 직업, 인종, 국적 등을 필요이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 제 11 항** 방송은 혼인의 순결성과 가정생활을 보호해야 하며 이를 손상하는 소재를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남녀의 성은 평등하게 취급하며 어느 한 쪽을 비하하여 다루지 않는다.
- 제 12 항** 방송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올바른 품성을 심어주며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노력한다.
- 제 13 항** 육체적,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다룰 때에는 본인이나 관계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같은 장애로 괴로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한다.

- 제 14 항**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고 특정종교나 종파에 대한 편견을 배제하며 어떠한 종교의식이라도 이를 모독하지 않는다. 다만, 사이비종교에 대한 방송에 있어서는 교리, 의식 등을 비판할 수 있다.
- 제 15 항** 경제 각 분야의 균형된 발전과 유통질서의 안정에 기여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 제 16 항** 노사문제는 객관적이며 공정한 관점에서 다루어야 하며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부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17 항** 법률을 어긴 행위를 정당화하는 보도나 논평은 하지 않으며 범인을 영웅시하거나 범인 또는 범죄 행위에 대해 호기심을 유발할만한 기사나 영상은 피한다.
- 제 18 항** 인명을 경시하거나 자살과 불륜을 미화하는 내용을 방송하지 않으며 범죄의 수단이나 방법, 악덕, 패륜행위의 내용을 필요이상으로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는다.
- 제 19 항** 범죄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는 사람이나 피의자라 하더라도 법원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 제 20 항** 법원의 판결이나 공적기관의 판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보도나 논평은 신중을 기한다.
- 제 21 항** 방송대상 인물이 전과자라 할지라도 방송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거나 다른 충분한 이유가 없는 한 범죄전과는 언급하지 않는다.
- 제 22 항** 범죄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용의자나 범인의 가족과 주변인물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삼가며 피해자에 관련된 사항도 꼭 필요한 내용만을 방송한다.
- 제 23 항**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본인의 이름은 물론 인상착의나 직업, 주소, 부모이름, 학교이름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내용과 영상은 밝히지 않는다.
- 제 24 항** 변사사건을 다룰 때는 당사자의 유족이나 친척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유족들이나 비탄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고통이나 모욕감을 주는 취재행위를 삼간다.
- 제 25 항** 환자나 사고, 재난에 의한 피해자의 입원치료를 취재할 때는 당사자들의 동의 없는 취재는 가급적 삼가며 입원사실 이상의 정보는 의료당국의 제보에 의존한다.
- 제 26 항** 의료나 의약품은 정확한 용법을 제시해야 하며 의료이외의 환각제, 각성제, 마약 등의 사용은 긍정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 제 27 항** 천재지변이나 사고 등 긴급사태 및 인명구조에 관련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방송한다.
- 제 28 항** 우리는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지 않으며 정치나 정치조직을 위한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밖의 특정 이익집단을 위한 방송은 하지 않는다.

- 제 29 항** 방송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가 상충될 수 있는 사회활동이나 영리행위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특히 본인이나 가족의 부업이 직무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 제 30 항** 우리는 취재원에 비밀을 보장했을 경우 공개하지 않는다는 직업윤리를 존중한다. 그러나 절실한 필요가 없는 한 경솔하게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는다.
- 제 31 항** 풀(Pool)제 취재는 피치 못 할 경우에 한해서 수용하되 출입처와 수행취재 등에서 편의 등을 목적으로 한 담합이나 풀제는 배척한다.
- 제 32 항** 취재를 위해 개인의 주거나 집무실에 무단출입하지 않으며 취재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인터뷰 등을 강요하지 않는다.
- 제 33 항** 인터뷰할 때에는 대상자에게 방송을 전제로 한 것인지 또는 단순한 정보로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야 하고 인터뷰내용을 편집할 때는 전체의 흐름에 어긋나거나 일방적인 방향으로 편집해서는 안 된다.
- 제 34 항** 선거유세, 시위, 공연 등의 행사를 다룰 때는 그 시위나 행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한다. 특히, 정치성 균중집회일 경우 인원수 추계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카메라 앵글조작 및 편집에 신중을 기한다.
- 제 35 항** 모든 방송자료는 정당한 방법으로 취득하며 위장이나 속임수로 취재나 촬영협조를 받지 않는다.
- 제 36 항** 영상, 녹음 등으로 취재한 방송자료는 명백하고도 절실한 국익이나 공익을 위한 경우가 아니면 수사기관을 비롯한 외부에 제공하지 않는다.
- 제 37 항** 취재내용가운데 공표되지 아니한 자료나 영상을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나 취재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않는다.
- 제 38 항** 다른 목적으로 취재한 영상을 뒷날 당사자에게 불명예스러운 자료화면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 제 39 항** 다른 매체의 자료와 영상을 표절하지 않으며 다른 매체나 타인의 자료와 영상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명시한다.
- 제 40 항** 우리는 보도, 제작, 중계방송을 함에 있어 상업적인 영향력을 배제한다.
- 제 41 항** 우리는 신분을 이용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외부기관에 청탁하지 않으며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지 않는다.
- 제 42 항** 우리는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취재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며 직무와 관련해 외부에서 제공하는 금품이나 향응을 거절한다.
- 제 43 항** 우리는 취재, 편집, 프로그램 제작과정에서 방송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며 방송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제정 1984.2.29 규정 제221호
 개정 1986.12.8 규정 제279호
 직권개정 2001.4.7 규정 제767호
 개정 2008.8.5 규정 제1081호
 개정 2016.4.20. 규정 제1328호

개정 1984.9.3 규정 제222호
 개정 1991.4.29 규정 제412호
 직권개정 2004.8.25 규정 제944호
 직권개정 2010.6.17 규정 제1148호
 직권개정 2019.6.19. 규정 제142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서 접수한 민원 업무를 친절, 공정,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고충처리제도 및 정보공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원인 : 공사에 대하여 각종 민원을 요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자를 민원인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 가. 국가기관 또는 공법인이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나. 공사와 사법상의 계약관계에 있는 자가 사법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 다. 주소, 성명 등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가 공사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2. 민원 : 민원인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개정 2016. 4. 20.>

 - 가. 질의, 건의, 진정 및 이의신청 <개정 2016. 4. 20.>
 - 나. 기타 공사에 대하여 특정행위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제3조(민원서류의 접수)

- ① 접수된 민원서류에 대하여 본사는 시청자센터, 지역방송(총)국은 시청자업무소관부서에서 접수하고, 직할 송중계소 및 업무사업지사·소는 자체에서 접수하되, 민원처리부(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지역 방송국 송중계소는 관할 지역방송국에 이송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직권개정 2019. 6. 19.>
- ② 접수된 민원서류 중 그 처리가 민원담당부서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③ 민원담당부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고의로 접수시간을 지연시키거나 부당하게 반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민원담당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민원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담당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4조(구술에 의한 민원접수)

- ① 구술에 의해 제기된 민원사항의 접수는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단순 문의 등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주무부서에서는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부”를 비치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제5조(불문처리사항)

민원사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8. 1>

- 1. 민원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2.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 3. 민원사항의 내용이 막연하여 이해할 수 없거나, 특정지을 수 없어 보완을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 4.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불만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제출하였고,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 경우
- 5. 기타 민원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접수증)

민원서류를 접수한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접수증(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 등)

- ① 민원담당부서 또는 주무부서에서는 접수된 민원서류에 흠결이 있거나 그 내용이 불확실하여 별도의 자료가 요망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민원인에게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 ② 보완이나 보정의 요구는 구술, 전화 또는 문서로 하되, 그 이유 및 필요한 보완 또는 보정사항과 요구기간 등을 민원처리부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0.>
- ③ 민원인이 제1항에 정한 기간 내에 서류의 보완이나 보정을 하지 못하거나 제출된 내용이 요구한 내용과 상이할 때는 1차에 한하여 당해 민원서류 처리기간의 2분의 1범위 내에서 재차 보완 또는 보정의 독촉을 하여야한다.
- ④ 민원인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보완요구 등이 2회에 걸쳐 반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제3항의 독촉기간 내에 당해 민원서류를 보완 또는 보정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민원인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8조(민원서류의 처리 및 협조)

- ① 접수된 모든 민원서류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 ② <삭제 2008. 8. 1>
- ③ 민원서류를 처리함에 있어 관계부서 상호간 협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문서규정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내일반문서를 사용, 회신기간을 명기하여 협조요청한다. <개정 2008. 8. 1>
- ④ 협조요청을 받은 부서에서는 일반문서에 우선하여 협조기한 내에 회신하여야 하며, 협조요구부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에는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회신예정일 등을 협조요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9조(처리기간)

- 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의 종류별 처리기간(별표3)을 정한다. 다만, 별표3에 열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별표3에 준한다.<개정 2016. 4. 20.>
-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이를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1. 보안상 필요한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
 - 2. 민원서류의 보완 또는 보정에 소요되는 기간
 - 3. 서류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 4. 민원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 ③ 본 규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5조의 기간 계산 시 공휴일, 토요일, 공사기념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 8. 1>

제10조(처리기간의 연장 또는 지연)

- ① 부득이한 사유로 **별표3**에 규정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정의 처리기간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을 7일 이상 연장할 때에는 그 결과와 처리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결과의 통지)

- ① 민원사항의 처리를 완결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할 필요가 없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민원인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민원서류의 통제 및 발송)

민원서류의 발송은 문서부서에서 일반문서 발송처리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8. 1>

제13조(처리지연의 신고)

- ① 민원인은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처리기간의 경과, 소정의 구비서류외의 서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민원담당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민원부서의 장 또는 주무부서장은 이를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4조(처리상황의 확인 및 독려)

본사의 각 주무부서의 장은 민원처리상황을 매월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지역방송국 송중계소 및 업무사 업지사장은 처리부진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조치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91.4.29, 개정 2016.4.20.>

제14조의2 (민원심사관)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민원심사관을 둔다.
- 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의 처리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기간이 경과한 민원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의 장에게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14조의3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 <본조신설 2016. 4. 20.>

-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 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 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 3. 기타 필요 사항
- ② 제1항의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5조(고충처리인) <신설 2008. 8. 1>

- 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시청자주관부서에 고충처리인을 둔다.
- ② 고충처리인은 전항의 법률에 근거한 민원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고충처리인은 시청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 간사가 되며, 관련 업무를 시청자위원회와 함께 처리할 수 있다.
- ④ 공사는 고충처리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신설 2008. 8. 1.>

- ① 정보공개에 관한 청구·통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처리한다.
- ② 공사는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7조(보칙)

- ①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08. 8. 1, 개정 2016. 4. 20.>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4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8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4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8. 25) 이 규정은 2004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5) 이 규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 6. 17) 이 규정은 201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4. 20) 이 규정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 6. 19)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삭제 2008. 8. 1>

[별표2] <삭제 2008. 8. 1>

[별표3]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민원 종류별 처리기간>

민원명	처리기간
■ 방송에 대한 각종 문의	5 일
■ 방송에 대한 건의, 이의신청	10 일
■ 방송에 대한 진정	14 일
■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질의 또는 진정 등	10 일
■ 견학 신청	3 일
■ 행사주최, 후원승인 요청	20 일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4. 20.>

<민원 처리부>

접 수		접수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민원인		처리 기간	경유 또는 이송	협조 또는 조회			처리		비고
번호	월일				성명	주소			월일	회월	신월	월일	내용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8. 8. 1, 개정 2016. 4. 20.>

<구술에 의한 민원사무 처리부>

접 수		접수자 또는 처리담당자	종류	건명 및 내용	처 리		처 리 내용	민원인			비고
번호	월일시				기간	년월일		주소	성명	전화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 4. 20.>

NO

민원 접수증(보관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민원사무처리부 접수번호 :

NO

민원 접수증(민원인용)

민원건명 :
민원인 :
주소 :

상기 민원을 접수함.
20 년 월 일

한국방송공사

3 KBS 고충처리인 운영지침

■ 작성근거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민원처리규정 제15조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고충처리인을 두는데 있어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과 직무)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3조(독립성)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격)

공사에 15년 이상 재직한 직원 중에서 시청자서비스업무를 주관하는 센터장이 지정하는 3인 이내의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5조(지위)

고충처리인의 지위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서 정한 KBS 고충처리인
2. 시청자위원회 권리보호소위원회의 간사

제6조(임기)

고충처리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고충처리인이 연임 시 별도 임명하지 않으나 고충처리인이 퇴직 또는 타부서로 인사발령이 날 경우 후임자 임명과 동시에 임기가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7조(보수)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고충처리인의 보수는 공사 보수규정에 따른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이 제2조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정의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절차)

고충처리 절차는 민원처리규정 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고충처리인은 별첨 「고충처리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내용 등을 검토하여 직접 처리하거나 관련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이첩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토록 통보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관련부서에서 요청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거나 처리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
3. 시청자권리보호소위원회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고충처리에 대한 결정사항을 수용하도록 해당 부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4.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청자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수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는 고충처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고충처리 사항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제9조(기타사항)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사는 고충처리인의 연간 활동실적은 익년도 2월말까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임명된 고충처리인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
3. 이 지침은 2016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4. (2019.6.19.) 이 지침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고충처리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주소			
	이메일주소			
방송채널명		방송일시	년 월 일(요일), 시	
프로그램명				
피해사실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기록(부족할 경우 별지 사용 가능)			
요구사항				
위에 기재한 내용은 사실임을 확인하며 고충처리를 신청하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KBS 고충처리인 귀하				
* 증거서류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첨부				

4 KBS 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안

1. **목적:** 한국방송공사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기능:** 정보공개 여부 등 심의
3. **심의사항**
 - 가.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 나. 이의신청
 - 다.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구성:** 위원장 포함 7 인
 - 위원장: 부사장
 - 위원: 전략기획실장, 편성본부장, 보도본부장, 제작 1 본부장, 기술본부장, 감사실장
 -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의 장인 시청자센터장이 맡는다.
5. **개의 및 의결:**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6. **소집 및 부의절차:** 처리부서의 청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집회의 개최 결정
 - ※ 정보 공개여부 결정 : 청구를 받은 날부터 7 일 이내
7. **의사록**
 - ① 위원회 심의과정과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함.
 - ② 의사록에는 위원장과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함.
8. **서면의결:**
 - ① 위원장은 보고 또는 토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의안이나 긴급한 의안으로써 회의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의결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음.
 - ② 서면의결에 의하여 의안을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안과 함께 서면심의위원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회부하여 찬성여부 표시로 의사결정을 하여야 함.
 - ③ 서면 의결시의 의결방법 및 부의 절차는 서면의사록에 서명 날인함.
9. **의결사항 통보 및 의결서 보존:**
 - ① 간사는 위원회 의사록 및 부의원안 등 의결서를 보존하여야 함.
 - ②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사항을 서식에 의하여 청구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소집통보서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소집을 통보합니다.

1. 일 시: 20 년 월 일 시

2. 장 소:

3. 상정부의 안건

가.

나.

다.

라.

20 년 월 일

위 원 장

(인)

위 원 귀하

제 차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건 명			
상 정 자			
일 시			
장 소			
출석인원			
결석인원			
참 석 자			
회의전말		기록자	

위 의결의 명학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날인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서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의사록

(부의번호 호)

제 목:

표제와 같은 별첨 사항을 서면 의결코자 하니 찬성여부를 다음에 날인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찬성함		반대함		의 견
위원장	(인)	위원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결 과				

위 결정을 인정함.

20 년 월 일

위원장 (인)

5 시청자청원제도 운영지침

- 목적:** 이 지침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 또는 'KBS'로 한다)가 시청자와의 소통 강화 및 신뢰 증진을 위해 구축한 '시청자청원' 시스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명확히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청원주체:** 대한민국 국민이면 성별, 연령 제한 없이 시청자청원을 발의할 수 있다. 다만 동일인이 중복해 청원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최초 청원 발의자는 KBS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에 가입하여야 한다.
- 청원대상 및 분류:** 청원사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청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분류·운영한다.

항목	내용
방송편성	편성요청, 폐지(반대), 방송분량, 편성 변경 등에 관한 사항
보도	(TV·R) 정규 뉴스, 특보, 속보
프로그램	(TV·R) 시사, 교양, 드라마, 예능, 출연자, 방송참여, 광고 등
방송기술	난시청, 송수신, 영상, 음향, 세트 등
방송경영	행사, 사업, 계열사, 수신료 등
SNS·홈페이지	다시보기, 게시판, 방송정보, 실시간 방송, KONG, MY K 등
시청자권익	방송피해 및 권리구제 (저작권, 명예훼손, 초상권)
기타	위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

4. 청원 발의 및 청원절차

- 발의된 청원은 KBS 시청자청원 홈페이지에 즉시 등록·접수된다.
 - 발의된 청원은 청원자의 요청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정 및 삭제할 수 없다.
 - 발의일로부터 30일 이내 천 명 이상의 동의(추천)를 받은 경우 청원이 성사된 것으로 간주한다.
 - 발의된 청원에 대한 동의기능은 주요 SNS를 통해서도 가능하도록 한다.
 - 성사된 청원에 대해서 관리자는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쳐 30일 이내에 시청자청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답변을 게재하도록 한다. 관련부서와의 협의는 기존 민원업무처리 절차에 따른다.
 - 정해진 기한 내 청원 성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원은 일정기간 게시 후 삭제할 수 있다.
 - 청원 성사 및 성사된 청원에 대한 답변이 홈페이지에 게재될 시, 관련 사항을 전자우편 등을 통해 청원 발의자에게 알려준다.
5. **청원제한 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청원사안은 관리자 권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 동일인이 동일 내용으로 제기한 중복 청원
 - 욕설 및 비속어가 포함된 청원
 - 폭력적이고 선정적이어서 청소년에 유해한 내용이 담긴 청원
 - 허위 사실이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담긴 청원
 - 검찰, 경찰 등에서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과 관련된 청원
 - 기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한국인터넷 자유택재기구의 '정책규정' 등에 저촉되는 청원

6. 청원업무 관리자와 권한

- ① 원활한 청원업무처리를 위해 복수의 관리자를 둔다.
- ② 관리자는 시청자청원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 ③ 관리자는 시청자가 발의한 청원내용이 관련법에 위배되거나 '청원 제한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 삭제 및 숨김 처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원 발의자에게 해당내용을 통지한다.
- ④ 관리자는 타인의 ID를 도용하거나 중복ID사용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⑤ 관리자는 이용자들이 발의된 청원에 동의(추천)를 할 수 있도록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⑥ 관리자는 청원이 성사된 경우 청원답변 시한 내 답변이 게재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의한다.
- ⑦ 관리자는 장기간 동안 성사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청원에 대해서는 임의 삭제할 수 있다.
- ⑧ 관리자는 청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이 제출된 경우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 ⑨ 청원제한 사항을 게재하는 경우 경고메시지를 발송하고 3차례 이상 어길 경우 접속을 제한할 수 있다.

7. 시청자청원에 대한 관련부서의 답변제출

- ① 청원내용과 관련된 부서책임자(본사 부장급이상, 지역(총)국은 국장급이상)는 성사된 청원에 대해 성실히 답변한다.
- ② 청원내용에 대한 답변은 영상물 등으로 제작하여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예산과 인력은 시청자센터 내 시청자프로그램 예산과 제작인력을 활용한다.
- ③ 기타 세부업무처리는 기타 민원업무 처리 절차에 따른다.